보보담

Volume 10, Autumn 2013

10

‹보보담› 2013년 가을 호(통권 10호)
Volume 10, Autumn 2013

등록번호 용산 바 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주간 : 구자열
자문 : 김윤수, 김화성, 안대회, 최성우

도움 주신 분들 :
권상구(시간과 공간 연구소 이사)
이민재(LS네트웍스 모스크바지사장)
김엘레나(러시아포커스 에디터)
유리사(러시아어 통역)
임윤혁(자유기고가)
김아람(블링크 발행인)

디자인 : 헤이조(Hey Joe)
사진 : 박정훈, 박시찬
인쇄 : 으뜸인쇄

용지 : 삼원 리브스디자인 250g/m^2 (표지),
백모조 100g/m^2, 스노우화이트 100g/m^2,
매직칼라 Yellow 90g/m^2, 중질만화 80g/m

발행일 : 2013년 10월 30일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동료 교수 방에서 우연히 ‹보보담›을 봤습니다. 오래 전 ‹샘이 깊은 물›을 구독하다가 그 잡지가 폐간되면서 격 있는 잡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보보담›을 보며 요즘도 이런 잡지가 있다는 사실에 좀 감동 받았습니다.
문도식(서울시 성동구)

태백.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카지노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탄광이 먼저 떠오르는 세대입니다. 어렵던 시절, 태백만 가면 다들 먹고산다고 했는데, 탄광 매몰 사고는 왜 그리 자주 일어났는지… 언젠가 폐광 후 찾은 광산촌은 썰렁하기만 하더니 최근 열차 차창 너머로 다시 만난 그곳은 화려하더군요. ‹보보담›을 통해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노욱성(서울시 중구)

바이클로에서 ‹보보담›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바이클로 아카데미도 수료를 했어요.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삶에 휴식이고 동력이라 주기적으로 가출을 하는 역마살까지 있습니다. 이런 나와 ‹보보담›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희경(고양시 일산구)

곤지암 리조트에서 ‹보보담›을 봤습니다. 잡지는 으레 광고가 먼저 눈을 끄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더군요.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참신한 관점으로 들여다보며 책을 만드는 게 신선해서 스파를 하는 중간 중간 열심히 읽었네요.
박성우(용인시 수지구)

벗이 권해줘서 무심코 들춰보다가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글도 좋고 사진도 좋고 자세히 보니 광고도 거의 없더군요. 태백과 정선은 제가 군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30년 전, 힘들었지만 젊음의 흔적이 아련한 그 곳 풍광과 사람들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태경(부산시 수영구)

Editor's Note

이미지가 깨진 자리에 남은 것들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는 도시 구조, 한국전쟁이 비껴간 덕분에 근대의 흔적이 도심 곳곳에서 현재와 공존하는 풍경. 그런 것들에 끌려 대구로 출발할 때조차 '고담 시티 대구, 대구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대구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도 맛이 없다.'는 생각은 공고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를 덮고 있는 이미지 대신 문화적 서사를 캐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제 때 파괴된 대구읍성을 재현하려고 흩어진 성돌을 찾아다니고 이미 3만 개나 찾았다는 이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알고 있던 대구와 처음 만난 대구가 도무지 균형이 맞질 않아 한참 뒤뚱거렸습니다. 이번 대구 특집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대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스크바 사람의 절반쯤은 매주 금요일 오후면 도심을 탈출해 자연 속으로 숨어들 수 있는 피난처, '다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키릴 문자가 그저 그림일 뿐인 사람들을 세계에서 물가가 두 번째로 비싸다는 도시로 향하게 할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붉은 광장과 사회주의, 눈과 보드카, 혹은 미인이나 '상남자' 푸틴에 가려진 러시아의 은밀한 이야기가 죄다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호의로, 세 마디에 한 번은 큰 웃음이 터지는 어느 가족의 다차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마음'과 '러시아의 영혼',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밖에 번역할 수 없다는 말, '루스카야 두샤(Русская душа)'를 배웠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자동차도 경찰도 많지만 꽃집과 꽃을 든 사람도 많다는 게 시야에 들어온 것도, 무뚝뚝한 표정 대신 꽃을 쥔 손에 눈이 먼저 갔던 것도 다 그 후의 일입니다.

편견이 실제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함께한 기억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고정관념을 실제라 믿는 게으른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지 대신 그 서사로 눈길을 돌릴 때, 그제서야 무표정한 도시도 제 표정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ㅂ

글 · 편집부

014

023

045

086

Direction	길 위에서 기다림 글 · 정진홍	009
Site 1	대구 大邱	
Reading the City : Taegu	누가 뭐라 카든 내 속도대로 간다, 맞나? 글 · 임윤혁, 사진 · 박시찬	014
Time Travel, Taegu	모던 도시 대구를 읽는 여덟 가지 열쇳말 글, 자료 제공 · 권상구	023
	1) 거상의 출현	024
	2) 마지막 황제의 순행	028
	3) 연애의 시작	030
	4) 동방의 모스크바	032
	5) 약령시 커넥션	036
	6) 1950년 대구	038
	7) 전환의 도시 1969	040
	8) 모던 도시, 대구	042
Meeting People	토박이 인터뷰 글 · 김주희, 사진 · 박정훈	045
Mountain Temple	가장 먼 여행, 청도 운문사 글 · 이산하, 사진 · 박정훈	058
Local Food	잡다한 곁맛 물리치고 확끈하고 직설적으로 글 · 박찬일, 사진 · 박정훈	066
Way Back in the 19C	경상감사 신석우와 떠나는 대구 문화유산 답사기 글 · 안대회	076
Going to Market	시장통에서 만난 '진짜 대구' 글 · 최성우, 사진 · 박정훈, 그림 · 강지호, 스타일링 · 김정민	086
Artist to Remember	시대를 앞서간 대체 불가의 거인 이쾌대 글 · 최석태, 자료 제공 · 이한우	100
Trees in History	나무로 읽는 대구의 역사 글 · 강판권, 사진 · 박정훈	109

126

148

164

170

Site 2	모스크바 Москва	
Russian Humour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땅 글 · 손요한, 일러스트레이션 · 최진영	118
Russia in Numbers	숫자로 보는 러시아와 모스크바 글 · 편집부, 일러스트레이션 · 최진영	124
Walking with a Shot	어떤 역사보다 더 먼 미래를 전망하는, 러시아 영화 글 · 정성일	126
Business Episode	어느 상사맨의 러시아 이야기 글 · 편집부, 일러스트레이션 · 김태우	130
Breathing Space	다차에서 배운 러시아의 마음 글 · 정성일, 사진 · 박정훈	148
Local Food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글 · 석영중, 사진 · 박정훈	156
Public Transport	모스크바 지하철역 관람기 글 · 편집부, 사진 · 박정훈	160
Art Space	만민을 위한 개인의 헌신,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글 · 정성일, 사진 · 박정훈	164
Soul Space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 톨스토이를 만나다 글 · 정성일, 사진 · 박정훈	170
Meeting People	보보담이 만난 네 명의 모스크비치 글 · 편집부, 사진 · 박정훈	176
BOBODAM Choice	짧은 가을을 좀 더 오래 만나기 위해 준비할 것들 글 · 편집부, 사진 · 박정훈	184
Column	난 아버지가 떨어뜨린 '가랑잎 한 장' 글 · 김화성	186

두바퀴 Bicycle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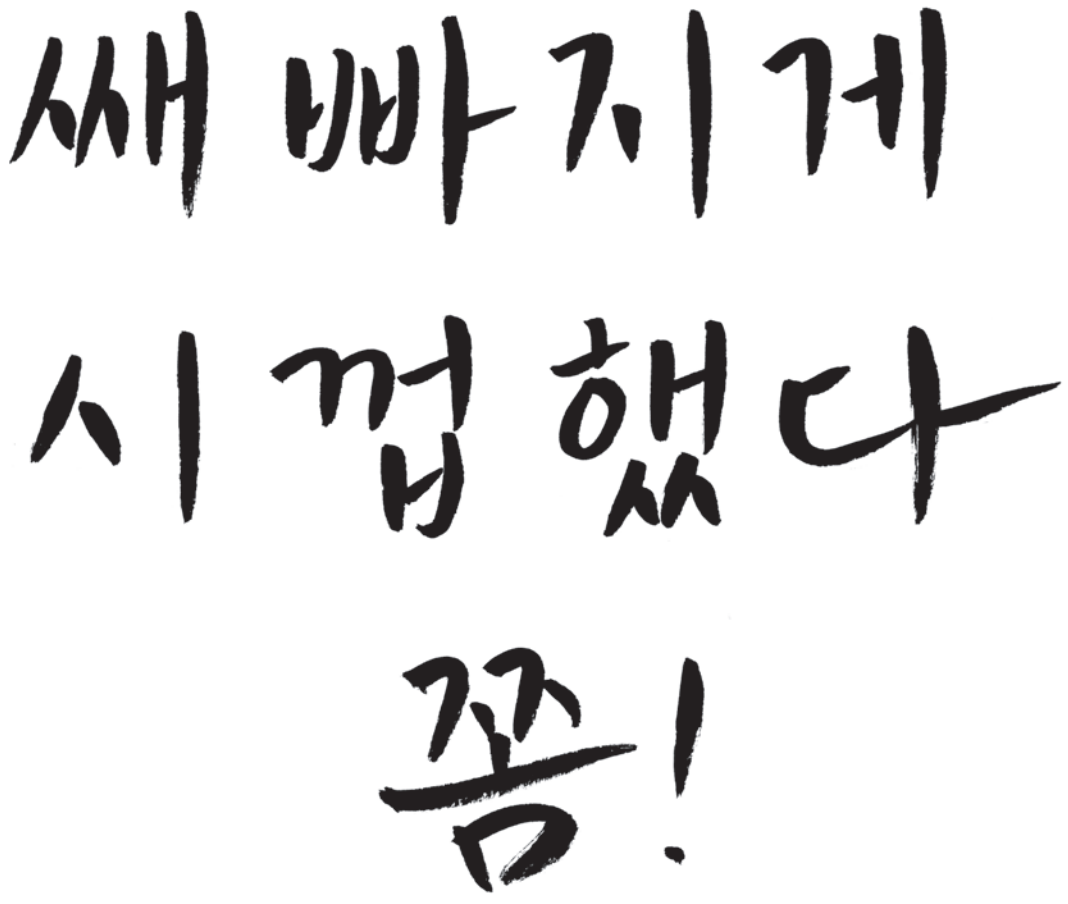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퀴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
페달 자전거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디이야 뭐라카노

됐나? 됐다!
퍼뜩
댕기오이소

얄구저라
아지매
그라지예



Calligraphy : Burn Kim

길 위에서 기다림

아버님께서는 늘 퇴근이 늦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깜깜한 밤이라고 해야 옳을 때쯤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식구는 대체로 그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안방에 자리를 잡고 앉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날씨가 낮보다 더 추웠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시장기를 참으면서 모두 아랫목 이불 속에 발을 뻗고 앉아, 돌아가며 실뜨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수께끼 맞추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대문 소리만 나면 하던 놀이를 다 집어치우고 한꺼번에 일어나 장지를 열고 우르르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름이면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시간으로는 겨울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름에는 해가 길어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는 때가 아직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배고픈 것도 잊고 술래잡기나 그림자밟기에 빠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도랑 건너 양쪽으로 채마밭이 펼쳐진 사이에 난, 넓지 않은 긴 저 길 끝에서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면 누군가가 '아버지다!' 그렇게 외쳤고, 우리는 하던 놀이를 다 집어치우고 아버님을 향해 너나없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어김없이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이쪽 끝에서 아버님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마중을 나갔습니다.

길 위에서
길 끝을 응시하며
기다리기

그런데 제가 열 살 이전이었음직한 이 기억 속에 웬일인지 아버님을 배웅한 기억이 없습니다. 때로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늦잠을 자서 그랬는지, 아니면 게을러 '귀찮아' 그랬는지, 문간 밖까지 나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님의 출퇴근이란 당연한 일상이어서 덤덤한 것이었다면 왜 출근하시는 일은 그리 소홀했고 퇴근하시는 일은 그리 기다려졌는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대한 깍듯한 예를 마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도록 하셨다고 할 만큼 엄격하게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몇 해 뒤에 '아버지를 잃은 일'이 저로 하여금 '떠나심'은 말짱 잊고 오직 '돌아오심'만 기다리게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길 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멀리 보이던 아버님의 희미한 모습이 점점 가시면서 아버님께서 퇴근하시듯 뚜렷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리가 없는데도,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내기는, 사람 떠나보내기는, 다시 만나기를,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마중하기를 담고 있을 때만 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아픕니다. 떠나던 길을 되돌아올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길 끝에서 그가 사라졌던 길 끝을 바라보며 이제 그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눈을 부비며 기다릴 수 없는 헤어짐이란 아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 속에, 그 길의 바라봄 속에, 보냄의 기억이 온통 자리를 차지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곧 만날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 길 끝에서 희미하지만 뚜렷한 모습으로 이리로 걸어오는 그를 만날 텐데, 어느 틈에 보냈던 일, 헤어졌던 일은 까맣게 사라진 지 오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지금 여기에서의 몸짓은 길 위에서 길 끝을 응시하는 일뿐입니다. 그 바라봄이 가능한 길 위에서 기다림을 조용히 숨 쉬고 있어야 합니다.

황홀하게
가슴 졸이며
머뭇거리며
기다리기

만남을 기다리는 일은 그러고 보면 행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찻집에 들기도 부담스러웠던 세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산기슭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제법 먼 거리에 있는 언덕길 위의 절 마루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늘 서두른 탓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 아래에서 그 절에 이르는 꽤 험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두근거리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황홀했던 기다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불안했던 기다림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다니던 때는 세상이 온통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으면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궁금해 마음이 고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 차도 끝에 이르러 저만치 굽잇길을 돌아오는 버스의 번호를 살피며 서있었습니다. 자식이 탄 버스가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밤이 이슥해지고 버스조차 뜸해지는데 자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날이면 가로등이 환한 길조차 깜깜하게 어두웠습니다. 절망적인 예감이 길 위를 짙게 채색한 채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려도 될 일을 저는 굳이 길에 나와 길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거리는 시간, 어쩌다 텅 빈 긴 길 끝에 서면 갑자기 거기 앉아 아버님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지껄입니다. '저 이사했어요. 옛날 집을 떠난 지 오래예요. 아니,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열 손가락도 모자라요. 아버님, 되돌아오시기를 고즈넉이 기다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 길 위에 홀로 서있으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오실 것 같네요. 저 있는 데 아시죠? 그저 이 길로 저 끝에서부터 오시면 돼요. 제가 마중해드릴 거니까요.'

기다리다가, 문득

저는 지금도 산에 오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홀로 산을 오르다 숨이 턱에 닿고 다리가 무거워지면 나무 아래 낮은 바위에 앉아 깊은숨을 몰아쉽니다. 하늘이 비로소 보입니다. 올라온 긴 길이 아래로 뻗어있는 것도 보입니다. 문득 당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키가 당신보다 크고 걸음도 빠르니까요. 그래서 아랫길을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올라와 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신을 기다리다가 저 아래서부터 당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 두근거리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향해

이제는 길에 나서서 자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길과 상관없는 길을 스스로 마련하고 거기 그 길을 오갈 자식을 내 길에서 기다릴 까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조금은 억지입니다. 저는 제가 기다렸던 길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얼마나 자기네 일에 바쁜지도, 얼마나 자기네 삶을 그렇게 짓고 있는지도, 그래서 애비가 기다리던 길의 자리를 생각할 겨를이 정말 없다는 것조차 저 스스로 잘 아는데도 기다려 집니다. 굽어진 길을 따라 버스가 오고, 그 버스를 바라보다 저는 먼산바라기를 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그리워집니다. 길 위에 서면.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버님의 돌아오심을 아직도 길 위에서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일, 훌쩍 먼 길을 자기 혼자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마루 가까운 등성이에 올라 아랫길을 바라보며 마냥 기다리는 일, 자식이 탄 버스가 곧 도착할 거라면서 뚫어져라 굽이진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쯤은, 그래서 이제는, 저를 기다리실 아버님을 향해 내가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던 길을 서둘러 되짚어가야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다림을 향해 당신이 떠난 길을 내가 서둘러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마중하리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편하고 따듯하게 찾아올 길을 제 안에 서둘러 닦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의 기다림을 살아도 길이 싫어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ㅂ

글 · 정진홍 (종교학자)

팔공산 수태골에서 본 대구 야경

누가 뭐라 카든 내 속도대로 간다, 맞나?

대구에는 없는 게 없다.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 찾지를 않는 것이다. 아등바등할 생각도 없고, 먹는 데 크게 신경 안 쓰니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소릴 들어도 그만이다. 절대로 서울의 속도를 따라가며 컬러를 바꿀 생각은 없다. 여기는 대구다.

글 · 임윤혁(자유기고가)
사진 · 박시찬(작가)

보소, 대구 양반

"대구 남자? 의리 있고 화끈하지. 과묵하고. 남들은 보수적이다 배타적이다 카지만 여가 선비 정신이 뿌리 깊은 동네라, 전통적인 가치관도 지키고 또 연대감이 강하다. 좋고 싫은 것도 분명하고. '우리가 남이가' 카는 말, 그게 패거리 문화로 보이는 모양인데,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하지. 그래도 마, 그기 대군기라."

대구 남자들은 평생을 "됐나? 됐다!" 두 마디면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 남자들은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잘못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치자. 만약 서울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해결하려 할 것이다. 대구 남자도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안다. 그래도 설명이나 사과 따위는 안 한다. 아니, 못 한다. 본인도 답답해 죽겠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종료하고 싶지만, 사과하는 방법을 모른다. 배운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양반'으로 통칭되는 주류 집단, 경제와 정치의 중심에서 일찍부터 권세를 휘둘러본 경험, 그래서 좀처럼 숙일 줄 모르는 유전자가 폭넓게 퍼져있다. 자본과 권력의 맛을 길게 봐온 유전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변이하면서, "치아라 마!", "됐다 아이가!" 따위의 일방적인 문화를 낳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대구 사람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 그리고 합의가 존재한다. 역설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이 살고 있는 근거지 반경 10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경북대 의대 김용선 교수(영상의학과)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데드라인을 만든다."고 역설한다. 대구는 이미 사회적 신뢰가 형성(혹은 합의)되어 있어서, 내버려둬도 때가 되면 어긋나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 방식이 서울처럼 비주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방점을 찍는다.

경북대 문화인류학 강사로 출강하는 방태곤(47세) 씨의 남편 이야기는 대구 남자들의 의식 구조 안에 있는 신뢰의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번은 서울에 있는 딸을 보러 남편과 상경해서 지하철을 탔다. 마침 한가한 낮 시간이라 빈자리가 많았다. 그런데 남편이 경로석에 가서 턱 하니 앉는 것이다. 대구 아지매 방 여사, 얼른 가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

"뭐 하능교? 여기는 경로석이라예. 저쪽에도 자리가 많은데 와 이라는데, 남사스럽구로. 얼른 저쪽으로 가입시더."
"됐다, 나는 여가 편하다. 나중에 어르신 타면 그때 비켜주면 돼지. 지금은 사람도 없고 텅텅 비었는데 아무 데나 앉으면 어떻노."
"하이고, 보소, 이카이 대구 사람이라고 욕을 먹지. 노인도 아닌 사람이 와 거 앉아서 남 눈치를 받는데?"
"됐다 고마! 노인네 타면 비켜줄 끼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뭐 할라고 낑기가 불편하게 가노. 이게 훨씬 편하다."

은지예~ 어디예~

대구 여자들은 대구 남자들의 이런 '무대뽀' 기질이 싫다. 매너 좋은 서울 남자와 사는 여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그런데 막상 서울 남자를 만나보면 '온몸이 오그라드는' 기분이다. 그 미끈한 말에 적응이 안 된다. 남자가 말이 많으면, 또 말을 잘하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대구 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방태곤 씨는 대구 여자들이 "이해력이 높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

대구 동구 둔산동 경주 최씨 집성촌인 옻골마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했던 백혜영(53세)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만 해도 첫 번째 연애가 마지막 연애였을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대구를 회상한다. 1980년대 초반이라 한국 자체가 지금처럼 개방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구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다고 한다. 백 씨의 대구 여자는 대구 미인에 가 닿았다.

"다른 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대구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보다 한결 부드러워예. 억양이 틀리지예 부산하고는. 그래, 부드럽고 마음도 고운데 얼굴까지 예뻐예. 초기에 미스코리아 대회는 대구·경북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아입니까. 저도 지금은 이래 촌실방(촌스럽다) 해도, 옛날에는 한 미모 했어예(웃음). 우리 아들이 '엄마는 20년 후에 태어났어야 빛을 보는건데 아깝다!' 그래예. 제가 좀 키가 크고 얼굴이 이국적인 편이라서 젊었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아입니까(웃음)."

확실히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 성형 미인이 판을 치는 요즘이지만 대구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동성로 야시골목을 다니다 보면 멀리서도 빛이 나는 자연 미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한때 대구 특산품이었던 사과나, 질 좋은 대구 물에서 찾는다. (사) 시간과 공간 연구소 권상구(39세) 이사는 여기에 대구 사람들이 즐긴다는 '먹는 보톡스' 돼지껍데기를 추가하는 한편, 특히 서울 남자들이 느끼는 대구 여자들의 말투도 '대구 미인'이라는 말을 낳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대구 아가씨가 나타나 그 특유의 억양으로 "오빠야~", "어데예~" 같은 멘트를 날리면 그게 애교로 느껴져 외모를 더 돋보이게 했을 거라는 얘기다.

대구 미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얼굴연구소 소장인 조용진 한서대 교수는 '우리 얼굴에 담긴 역사와 과학'이라는 글에서 "경북 지방은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5대 5로 분포하는 지역이라 남북 중간형이 나오기 좋은 조건이다. 키가 크고 늘씬하며, 피부가 희고, 콧날이 좁고 길며, 입술은 얇으나 입은 약간 크고, 이마가 높고 검고, 긴 생머리의 북방계 인자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남방계 인자가 조합한 곳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고상하고 품위 있고 여성스러운 대구 미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썼다.

아무튼 현재까지도 대구 출신 미스코리아가 심심치 않게 나오며, 얼굴 예쁘다는 연예인의 상당수 (손예진, 송혜교, 한채영, 김선아, 손태영 등)가 대구 출신인 것은 사실이다. 혹자는 대구 미인의 근거가 궁금하면 미스코리아의 산실인 '송죽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농치기도 한다.

일찍부터 실속에 눈을 뜬 상인들의 도시

대구는 양반의 고장이 아니라 상인의 도시라는 주장도 있다. 17세기 초 경상감영이 설치될 정도로 교통과 행정의 중심이었던 대구는 일찍부터 인마와 물산의 교류가 활발해 장시가 발달하고 상인들이 득세를 했으며, 이들이 대구 사회를 이끌어온 핵심 세력이라는 말이다. 특히 휴전 이후 초기 산업화의 핵심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은 대구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이었다.

"1970년대만 해도 동국무역이나 갑을방적으로 대표되는 섬유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다. 청구, 우방 같은 건설업체들도 잘나갔고 북성로 공구 상가들도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350년 전통의 약령시, 평양장·강경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꼽히던 서문시장(대구장),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몸집을 키운 교동시장(일명 양키시장), 염매시장은 물론 방천시장 등이 대구 경제를 밀고 끌고 했다."

돈이라는 실속에 일찍부터 눈을 뜬 대구 사람들은 장사로 부를 축적했고, 이후에는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자식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큰아들은 가업을 물려주고 작은아들은 공부를 시켜 정관계로 보내 보호막을 치고자 했다는 것이다. 상인의 도시가 교육의 도시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다음으로 서울대 합격자가 많다는 대구 8학군 수성구의 교육 열기는 상상을 불허한다. 강남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전언이며 덕분에 인근 구미 LCD단지에 근무하는 기업체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거의가 수성구에 집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각 공기업들도 지방 이전 후보지 1순위로 대구 수성구를 꼽는다.

그러나, 도시가 낳은 부와 인재의 상당수는 서울로 터전을 옮겼고, 지역에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균형감 갖춘 리더가 부재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순위가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대구의 1인당 개인 소득과 민간 소비는 각각 전체 7위(5~7위까지의 차이는 극히 미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신천시장 부근 주택가

(위) 청라언덕에서 계산성당으로 향하는 3·1만세운동길 / (아래)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위) 수성못에서 본 대구야경 / (아래) 대구 동쪽 끝, 금호강 뒤로 펼쳐진 안심 습지

외부에 드러난 경제 지표가 바닥인데도 대구의 소비 지출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1970년대까지 축적한 자본에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김용선 교수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대구 사람들의 예금과 증권에서 나오는 이자나 세금이 전국 3위라는 얘기를 전한다. 거기에 더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덕분에 다른 물가도 수도권에 비해 안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대중교통이 잘 구축돼 있고, 도로 등 기타 인프라도 완벽해 정주 만족도도 높다. 결국, 현실 지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소비는 감당할 만한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성복과 정호승과 장정일과

대구는 민족시인 이상화를 필두로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향이기도 하다. 1901년 중구 서문로에서 태어난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역천› 등의 작품을 남겼다. 이후에도 요절 시인 이장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불우한 시대와 청춘의 낭만을 노래한 문인들이 모여들었고, 한국전쟁 때는 피란을 온 전국의 내로라하는 시인묵객들이 모여들어 피란 문학을 꽃피우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도 대구는 이상규, 이하석, 송재학, 정호승, 박해수, 이성복, 김원일, 이인화, 장정일, 이문열 등 1천여 명에 달하는 문인들을 배출한 문향으로 손꼽힌다. 대륜고등학교 시절 정호승이 자신의 시를 들고 달성공원 이상화 시비 뒤로 가서 선배인 박해수에게 봐달라고 조르던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일화이다. 박해수는 “당시 학원문학상, 한국학생시우회, 포물선, 학애문학, 대구문우회 출신 등 피끓는 문학청년들에게 YMCA 나 시민회관 등은 창작의 요람이었으며, 향촌동과 반월당 언저리는 문학과 인생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장소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영남대 국문과 김문주 교수는 대구 사투리가 설명적이지 않고 상당히 시적(함축적)이라 소설가보다 시인이 많은 것 같다고 추정한다(전국 시인의 40퍼센트 배출). 서울에서 학위를 마치고 대구에 편입된 김 교수는 대구는 분명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내놓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처음엔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안 보여 힘들었죠. 이렇게 하다간 20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외곽에서 빙빙 돌며 들여다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녹아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삶은 추상적인데 대구에 살다 보니 실물 감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사는 장점이 많아 아주 매력적입니다. 서울에선 그저 떠밀려갔었는데, 여기서는 기획을 해요. 좀 더 주도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자생적 무브먼트

문화 활동가, 젊은 건축가, 또 생태전문가 등이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대구와 접목시키려는 시도들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구 바로 알기, 혹은 정체성 찾기 시도가 확산되는 것이다. 중구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근대골목투어’라는 공전의 히트 상품으로 만든 권상구 이사는 이제 공구 상가들이 밀집한 북성로로 시선을 옮겨 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도심 재생 사업이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쇠락하고 있는 북성로 거리에 새로운 활력과 세대들이 깃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표이다.

1906년 대구읍성 북쪽을 허물고 난 신작로 북성로는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토지를 매입한 곳이다. 강점기 동안 대구 최고의 역세권이자 번화가였고 해방 후에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기반 위에 번성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군수 물자 유통지로, 이후에는 섬유 산업과 중공업의 성장에 힘입어 형성된 1킬로미터의 거대한 공구 골목에서 국내 산업공구 유통 1, 2위 업체가 탄생했다.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받으며 쇠락해 가는 이곳에서, 젊은 활동가들은 협업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북성로가 여전히 거대한 기술 생태계라는 점, 더불어 콘크리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100여 개의 근대 건축물들에 주목했다. 수년간 와이어 상점이었다가 셔터가 내려져 있던 삼덕상회는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1호인 ‘카페 삼덕상회’로 변신했고, 그 바로 옆에 6년간 비어있던 공간은 젊은 건축가들의 눈에 띄어 공구 상점 옆 ‘건축사무소 아키텍톤’으로 재탄생했다.

(위)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 거리 / (아래) 가운데 일본식 건물의 왼편이 북성로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인 카페 삼덕상회이다. 건물의 오른편은 건축사무소 아키텍톤.

독립할 사무실을 찾던 세 명의 젊은 건축가들은 카페 삼덕상회에서 커피를 마시며 농담 삼아 꺼낸 말이 발단이 되어 자신들의 새 사무실을 첫 프로젝트로 삼았다. 이들은 콘크리트를 걷어내 원래의 목조 구조를 드러내고, 벽을 해체하다 발견한, 여러 겹 덧대어진 벽지를 한 겹 한 겹 살려 낡고 오래된 공간에 깃든 시간을 보여주는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건축을 리뉴얼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그들은 아침이면 물건을 싣고 내리는 트럭과 사람들로 정신없이 분주한 북성로의 에너지를 사랑한다. 오래된 동네,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간판, 그 안에 녹아든 땀과 인심을 매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게 이들이 찾은 낡고 오래된 동네의 가치이다.

북성로에서 몸집을 키운 공구 기업의 2세 경영인 김성훈(43세) 사장은 사업과 별도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진행 중이다. 그가 종로초등학교 뒤편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 'The Style'도 그중 하나. 4층짜리 건물을 리뉴얼해 꾸민 이곳은 오픈 한 달여 만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오랫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한 그는, 이곳을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대구에 모여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문화 교류의 작은 거점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한편, 중구 일대 적산가옥은 일본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처음 대구에 왔다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본풍 가옥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일본 북성학원대학 강사 마츠이 리에 씨는, 가끔씩 찾는 대구가 너무 편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재미있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을 정도라고 얘기한다.

더 스타일 1층 커피살롱 이현욱(28세) 사장은 "대구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내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한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두 번 삼겹살 먹으며 비슷하게 살 거라면 굳이 서울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를 지키겠다는 무슨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를 벗어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없다. 자신의 미래는, 또 대구의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로 유학 간 자식들 반찬 배달은 물론, 병원 진료며 심지어는 밥그릇 사러 서울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대구는 대구다. 서울과 현상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심정적으로까지 서울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나름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우월한 유전자를 발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영남대 이정희 교수(문과대학장, 러시아사)의 말마따나, 지금 대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글로벌리즘을 위한 로컬리즘의 만개다. 안으로 닫힌 것이 아닌, 밖으로 활짝 열. "됐나?", "됐다!"

북성로 공구박물관. 광복 후 콘크리트를 덧씌워 사용했던 1930년대 적산가옥을 리노베이션해 2013년 5월 문을 열었다.

건축사무소 아키텍톤 내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콘크리트 아래 여러 겹 덧발라져 있던 벽지를 살려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모던 도시 대구를 읽는 여덟 가지 열쇳말

#1
거상의 출현
#2
마지막 황제의 순행
#3
연애의 시작
#4
동방의 모스크바
#5
약령시 커넥션
#6
1950 대구
#7
전환의 도시 1969
#8
모던 도시, 대구

글, 자료 제공 · 권상구
(시간과 공간 연구소 이사)

#1 거상의 출현 : 책에서 튀어나온 허생의 도시

도시의 성격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다. 몰린 인구만큼
특정한 활동이 발생하는 게
도시이다. 과거로 갈수록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쟁, 혹은 시장, 혹은 전쟁이
촉발한 시장이 그것이다.

대구가 한반도에서 유의미한 장소로 부각된 것은 임진왜란(1592~1598)과 정유재란(1597~1598)의 영향이었다. 두 전쟁은 대구에 서문시장과 약령시를 불렀다. 경주, 안동, 상주, 진주, 성주, 김해, 영해, 순흥, 창원, 밀양, 선산 등을 두고 대구라는 촌스러운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되었다. '발달된 촌동네'. 이것이 대구의 별명이다.

1592년 부산 동래로 침공한 왜군이 20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오자 조정은 대구를 포함 한반도 도읍들의 정치적 위계를 영남대로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분지 대구에는 방어 진지가 구축됐고 종전 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 좌·우도를 총괄하는 감영이 들어섰다(1601).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전쟁'과 '일상에서 살아남는 전쟁'이 그것이다. 또 다른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 왕실, 관아, 백성 가릴 것 없이 물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생산이 촉발됐다. 전쟁은 감영을 가져왔고, 감영은 문 밖에 서문시장과 약령시를 개시(開市)했다. 한번 열린 장은 나날이 성장했고 상공업은 미천한 일에서 권장 사항이 되었다.

1658년에 경상감영 객사 주변에서 약령시가 문을 열렸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했던 곳이라 진상 약재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중국산 당재도 대량 등장했다.

낙동강을 기점으로 강의 좌·우로 나 있던 도읍이 1669년 대구감영에 완전 통합되면서 낙동강 수운도 발달한다. 일본과의 공무역을 위해 왜물고(倭物庫)가 있던 사문진(화원유원지)을 비롯해, 달천(성서 금호강), 모지방(강정 취수장), 무계(고령 성산), 동안(성주대교) 나루터가 성장한다. 특히 사문진은 17세기에 시작해 구한말까지 쌀, 무명, 솜, 삼베, 약초 등 육지 산물과 소금, 미역, 김, 어물 등 해산물이 모여드는 낙동강 중간 기착지가 된다. 위로는 상주목 낙동나루, 용궁현 삼강나루, 안동부 대창나루까지, 아래로는 고령 개포나루, 창녕 주물연나루, 밀양 삼랑나루, 구포와 김해를 거쳐 일본에서도 무역업자와 보부상들이 드나들었다.

1677년 공물을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한 대동법이 시행되고 현물 수납이 되지 않자 모든 골짜기의 물건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조선 전기 66개에 불과하던 향시(鄕市)는 이 무렵 무려 250여 개로 늘어났다.

일제강점기, 시장북로에 있던 원래의 서문시장. 뒤편 오른쪽은 청라언덕 선교사 주택('조선 풍속' 엽서 시리즈 중)

19세기 말 대구 인구는 약 7만 5천 명, 가구 수는 약 1만 5천 호. 그중 양반과 준양반은 20~25%, 서민층은 60%, 노비가 8%였다. 서민층 가운데 보부상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니 대구 사람 절반은 보부상이었다.

1920년대 초 천왕당지를 메워 현재 위치인 대신동으로 옮겨온 서문시장('대구 명소' 엽서 시리즈 중)

18세기 중반, 2일과 7일에 장이 서던 서문시장으로 부족해 걸어서 그 10분 거리였던 동문에 4일과 7일마다 다시 큰 장이 열렸다. 동문시장 혹은 대구신장(大邱新場)이라 불렀다. 1770년 대구에는 5일장이 무려 아홉 군데나 개설됐다. 구한말, 봄가을로 서는 약령시가 서문시장 장날과 겹치면 대구에는 10만 인파가 운집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표현된 그 시장이 형성되었고 자본의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었다. 그렇게 태어난 대구의 거상들은 막강했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 낙동강 보부상 출신 서상돈(徐相燉, 1851~1913), 조선 말 무일푼에서 시작해 낙동강 무역과 서문시장 시전(일종의 돈놀이)으로 3천 섬의 거부가 된 시인 이상화의 조부 이동진(李東珍), 투전판 뒷전에서 놀다가 서문시장에서 명태, 소금을 팔아 대구 3대 부호가 된 정재학(鄭在學, 1858~1940), 인삼을 파는 개성상인 밑에서 장사를 배워 대구 약령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까지 아시아 3국을 주름잡던 김홍조, 건재 한약방 '양무익상회'를 운영하며 해외까지 큰 상권을 유지한 약령시 지도자 양익순(梁翼淳, 1871~1942), 철도와 배편으로 만주와 대만에 당재와 초재를 거래하며 벼락부자가 된 김성달(金聖達), 계성학교 출신이자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포목을 취급했던 김성재(金聖在), 만주사변 이후 중국인 포목상이 몰락하자 당시 군림하던 대구 기생들이 가장 옷을 많이 해 입었다는 포목점상 지이홍(池二洪)이 그들이다.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익명으로 활동했던 리더급 보부상들도 있다. 최철연(崔哲漣)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경북도회장 최철학(崔哲學), 서상돈의 장인 김종학(金鍾學), 인교동 99칸 집에 가톨릭 예배당 자리를 마련하면서 대구 가톨릭 입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규옥(1852~1931), 계산성당 종각 증축 때 2만 원의 거액을 희사한 대구시의소(大邱市議所) 위원 한윤화(韓潤和) 등이 그들이다. 대구 거상들은 강점기와 구한말을 거치면서 무역, 금융, 토지, 상업 등 도시화된 경제 구조를 형성한다.

구한말 대지주와 관료 출신 경제인들도 근대적 형태의 산업자본주의에 참여한다. 보부상들의 초기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대구상무소 초대회장을 지낸 회산 박기돈(朴基敦, 1873~1947), 경상합동은행 이사 정해붕(鄭海鵬, 1871~1950), 정재학이 설립한 구 대구은행 창립 발기인 이장우(李章雨, 1871~1944), 시인 이장희의 부친으로 알려진 1908년 동척 설립위원 이병학(李柄學, 1866~1942), 경상농공은행 은행장 이석진(李錫珍), 대구전기회사 이사 정규전(鄭圭銓) 등이다.

이들 외에 대구 대지주 세력으로는 지방 호족으로 경상북도 최대의 지주였던 달성 서씨 집안이 있다. 서상민(徐相敏)과 장남 서병오(徐丙五), 서우순(徐祐淳)과 장남 서병국(徐丙國), 진골목의 조양무진 설립자 서창규(徐昌圭), 경북무진 네 번째 주주 서병주, 서상춘(徐相春)과 장남이었던 경상합동은행 초대 감사 서병원(徐丙元) 등이 남일동 진골목의 거부 집안 사람들이다. 독립운동가이며 조양회관 설립자이자 제헌국회의원이었던 서상일(徐相日, 1887~1962)은 대구 제일의 미곡상 태궁상회를 설립했고, 수성 부호 진희채(秦喜蔡)는 서상춘과 함께 수성못을 축조했다. 칠곡 인동 대부호 장승원(1853~1917)과 장남 장길상(張吉相, 1874~1936), 차남 장직상(張稷相, 1883~1947)은 경일은행을 설립했으며 소유 토지만 8천 정보(町步)에 이르렀다.

대구에 거주했던 대표적인 일본인 상공업자는 '조선 전기왕'이라 불린 동시에 도굴로 1천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빼돌린 오쿠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 대구어채주식회사 사장으로 인쇄업, 대출업을 하며 북성로 대지주로 있었던 기무라 다케타로[木村竹太郞], 군납 상점에서 시작해 북성로에 백화점을 만들고 전국은 물론 도쿄에도 지점을 열었던 미나카이[三中井 : 삼중정] 백화점 사장 나카에[中江五郎平] 등이 있었다.

1905년 대구역 개통과 함께 시작된 일본인 거상들의 시장 참여는 1910년 이후 가속화되었고 한국인 거상들은 이들과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친선 관계를 맺으며 뒤섞이게 된다. 그렇게 상업 도시 대구가 열리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북성로 입구. 1906년 대구읍성 북쪽 성을 허물고 낸 신작로로 일본 상권이 몰려 있던 당시 대구 최대의 상업 중심지였다.

경상농공은행 (현 대구근대역사관)

#2 마지막 황제의 순행 :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1909년 1월 7일 오전 6시 40분, 어가(御駕)는 돈화문(敦化門)으로 출어(出御)해 남대문(南大門) 역에서 궁정열차에 올랐다. 대구, 부산, 마산, 대전을 순행하였으며 1월 13일 다시 입궁(入宮)한다. 이것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純宗, 1874~1926)의 '남순행(南巡幸)'이다.

순종의 남순행은 궁정열차를 이용해 7일간 진행됐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도보 순행이 하루에 천 리를 가는 쾌속 순행이 된 것이다. 이는 근대적 교통기관을 이용했다는 문명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궁정열차 운영자들은 시간표를 작성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지역민에게 알려주었다. 즉,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역에 나와 있던 5만 명의 인파는 정확한 시각에 움직여야 했다. '보름달이 뜨면 자(子)시에 뒷동산에서 만나자'와 같은 구시대의 시공간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았다. 더불어 순종을 맞이하기 위해 대구역 구내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면서 경술국치(1910) 이전임에도 한인과 일본인, 그리고 지역 사회의 계층적 질서가 공개적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순행 일정이 발표된 것은 1월 5일, 대구 지역민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불과 3일 만에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경북관찰사 박중양(朴重陽, 1874~1959)은 어도(御道)를 확보하기 위해 대안동에 위치했던 객사와 민가를 군대를 동원해 하룻밤 사이에 철거하며 십자대로를 만든다. 도시를 일방적으로 구획 짓고 주민들을 재배치하는 '가로 중심'의 근대 도시 계획이 그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순종의 남방 순시에서 대구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다. 당시 경성에서 부산까지 증기기관차로 12시간 이상 걸렸으므로, 순종은 하행하는 1월 7일, 상행하는 1월 12일에 각각 대구에 머물렀다. 또 1월 12일에는 경상북도는 물론 경기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관찰사 및 상주 등지의 군수 17명 등을 불러 '유신(維新)과 무실(懋實)을 역행(力行)하라'는 칙유(勅諭)를 발표하며 남순행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남방 거점 도시로서 대구는 가장 많은 하사금(37,187환 80전 중 12,118환)을 받았고, 진상품은 304건(부산 89건, 마산 49건)을 접수할 정도로 대구 지역민들은 경제력을 발휘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면서, 순종의 남순행은 '대구역-1909년 1월 7일 오후 3시 25분 궁정열차 도착'이라는 근대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집단 이벤트를 촉발시킨 대한제국 황제와 대구의 마지막 만남으로 기록됐다. ㅂ

일제강점기 대구역 역사 전경

순종을 맞이하기 위해 대구역 주변에 모인 환영 인파

순종 남순행 열차 시간표

순종 남순행 스탬프

1909년 1월 7일 오후 3시 25분에 한 남자가 대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 5만 명의 인파가 대구역과 철도 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지역민들은 'OO시 OO분'을 언급하며 집단적으로 무엇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열차가 대구역에 들어서고 21발의 축포가 터지는 순간은 5만 명의 스케일을 가진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이기도 했다.

#3 연애의 시작 : 교회, 연애편지, 그리고 다각 관계

'연애(戀愛)'는 일본어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개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세의 한자 조어로 한국이 일본식 한자를 수용하던 시기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연애라는 유행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벗어나 남녀가 함께하는 친밀한 공간을 전제로 하는데, 그곳은 바로 교회였다.

연애, 그 시작은 저항과도 같았다. 그래서 '자유연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은 한국 최초의 장편 근대소설이면서 '근대적 사랑'을 이야기한 연애소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대구에서는 혜성같이 등장한 이상수의 1926년 작 연애소설 『다각애(多角愛)』가 있었다.

연애. 누군가에게 그 시작은 소설이고 누군가에게는 연애편지이다. 연애소설이 연애편지로 가득 차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애소설은 연애를 가르치는 교습서다.

일본의 경우 1890년대에 자유연애가 유행했다. 일본으로 유학 간 이들은 이 새로운 현상을 접한 후 연애 전파자, 혹은 연애 지상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이광수의 『무정』처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유연애' 혹은 '삼각관계'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삼각관계가 '삼각애(多角愛)'라면 1920년대 대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룬 『다각애(多角愛)』는 무슨 뜻일까?

소설 『다각애(多角愛)』는 자유연애를 다루던 1920년대의 다른 소설과 많이 다르다. 가부장적인 남자와 정조를 지켜야 하는 여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당시 대구제일교회 선교사와 '자치파' 사이의 실제 분쟁에 대비시켜 로컬리티(locality)가 두드러진 내용 전개를 보인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인 '준원'의 달변과 다양한 행각, 세 여자 '옥희', '옥렬', '순희'의 순애보와 연대 의식에는 작가 이상수의 사상과 삶이 투영되어 있다. 소설 『다각애(多角愛)』에 그려진 1920년대 상업 도시 대구는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열린 도시였다. 또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남자의 바람기를 두둔하기보다 순애보 여성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한 남자에게 희롱당한 세 여자들은 '삼각동맹'을 맺는데, 이것은 남녀평등만을 내세우는 '언니들만의 페미니즘'도 넘어선 혁신적인 것이다.

작가는 남자 한 명, 여자 세 명의 관계를 통해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피지배계급이 경쟁과 반목을 피하고 '정서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는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연애소설'이라는 탈을 쓰고 던진 강한 아나키스트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1920년대 대구는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연애소설 속에서도 자유와 혁신적인 가치관을 추구했던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ㅂ

『다각애(多角愛)』의 저자 이상수(오른쪽 끝)의 동덕여교 인솔 기사 («동아일보», 1926년 2월 4일 자)

『다각애(多角愛)』 광고 («동아일보», 1925년 12월 23일 자)

1920년대 등장한 새로운 현상 '연애(戀愛)'는 부모가 자식에게 제 맘대로 짝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제 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즉 '연애가 가능한 일상 공간'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4 동방의 모스크바: 사상가들의 도시가 되다

미인의 도시, 사과의 도시, 보수의 도시 등 대구는 별칭이 많다. 그리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야당 도시’라는 별칭도 있다. 일제강점기 대구 청년들은 조부모와 부모 세대에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조에 탐닉했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의 은거지 또한 대구였다. 당시 열기가 반영된 대구의 별칭이 바로 ‘동방의 모스크바’이다.

대구가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렸던 배경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두 가지 집단 경험에 근거한다. 1919년 3·1운동과 순종 장례일에 맞춘 1926년 6·10만세운동이 그것이다. 6·10만세운동은 국내파 사회주의자들과 천도교 구파의 합작이었는데, 당시 대구에서 많이 팔리던 잡지 『개벽』은 이 만세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개벽』은 1920년 5월 천도교에서 창간해 발행 정지를 34회나 겪으면서도 매달 1만 부 이상 팔린, 1920년대 시대상을 상징하던 매체였다. 특히 문예면은 계급주의적 경향 문학의 대표 작가들인 박영희, 김기진, 방정환을 포함해 대구 사람으로는 이상화, 현진건이 초기작들을 발표한 지면이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잡지가 『개벽』이라는 점은 당시 대구 지식인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1926년, 이상화의 대표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개벽』 6월 호에 실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2개월 뒤 잡지는 강제 폐간된다. 폐간의 표면적인 이유는 박춘우(朴春宇)의 사회주의 논설 ‘모스크바에 신설된 국제농학원(國際農學院)’이었지만, 실제로는 6·10만세운동이 천도교 교구와 개벽 지사 등을 통해 전국 58개 도시에 연락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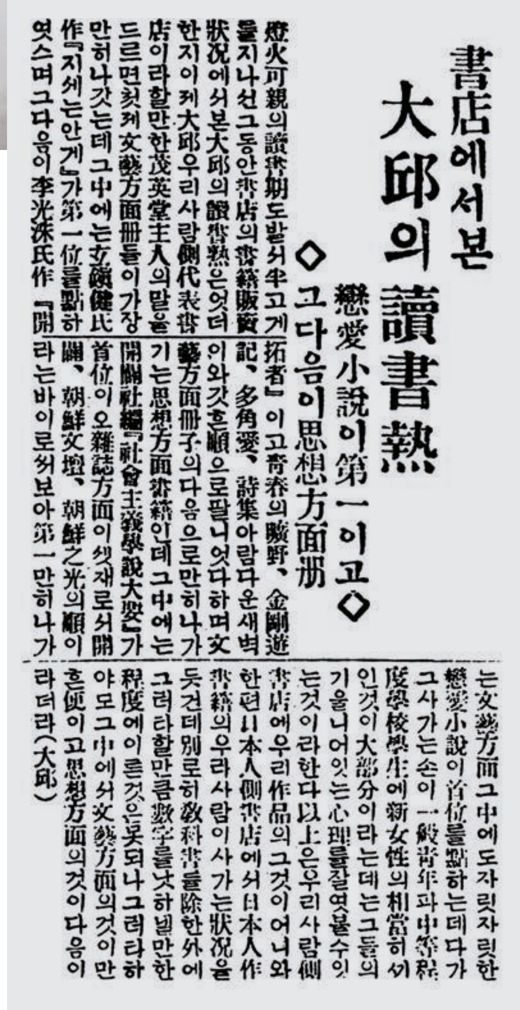
6·10만세운동 국내 책임자는 조봉암의 지시를 받은 고려공산청년회 간부 권오설(權五卨), 1925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조선공산당 간부 김단야(金丹冶, 1899 ~ 1938, 본명 김태연), 천도교 구파 박래원(朴來源) 등이었다. 특히 권오설, 김단야 두 사람은 ‘동방의 모스크바’를 푸는 결정적 열쇠이다.

이상화(왼쪽)와 형 이상정(오른쪽)

1926년 1월 23일 «동아일보» 기사 ‹서점에서 본 대구의 독서열›을 보면, 당시 대구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연애소설들이었으며, 주목할 것은 그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책이 『사회주의 학설 대요』 같은 사상 서적, 그리고 『개벽』, 『조선 문단』, 『조선지광』 같은 문예 잡지였다는 점이다.

이상화 고택 길목 벽화, 이상화의 대표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개벽』 표지(1920년 11월 호, 통권 5호)



書店에서본 大邱의 讀書熱

戀愛小說이第一이고◇

◇그다음이思想方面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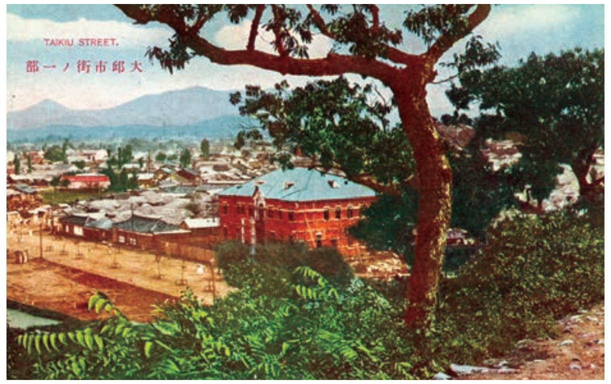
燈火可親의讀書期도발서半고게을지나선그동안書店의書籍販賣狀況에서본大邱의讀書熱은엇더한지이제大邱우리사람側代表書店이라할만한茂英堂主人의말을드르면첫재文藝方面冊들이가장만히나갓는데그中에는玄鎭健氏作『지새는안개』가第一位를點하엿스며그다음이李光洙氏作『開拓者』이고靑春의曠野、金剛遊記、多角愛、詩集아람다운새벽이와갓흔順으로팔니엇다하며文藝方面冊子의다음으로만히나가기는思想方面書籍인데그中에는開闢社編『社會主義學說大要』가首位이오雜誌方面이셋재로서開闢、朝鮮文壇、朝鮮之光의順이라는바이로써보아第一만히나가는文藝方面그中에도자릿자릿한戀愛小說이首位를點하는데다가그사가는손이一般靑年파中等程度學校學生에新女性의相當히서인것이大部分이라는데는그들의기울니어잇는心理를잘엿볼수잇는것이라한다以上은우리사람側書店에우리作品의그것이어니와한편日本人側書店에서日本人作書籍의우라사람이사가는狀況을듯건데別로히敎科書를除한外에그러타할만큼數字를낫하낼만한程度에이른것은못되나그러타하야모그中에서文藝方面의것이만흔便이고思想方面의것이다음이라더라(大邱)

1926년 1월 «동아일보»의 지방 소식란에 실린 기사 ‹서점에서 본 대구의 독서열›

권오설은 대구고보 2학년이던 1917년에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강제퇴학당한다. 그 후 중앙고보로 진학해 이상화, 이여성 등과 조우하지만, 그는 다시 중퇴해서 광주 3·1운동에 참여했다. 권오설의 고향은 안동 가일마을로 '동방의 모스크바 마을'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배출했다. 김단야는 1915년 계성학교에 입학했지만 일제 식민 통치가 정당하다는 미국인 교장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 퇴학당한다. 정도주의 대하소설 『단야』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는 박헌영, 임원근, 최창식 등과 함께 1921년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상해지부에 입당하면서 모스크바와 핫라인을 갖게 되는데, 당시 상해 사회과학연구소 선배 그룹은 여운형, 안병찬, 김만겸 등이었다.

김만겸은 김단야, 박헌영, 임원근을 국내로 보냈고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해온 조봉암과 함께 '화요회' 회원이 된다. 화요회의 전신은 1923년 일본 사회주의자와 손잡은 도쿄의 김약수 등이 창립한 '북풍회'이다. 화요회는 1925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주축이 되지만 11월 22일 신의주에서 발생한 신만청년회 폭행 사건 수사 중 명단이 노출되면서 북풍회 회원이자 남선노농동맹 위원장 서정희(徐廷禧)는 12월 13일 대구 종로에서, 김약수는 15일 대구 천해(川海)여관에서 잡혔다. 조선공산당 관계자 66명이 체포되고 37명이 지명 수배된다.

당시 위험한 상황에서 서정희와 김약수는 왜 하필 대구로 피신해 있었을까? 단서는 그 몇 해 전인 1920년 5월에 열렸던 대구노동공제회 발기대회이다. 순종의 은사금으로 지어진 '은사관(恩賜館)'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이 노동공제회 지역 발기대회는 야학 등의 계몽 활동가 그룹, 소작인조합, 인쇄직공조합 등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이 참여한 근대적 노동조합 활동의 시작이었다. 이 대구노동공제회 설립의 핵심이 바로 북풍회였다. 중앙위원장은 서정희였고, 대구 출신 중앙위원이며 대구 노동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운해(鄭雲海, 1893~1945), 서양화가 이쾌대의 형 이여성(李如星)이 멤버였다.



일제강점기에 달성에서 바라본 대구 시가지. 가운데 건물이 조양회관이다

대구사범학교(현 대구사범부속중고등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현 청운맨션 앞 대봉도서관)

당시 대구노동공제회의 회장은 회산 박기돈이었다. 그는 '대구광문사'와 대한협회 대구지회에 관여하면서 김광제의 지식과 서상돈의 재력을 모아 1906년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던 인물이며, 전 재산을 군자금에 넣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계산동 회산의 집 바로 왼편에 이상화의 형이자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었던 이상정이, 그 왼편에는 국채보상운동 주창자 서상돈이, 또 그 왼편에는 시인 이상화가, 그 남쪽에는 청구대학 설립자 최해청 등이 살았다. 길 건너편 남산동에 회산의 사위 김자린이 무역상을 하며 군자금을 대고 있었고, 그 뒤는 카프(KAPF) 비평가 이갑기(李甲基, 본명 이형림, 필명 이형주, 월북)의 집이었다. 한편, 정운해를 경남 부호 서상로에게 소개시켜 군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는 1922년 조양회관 설립자 서상일(徐相日, 1887~1962)이다.

박기돈과 정운해의 리더십은 대구노동공제회에서 빛을 발했고, 큰 틀에서 보면 재력과 연륜을 갖춘 민족주의 계열 지사들이 젊은 사회주의자와 협력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후 중간 세대 격인 서상일의 조양회관에서 1927년 신간회 대구지회가 창립되면서 이들은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 조양회관은 1926년 최남선, 윤백남, 서춘 등이 시국강연을 열고, 대구 출신 기생이면서 1931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여성사회주의자 정칠성이 여성해방 강연을 하는 등 은사관과 함께 민족 계몽과 사회주의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 프로 예술 활동의 모태가 된 곳이다. 1930년 조양회관에서 향토회 창립전이 열리는데, 그 전신은 1927년 3·1만세운동의 아지트였던 교남YMCA에서 창립한 영과회다. 당시 양화부에는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김용준, 배명학, 이인성, 이갑기, 이상춘, 주정환, 김성암, 김홍교 등이 출품하였고, 동요부에는 이원수, 최순애. 서덕출, 김여수, 방정환, 한정동, 신고송, 임동혁, 윤복진(월북), 시가부에는 이상화, 이원조(이육사의 동생, 월북), 남만희가 출품했다.

카프의 맹원이었던 이상춘, 이갑기는 영과회 이후 1930년 '대구가두극장'을 설립한다. 이상춘은 열정적인 화가였고 이갑기는 카프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영과회 동요부의 신고송(申鼓頌, 본명 신말찬, 월북)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대구고보 교사를 하다가 사상 문제로 해직된 뒤 아동문학가로 출발해 실천적인 예술 운동을 펼쳤다. 시가부의 남만희(南萬熙)는 신간회 해체 이후 1930년 이육사, 이선장과 함께 대구청년동맹을 재조직한 인물이다. 이육사는 이때부터 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을 대구에 확산시키기 위해 1931년 1월 20일 레닌의 사망일에 맞춰 격문을 뿌리고 일명 '대구 격문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다.

일제강점기 민족 지사들의 활동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졌기에 대구가 '동방의 모스크바'로 불렸던 배경은 위에 언급한 정도로 그 내막을 엿보는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1904년 우현서루(友弦書樓) 설립, 1906년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대구광문사의 출판 활동과 같은 민족 지사들의 국권 회복 운동과 계성학교나 교남YMCA를 창립한 개신교 선각자들의 근대 교육이 '동방의 모스크바'를 낳은 큰 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10년대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온 고등교육기관도 신사조와 신지식을 받아들이는 튜브 역할을 했다. 1916년 대구고보, 1921년 교남학원, 1923년 대구사범, 대구상업보통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1926년 대구여고보 등이 세워졌다.

서상돈, 박기돈, 서상일 등과 같이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구한말 대구 거부들은 민족계몽운동에 매진했고, 그 자녀 세대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높은 지적 욕구로 1920년대 모스크바에서 불어온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95퍼센트는 사회주의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1920년대 당시 사회주의는 '사상적 편향'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설명하는 '거대한 경향'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ㅂ

#5 약령시 커넥션:
이육사의 삶은 대구에 있다

시인 이육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나머지 삶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육사가 «조선일보» 동료 기자 이선장과 나눈 대화로 대구 약령시와 이육사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육사: 선생님 원록(이육사의 본명)입니다.
이종면 어르신 댁에 약첩
갖다드리고 왔습니다.
가슴 쪽이 늘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서병오: 그 친구, 성미가 급해서.
대구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육사: 선생님, 대구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병오: 대구 사람들? 대구 사람들은 교남
사람들이지. 험준한 산을 뜻하는 교(嶠),
그 산의 남쪽 남(南)을 써서 교남. 한마디로
기개가 있고,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없지.
그렇다 보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다들
성미가 좀 급하고 시원시원하지.

십 대 때 안동에서 대구로 온 이육사는 진골목에 살았던 서병오(徐丙五) 문하에 들어가 한약 배달을 하면서 시서화를 배웠는데, 이것이 육사가 약령시와 인연을 맺은 결정적 계기이다.

이육사: 북경으로 가서 동지를 만나보고 다시
중경으로 가서 요인을 모시고 연안으로
가네. 나올 때는 무기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일단 만주에 있는 농장에 두고
연락을 하겠네. 만주에는 일본 군부가
많이 쓰는 한약재인 대황(大黃)과 백작약
(白芍藥)이 많으니 그걸 헐하게 사서 약을
반입하는 편에 숨겨서 들여오겠네. 약재
반입 방법은 자네가 연구해 주게.

일제강점기 일경들은 행인들 가운데 차림새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불러 세워 검문을 했다. 하지만 "대구 영(令) 보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였다. 이 말은 대구 약령시에 간다는 뜻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열리던 대구 약령시는 그만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던 큰 장이었다. 이선장은 진골목 약재상 김성달에게 육사의 말을 전한다.

이선장: 어르신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원록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변이 위험하시지
않겠습니까?
김성달: 작년에 그 친구가 잠깐 귀띔해 줬네. 내 한
발짝 걷는 게 다 돈일세. 한 번 거래하면
대구에서 만주까지 철도 위에 1전짜리를
깔아 놓을 판인데, 만주, 대만, 중국으로
교역을 하는 거상의 화물을 누가 감히
뒤지겠는가. 일단 가을 추령시 직전에 날짜를
약속해 주면, 내가 만주에서 약령시로 오는
모든 화물칸을 전세 내도록 하지.

이 대화들은 모두 1943년 4월 이육사가 북경으로 향하면서 «조선일보» 대구지국의 동료 기자였던 이선장에게 남긴 말이다. 중국에서 대구 약령시로 오는 한약 수입 루트로 무기를 밀반입하기로 했던 이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구에서의 육사의 행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이육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1943년 7월 입국한 이육사는 일경에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고, 이듬해 1월 그곳에서 옥사한다. ㅂ

강점기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李源祿, 1904~1944)이다. 안동 출신으로 퇴계 이황의 후손이며, 이육사라는 필명은 1927년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구형무소 수감번호 '264'에서 시작한다.

대구 약전골목 청도한약방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

1943년 찍은 이육사의 마지막 사진

대구 약전골목

6 1950 대구: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을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을'. 이것은 1950년대 대구의 여유를 표현해 주는 유명한 말이다. 1950년 8월 푸른 눈의 한 외신 기자는 전쟁 중 대구 향촌동 음악다방에서 서양 고전에 심취해 있는 대구 사람들을 보고 전쟁, 고전 음악, 대구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를 조합해 기사를 썼다고 한다.

1950년 8월 대구. 북한군 5개 사단의 공세가 서울을 지나 대전으로 파죽지세로 강화되자 국군과 미군은 8월 3일까지 낙동강 모든 교량을 폭파하고 4일 새벽 철수를 완료한다. 미군 워커 사령관은 'Stand, or Die (버텨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작전명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후 8월 공세, 9월 공세까지 저지하면서, 대구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전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며 전쟁의 반전을 만들어낸 도시가 되었다.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을'이라는 기사를 쓴 외신 기자는 종적을 찾을 수 없지만, 전선이 코앞에 있는데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대구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사가 있다.

10마일 앞에 전선을 두고, 100마일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대구.
이 도시의 삶은 전선이 10마일 밖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100마일 밖에 둔 것처럼 계속된다.
포탄이 거리에 떨어졌는데도,
그리고 북쪽과 서쪽 가까운 산 뒤에 북한의
5개 사단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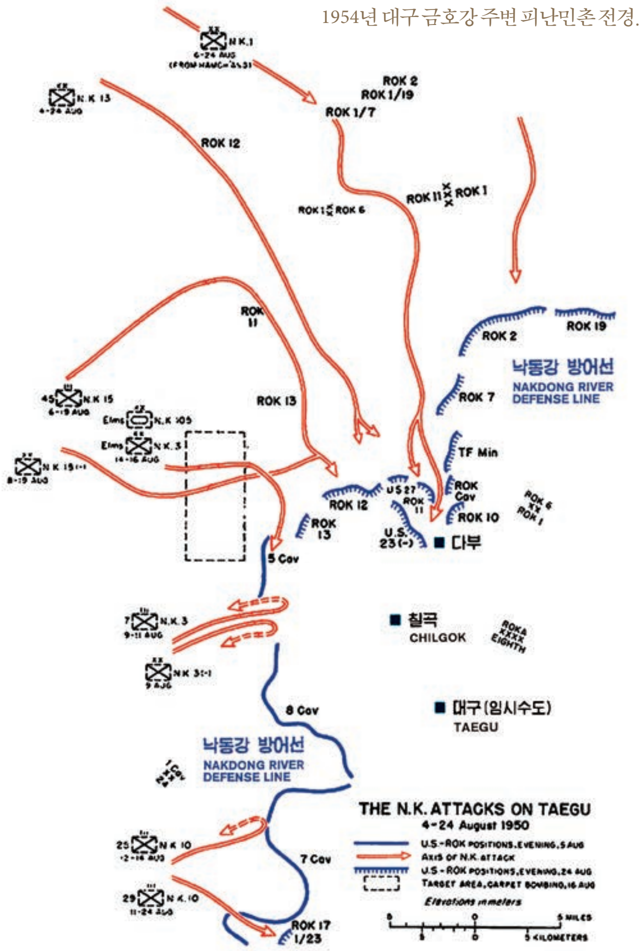
TAEGU, 10 MILES FROM WAR, ACTS LIKE IT WERE 100
«시카고 트리뷴» 지, 1950년 8월 24일 자,
AP통신원 로이 맥카트니(Roy MacCarteney)

이 기사가 타전된 1950년 8월 24일은 왜관, 다부동, 가산산성 방면에서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때다. 기자는 대구 사람들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10마일(약 16킬로미터) 코앞에 북한군을 두고 바흐의 음악을 들었던 대구 사람들의 여유는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은 대구 사람들의 이 여유를 풍족한 삶을 누리던 주인댁으로 묘사하고, 그 반대로 피난민들은 방마다 세 들어 살며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으로 적고 있다.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며 대구를 버린 이승만과 달리 내무장관 조병옥은 '대구 사수론'을 펼치며 달구벌을 지켰다. 대구 사람들은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야당 정치인 조병옥을 10년 동안 지지해 주었다. 1950년 8월 대구가 가졌던 '여유'와 '의리'는 전후 복구기, 경제 개발기로 이어지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구를 야당 도시, 경제 도시, 교육 도시로 만든 토대가 된다. 전쟁의 포화를 비켜간 도시, 대구. 전쟁은 한 도시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고 모든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는 것이다. ㅂ

1954년 대구 금호강 주변 피난민촌 전경.

Photo © Adam Evert



1950년 8월 24일 낙동강 전투 현황. 푸른색 선이 낙동강 방어선이고 붉은색 선은 북한군의 공격 루트다.

한국전쟁과 대구는 인연이 깊다.
특히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했던
1950년 8월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구로 피난을 왔던
해다. 그 결과 '대구(Taegu)'라는
단어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임시 수도가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이 대구에 의지했던
숨 가쁜 100일이었다.

#7 전환의 도시 1969 : '대구병'에 대한 어떤 시선

1969년 나온 영문판 『전환의 도시, 대구』의 저자들은 당시 대구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대구시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야당의 정치 대표를 선출했다. 그래서 국가 자원의 할당을 실제 통제하였던 중앙 정부의 행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대구 정서', 혹은 'TK 정서'라는 말이 보여주듯 대구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이른바 '대구병'에 대해서 우려해 왔다. 하지만 그 관점들이 너무 넓었고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여전히 그럴싸한 '대구병 진단'은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수술'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는 취해진 적이 없다.

이른바 '대구병' 담론이 치료와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대구병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와 같은 문제의 발화 지점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경북학회에서 44년 전 대구를 분석한 영문 보고서를 『전환의 도시, 대구』(원제; A City in Transition-Urbanization in Taegu Korea)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1969년 대구의 역동적 변화를 다룬 것으로 국제개발학회(SID)의 지원으로 서울대 이만갑 교수와 허버트 베린저(하와이대) 교수가 공동 저술한 것이다. '대구병'의 시작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내용을 보면, 1969년 외부인이 본 대구의 모습 중 '100만 명의 인구임에도 1만 명이 사는 도시 같다' 라는 표현은 현재 대구 모습과 너무 닮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눈에 띄는 몇 가지 통계 결과와 분석들은 좀 더 근원적인 시선으로 대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요약하면, 1969년 대구를 급성장시킨 인구들은 93퍼센트가 외부 이주자들로, 농촌 이주자가 아닌, 대도시나 소도시에서 온 이주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은 갖추었지만 명확한 사회적 네트워크 없이 대구로 이주해 왔다. 전란, 월북 등의 이유로 대구 가정의 20퍼센트는 아버지가 없었고, 31퍼센트는 판잣집에서 생활했으며, 58.2퍼센트가 생활고를 겪었다. 즉 사회 경제적 성장 없이 수치상 외양만 급격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거의 야당 대표만 선출해서 중앙 정부의 정책에서 멀어져 있었고, 공무원들은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다.

『전환의 도시, 대구』는 대구의 정체성이 1969년을 기준으로 그 40년 이전과 이후 40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로,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대구 가정의 아버지들이 수난을 당했고 이주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백만 명의 도시가 마치 만 명이 사는 도시처럼 보였다는 것은 대구 인구의 겨우 1퍼센트 정도가 이 도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표층 주민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ㅂ

Photo © ‹LIFE›

대구는 100만 명이 사는데도 마치 1만 명이 사는 도시처럼 사회적 구조에서 낮은 수준의 소집단과 조직들이 결집한 도시, 중간 조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도시이다.

『전환의 도시, 대구』 (양서원, 2013) 중에서

『전환의 도시, 대구』에 실린 통계 및 분석 일부

빈곤 :
100가구 중 20가구가 아버지가 부재하다. 31%가 판잣집에 살고, 21%는 전세, 43%는 월세이다.

가장 :
대다수가 40세 이하이다. (21-30세 : 8%, 31-40세 : 52%, 41-50세 : 24%, 51-60세 : 16%)

출신 지역 :
51% 경상북도, 28%는 인접 지방, 14% 경상남도, 7% 대구.

인구 증가 :
1960~1969년 대구 인구는 67만 6천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중 20.5%가 작은 도시에서 대구로 왔다. 단지 4.22%만이 농촌에서 대구로 이주했다.

윤락 :
홍등가에 917명의 등록된 윤락자들이 있다. 믿을 만한 저널리스트로부터 얻는 정보에 의하면 야간클럽, 댄스홀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서비스 걸 등 간헐적으로 윤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3천~5천 명 내외가 될 것이다.

윤락의 동기 :
58.2% 생활의 어려움, 13.2% 실망감, 9.7%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 8.7% 허영심, 6.9% 유혹.

이주자 특성 :
대구 이주자들은 전형적으로 매우 젊고 실업 상태이며 사회적 지위가 낮다. 분명 그들 중 대다수는 명확한 사회적 연결 고리 없이 도시로 온다. 그들은 소규모 사업이나 가사 도우미(household)라는 전형적인 형태로 도시 생활을 시작한다.

이주자 정치 성향 :
대구는 전쟁으로 인해 두 가지 유형의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그 하나로 공산주의와 그 당원에 의해 공포를 느낀 농촌 지역 지주들이 대구로 이주해왔다.

#8 모던 도시, 대구: 골목에 접속하다

도시는 정보로 가득 차 있는 포털 사이트와 같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웹에 접속을 하고 검색을 하듯, 도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이다.

대구 골목에 접속하면 특이하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을 만난다. '2012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대구 근대골목들에서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최신식 백화점과 350년 된 약령시가 공존하고, 30층 주상복합의 마당에 민족 지사들의 고택이 깃들어 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서기 261년 삼국시대의 토성을 매일 보고 살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령시와 조선 최대의 시장이었던 서문시장과 함께한다. 동래에서 서울로 통하던 영남대로가 대구 읍성 지역의 남쪽 성곽을 지나듯, 덕산동, 남성로, 계산동, 동산동, 대신동, 달성동으로 이어진 길은 고대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도시 콘텐츠 튜브이다.

동산동의 선교사 기지, 천재들의 탄생지 계산동, 민족 자본이 잉태된 남성로 약전 골목, 화교와 기생들의 땅 종로, 달성 서씨 집성촌 진골목 등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실핏줄 같은 네트워크다. 대구 근대를 개척했던 인물들도 이곳에 살았다. 국채보상운동 주창자인 서상돈, 민족 문인 이상화, 이육사, 현진건, 천재 화가 이인성, 이쾌대, 근대 음악가 권태호, 박태원, 김문보, 서예가 서병오, 박기돈, 가톨릭을 개척한 드망즈(Florian Demange) 주교, 개신교를 소개한 미국 북장로파 선교사 베어드(William Baird), 애덤스(Edward Adams) 등이 그들이다.
이 코스는 2001년부터 도시의 역사 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캠페인으로 발굴됐고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서 '대구 근대 골목'이라 부르고 있다. 체험하고 산책하고 사색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연간 10만 명가량 줄을 잇는다.

대구가 어떤 곳이냐 하고 묻는다면 단연 서문시장과 약령시다. 물건과 돈이 모이는 곳에 풍경은 시작된다. 대구읍성이 헐리면서 1908년 남성로에 약령시가 상설화된다. 근대 신작로가 생기면서 한국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에 지워진 '전옥(廛屋)'과는 다른 형태의, '거리에 맞닿아 있는 형태의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근대 가로 풍경이 처음 시작된 데가 바로 남성로 약전골목이다.

'길다'라는 뜻의 대구 사투리 '질다'에서 유래한 진골목 초입

이상화 고택으로 가는 길목에 그려진 벽화

진골목 가운데쯤 위치한 정소아과. 1937년 달성 서씨 서병기의 저택으로 지은 2층 양옥이다.
일제 때 상류층 주거 문화를 볼 수 있는 중요 근대건축물로 1947년 정소아과 정필수 원장이 매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골목은 도시를 만나는 첫 번째 길이다. 대문을 열면 골목을 만나고, 골목을 나가면 대로가 있다. 골목 어귀는 늘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카페였고, 어둑해진 골목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길이였다.

대구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상화와 이육사다. 조선의 돈이 모였던 곳이 대구 약령시였고 이 때문에 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이 거둬지는 루트가 약령시였다. 이상화의 집은 늘 약전골목 주변에서 옮겨 다녔고 바로 옆 계산동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육사는 진골목 석재 서병오의 수하에서 한약 배달을 했다. 이육사의 경제적 후원자는 복양당(復陽堂) 한의원 김관제(金觀濟)였다.

하지만 이상화와 이육사는 단 한 번도 사진을 함께 찍은 적이 없다. 상화가 육사보다 3살 손위이며 1년 일찍 서거했으니 생애 기간 전반에 걸쳐 만남이나 교류가 활발했을 거라 짐작하기 쉽지만, 두 사람 모두 당국에서 예의주시하던 인물이라 공개적인 접촉은 가급적 피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두 사람 모두 약령시의 민족 자본을 중국 대륙과 연결하는 군자금책의 중요한 연결 고리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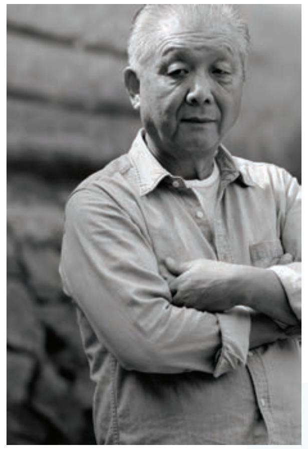
1920년대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으며, 자유연애와 자유사상의 도시였던 대구는 바로 이 근대 골목에 깃들어 있다. 엄청난 고등 교육 시설을 토대로 근대 지식인들과 문화 예술의 천재들이 기와집 아래에 포도알처럼 열렸던 도시. 대구는 여전히 대한민국 근대사를 걸으며 만나게 되는 중요한 '열쇠 공간'이다. 대구는 서문시장, 약령시이며, 대구 사람은 이상화, 이육사 같은 사람이다. ㅂ

청라언덕에 남아있는 선교사 스윗츠 주택.
현재 선교박물관으로 쓰인다.

청라언덕에서 이어진 3·1만세운동길 90계단.
계단에 서면 계산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토박이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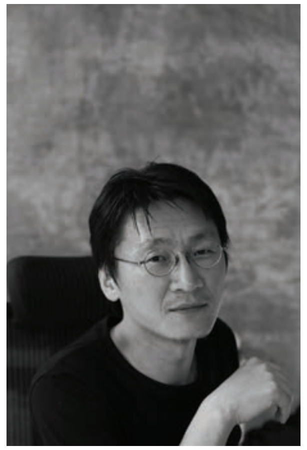
1968



1941

1949

1980



1969

1931

글 · 김주희(‹Face› 에디터)
사진 · 박정훈

1931

윤 용 진

한국의 근현대사를 말할 때면 공식처럼 늘 ‘격동의’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올해 여든 셋의 윤용진은 그 ‘격동의’ 시간을 고스란히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세월은 늘 큰 길에서 한 걸음 비껴난, 조용한 목격자의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다.

“나기는 대구에서 났다만,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나왔어. 중학교 때 대구로 돌아왔다가 대학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 대구로 돌아와 지금까지 살았지. 그러니까 어쩌면 대구 토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대구에 살고 있으니, 생활과 가까운 구체적인 애착은 있지. 하지만 대구가 어떤 곳인지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

83년의 세월 거의 대부분을 이 도시에서 산 윤용진에게도 대구는 여전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도시로 남아있다.

윤용진이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 서울은 ‘시끄러웠다’. 그는 그 소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서울 생활을 접고 대구로 내려왔다.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강사로 있다가 교수 임명을 받았고, 1980년대에 고고인류학과가 창설된 후로는 쭉 고고학 교수로 재직했다. 출세에 욕망이 있었으면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윤용진은 정치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고고학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그땐 4.19니 5.16이니 하면서 서울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에 있다가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어. 그런데 나는 그런 면에서는 비활동적이기도 하고 사회 격동기를 피하자는 마음도 있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고, 자연스레 고향으로 돌아온 거다. 그게 마음이 편할 거 같아서.”

대구에서는 교수 대신 유망한 기업가가 될 기회가 있었다. 그의 집은 유복한 편이었고 가업으로 꽤 탄탄한 자동차 수리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업을 잇는 대신 그때도 학교에 남는 길을 택했다. 그쪽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며칠 전에도 친구가 죽어 문상을 다녀왔어. 그런데 찾아온 친구가 나밖에 없어. 이미 다 세상을 뜬 거지. 이제 시내에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 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땐 나가면 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 쓸쓸한 대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착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왔고,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애착이지.”

대구 사람들의 특성이 강하다고들 하지만 윤용진은 조금 다르게 말한다.

“대구의 특색 얘기할 때 매운 국밥 얘기하는데, 매운 국밥 딴 데도 다 있어. 비슷한 얘기로 대구 사람 고집 세다고 하지만, 어느 지방에 가도 고집 센 사람은 있어.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은 곳은 고집부릴 수 있게 하는 성장의 바탕이 있었겠지. 예를 들면 부자 동네에는 위신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고집 센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와서는 모든 게 다 달라졌어. 경상도 사람 고집스럽다는 건, 예전에 토지에 매여서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를 때의 이야기야. 이제는 얘기가 안 돼. 백 년 전에 대구 인구가 만 오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백오십만 명이야. 예전에 하루 종일 걸리던 측량도 이제 두 시간이 채 안 걸려. 내 한 세대 안에서 그런 변화를 겪는 거야.” 윤용진은 이런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담담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는 대구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ㅂ

강 위 원

강위원은 어린 시절부터 사진 찍는 게 좋았다. 관련 교육 기관도 없던 시절이라 집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혼자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월산예술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사진을 처음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게 벌써 50년 전쯤의 이야기다. 강위원은 그 후로 계속 대구에서 사진가로 또 사진학과 교수로 일했다. 그러니까 그가 들려주는 사진 이야기는 상당 부분 대구 사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화학공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에도 그는 학업보다는 사진에 열중해 있었다. "그러다 월남에 갔어요. 월남에서도 사진 부서에 뽑혀 사진을 찍었죠. 대구에 돌아와서는 야간부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출근이 오후 네 시니까, 출근 전에 한참 주변을 돌아다니며 서문시장 주변의 사진을 찍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멀리로는 못 가고 그냥 가까운 곳들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슬렁어슬렁."

강위원이 생각하는 좋은 사진이란, 순수하게 그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인화지 안에 담긴 순간을 보존할 수 있는 사진이다.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는 사진에 담긴 대구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이 그저 좋다고 했다. 물론 처음부터 특별히 대구 시민을 찍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사진이 좋아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찍었고 그 세월이 반세기쯤 흘렀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들은 대구 역사, 또 대구 사진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강위원은 '고집 세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손해 보더라도 할 얘기는 하는' 대구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구 사진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자라나게 되었다. 하지만 최계복 이래 '사진의 도시'라 불렸던 대구 사진계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서울과 비슷한 수로 열렸던 대구의 사진 전시도 이제는 서울의 십분의 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대구 사진에 대한 강위원의 자존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때는 대구가 사진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서울에 뒤쳐져있지만, 지난 시절 그런 대구의 사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사진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위원은 대구 사진사를 정리한 책도 여러 권 냈다. 80년에 이르는 대구 사진 역사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그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책을 발행해 줄 출판사를 찾기가 힘들어, 직접 발로 뛰며 편집을 하고, 종이를 사고, 인쇄소도 다니며 만들어서 낸 책이다. ‹대구 사진 80년, 영선못에서 비엔날레까지› 등 대구 사진의 역사를 담은 그 책들은 동시에 대구의 역사책이기도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그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조직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 행사는 대구 사진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국제 사진 페스티벌을 만드는 게 꿈이었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비엔날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갔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 정체성을 살리며 작업할 수 있는 사진작가도 나오고, 나아가 모든 예술가들이 대구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들이 대구에서 자기 작업하며 밥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강위원은 여전히 그의 '앞도 뒤도 안 보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대구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ㅂ

1941

1949

김 태 수

대구의 첫 화랑인 '맥향 화랑'의 대표 김태수는 올해로 38년째 화랑 운영을 하고 있다. 공대를 나온 그는 염료 사업을 하며 색채에 민감해져서 자연스레 그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땐 돈이 생기면 무조건 그림을 사는데, 고미술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작품을 사도 석 점 중 한 점은 가짜를 속아 사게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신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한국화나 서양화 같은 것들."

컴컴한 고미술을 보다가 새로운 미술을 보니 눈이 확 뜨였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화랑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에도 화랑이 세 개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1976년, 그렇게 맥향 화랑이 문을 열었다. 대구 토박이 김태수가 만든 화랑답게 이름에도 대구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했다. "봄날에 보리가 잘 익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때 보리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 '맥향'이라는 이름도 말 그대로 보리향기라는 뜻이에요. 왜 있잖아요, 보리문디이라고."

대구 미술은 역사가 깊다. 대구 화랑들 역시 서울 화랑에 뒤지지 않는 40여 년의 연륜이 있다. 근대미술이 들어온 이후 좋은 작가들도 많이 나왔고, 대구 출신 인기 작가도 많다. "이인성이나 이쾌대 같은 훌륭한 작가들이 세운 전통을 이어받아서인지, 대구 작가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만큼 고집도 세지만."

그런데 화랑을 운영하며 매년 외국에 나가 새로운 그림을 접할수록 스스로의 '눈'에 자신이 없어졌다. 뉴욕의 유명한 미술관에 걸린 그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거 헛방 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화상의 눈은 참 예리해야 돼. 좋은 작품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작가를 지원하고 전시를 해주는 그런 화상이 되고 싶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 내 눈이 말이 아니더라고. 내 눈이 이런데 화상 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그만두려다가 공부를 더 했죠. 열심히 했어요."

뒤늦게 공부도 새로 시작하면서 국내에 순수미술의 영역을 넓히려던 그가 발견한 것은 판화였다. 판화야말로 순수미술을 보급하는 데 가장 좋은 무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작가들이 작품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작품을 모아 제대로된 판화 작품집을 한 권 한 권 만들었다. 판화계의 대부라는 별명도 얻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다. "돈 못 버는 화랑이니 상업적으로 보면 실패한 화랑이죠. 하지만 화상의 가장 큰 덕목은 작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많은 작가들을 다 장가보내고 시집 보냈어요."

그는 특히 대구 작가들을 양성하려 했다. 그가 스카우트한 작가들 중 삼분의 이 정도가 대구 사람이다. "요샌 전부 다 겉멋이 들어서 외제나 사려고 하고 말이야. 좋은 한국 작가 그림을 사서 그 작가를 키워야지 외제 수입해 들여와 이윤 많이 남기며 사고파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 국수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전부 외제만 좋아하는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 지겠습니까?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책임감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먼 훗날 한국에도 순수하게 예술을 보급하고 진흥하려고 노력한 화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따름이다. 그것이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김태수의 인생관이자 인생의 목표다. ㅂ

김 은 정

김은정 소아과. 대구 수성구의 평범한 건물 3층에 있는 병원이다. 이름도 평범하고 진료실 풍경도 다른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저 많은 소아과 중 하나로 보일 뿐이다. 하지만 김은정 소아과의 원장 김은정은 평범하지 않다. 그는 소아과 의사인 동시에 아로마 테라피스트, 마술사, 테디베어 제작 강사, 뷰티 컨설턴트, 마케팅 컨설턴트,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구 여자들이 오지랖이 넓어요. 말은 괄괄하게 하지만 속정이 깊어서 여기저기 도와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가 전형적인 대구 여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의사만 하면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남을 돕고 싶어서 배운 것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오지랖은 대구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발끝에도 못 따라가요. 저만 알고 제 것만 챙기는 집안에서는 저 같은 오지라퍼가 태어나기 쉽지 않죠."

물론 그런 오지랖 때문에 손해를 본 적도 많다. 송사에 휘말린 적도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은 적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이 곤란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구십 도가 아니라 백 도로 몸을 굽혀 인사하며 김은정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실히 살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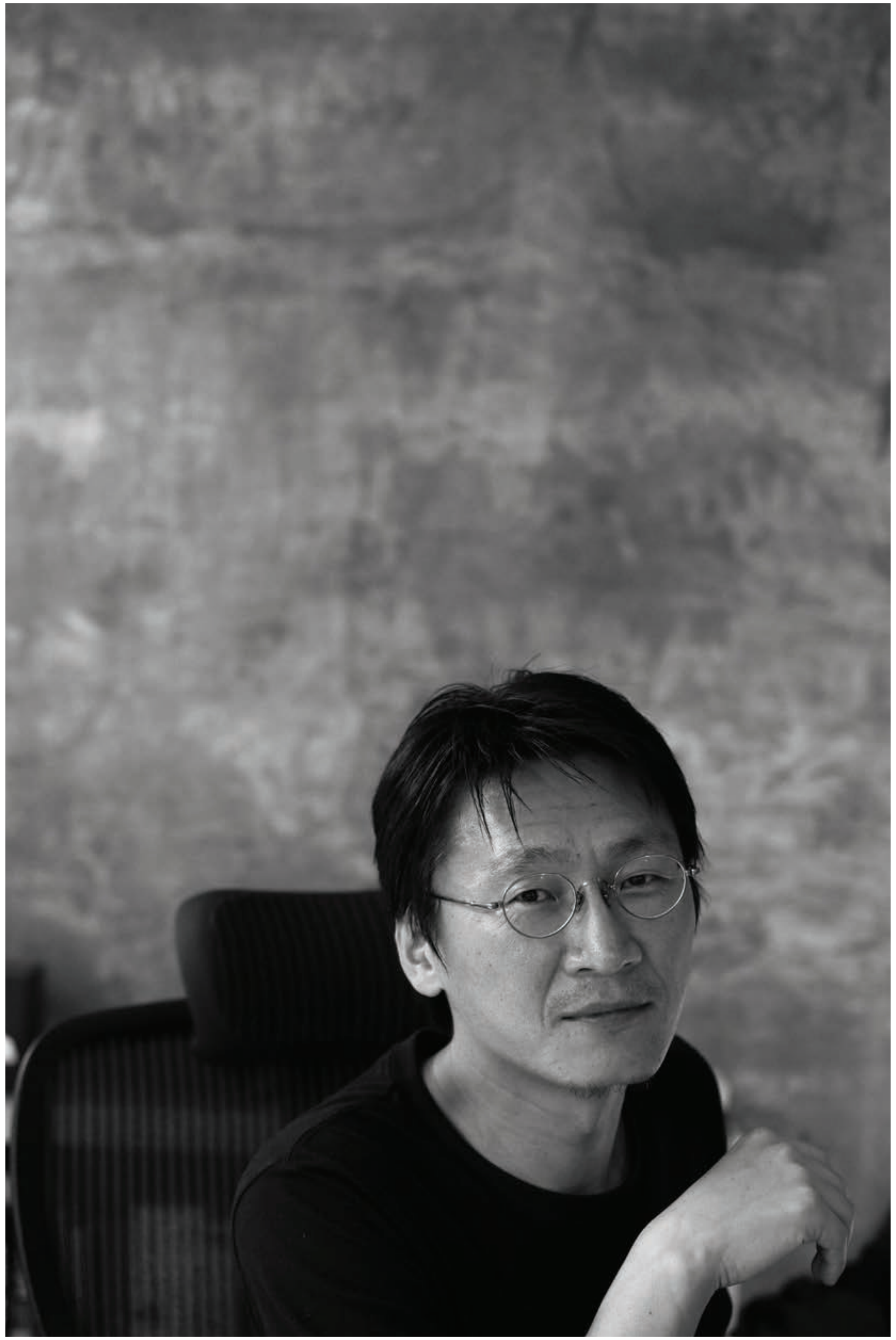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20년 가까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구력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김은정은 그런 슬럼프를 열정과 성실함으로 극복해냈다고 말한다. "뭘 시작하면 쉽게 그만둔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20년씩 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요. 재미없고 힘든 일도 재미있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그게 지나가길 기다려요. 인내하는 거죠."

김은정은 40대가 된 지금까지 쭉 대구에서 살아왔다. 여행이나 일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항상 대구로 돌아온다. 대구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만큼, 대구라는 도시에 애정도 깊다. 대구시의 '메디시티 대구'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고, 사업 홍보에도 제 돈 들여 참여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이런저런 행사와 축제에도 이름 없는 서포터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무슨 감투를 쓰고 싶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감투를 쓰고 싶었으면 진작 국회로 갔겠죠. 잿밥에 신경을 쓰면 내가 원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해요.

"Do your best and enjoy your life."
김은정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처럼,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하지만 김은정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원도 한도 없이 살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고들 묻는데,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스무 살 때부터 만들어온 버킷 리스트가 있는데, 이미 그중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김은정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그 사실은 그녀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단번에 알 수 있다. ㅂ

1968



1969

안 진 석

안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는 영상과 영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뉴욕에서는 마케팅과 패션 관련 일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래픽 디자인 일도 했다.

"공부한답시고, 기업한답시고 혼자 해외로 돌다가,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얘기에 다 접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당장 먹고살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죠. 처음 맡은 일은 지인의 명함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함을 본 지인의 친척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절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서 동구청과 일을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실 안진석은 대구를 잘 몰랐다. 뉴욕에서 오 년을 살다 대구로 돌아왔을 때는 이 도시가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대구에 대한 애착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있고 마음이 편한 이 곳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대구 사람들의 단단한 유대 관계에 끼어들기는 쉽지 않았다.

"대구 사람들은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조금만 먼저 양보를 하고 겸손해지면 상대방도 한없이 낮아져요. 그럼 소통과 이해가 쉬워지죠. 또 이 동네 주민들은 이웃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CCTV 보다 더 날카로운 주민들의 눈이 있으니 범죄율도 낮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신데, 저희 모르는 새 집 밖으로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동네 주민들께서 어머니를 다 아시니까 금세 찾을 수 있었어요. 치매 걸리신 분이 동네를 혼자 다녀도 큰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소속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토박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안진석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와서는 쭉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들도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토박이란 그 동네의 역사, 그 과거의 정서를 아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도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토박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의 인문학 스토리, 지형학 스토리를 찾아내 잃어버린 문화를 복원하고 주거환경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바로 토박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토박이 안진석은 요즘 대구 동구 정체성 만들기에 몰두해 있다. 동구만의 폰트나 컬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작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 그는 '이시아폴리스'라는 새로운 지명을 짓기도 했다. "효자동, 연희동처럼 사람들이 평생 살며 잊지 않는 지명을 만들었다는 건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진 거죠. 이름은 역사의 기록물이 되잖아요. 이름을 짓고, 거기에 어울리는 로고 타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대구 안심창조밸리 부근에 '연근 단지'라 불리는 곳이 있다. 한국 총 연근 생산량의 34퍼센트에 달하는 연근을 생산하는 밭이다. 도시의 아파트 숲에서 겨우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금호강을 따라 수평선 같은 연근밭이 펼쳐진다. 지금 안진석은 대구에 숨겨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개발해내는 일에 '몸 안에서 지글거리는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ㅂ

배

배두호는 대구 청년 활동가이다. 그는 스스로를 활동가 혹은 문화기획자라고 소개하다가 잠시 머뭇거린 끝에, 그저 친구들과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들고 같이 살아가려는 사람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늙지 않는 동네라는 뜻을 가진 '불로동'에서 태어났다. 성주 배씨 집성촌인 탓에 동네 사람들 모두 가깝게 지냈다. 뛰어놀다 목 마르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 물 마시고 밥도 얻어먹고 된장이 떨어지면 망태기 들고 찾아가 된장을 얻어 가는 그런 동네였다. 그런 곳에서 성장한 탓인지 배두호 안에는 언제나 서로 기대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자리잡고 있었다.
"대구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 이론이나 실리만으로는 움직이질 않아요. 가슴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죠. 잘 안 움직여요. 그래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나죠."

배두호가 만든 '통닭집 이론'이 있다. 한 동네에 통닭집이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진다. 그 와중에 오래 버티는 통닭집이 원조가 되고 살아남는다. 무조건 오래 버티면 뭐가 되든 된다는 것이다. 배두호 역시 대구 사람다운 무거운 엉덩이로 대구에 머물러왔다.

대구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는 아니다. 보수 정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배두호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대구의 활동가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표현한다. 지금의 대구에 만족할 수 없으니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그와 동료들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에 올라가보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하드코어 밴드 활동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낯선 동네로 잠시 전학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그런 답답함을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내려왔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의 문화판 사람들은 대구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 때 대구에는 독립 음악, 독립 영화, 독립 잡지 등 다원예술 활동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하지만 다들 서울로 옮겨 가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도 고사해 버렸다. 그래도 대구 고유의 리듬은 여전히 남아있다. 멋지고 좋은 사람들도 남아있다. 배두호는 그런 대구를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좀 까진 애'로 살아왔다. 노는 것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질이 난 거다. 대구 말로는 '질라이'라고 한다. 그런 대구 질라이 배두호에게 대구는 골목마다 술과 떡과 고기가 숨어있는 곳이다. 밖에서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없는 곳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즐길거리가 구석구석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제 다이내믹하지만 그 움직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대구의 문화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구 자립 예술의 네트워크, 역사와 문화 지형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려는 계획이 있다. 배두호와 그의 동료들이 재정비하고 새롭게 선보일 젊은 대구의 얼굴이 궁금하다. ㅂ

두

호

1980

가장 먼 여행

청도 운문사 雲門寺

"가장 먼 여행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이르는 여행이다. 그러나 중간에 반드시 가슴을 거쳐야 갈 수가 있다. 앞으로 산사 여행을 계속하면서, 나는 생각의 무게를 지탱한 머리와 세상의 무게를 지탱한 발 사이에서 하염없이 배회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가슴을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삼엄하면서도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거듭 깨닫게 될 것이다."

글 · 이산하(시인),
사진 · 박정훈

나는 평소 내 몸과 마음이 서로 충돌해 분열되면 대체로 몸의 주장을 듣는 편이다. 마음은 문명의 비곗덩어리지만 몸은 자연의 파동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가을 산사를 그리며 대구 팔공산으로 향하던 내 발길이 문득 청도 운문사로 방향을 틀었다. 아마도 몸의 미세한 파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물론 파동의 거점은 가슴이다. 그러나 그 거점은 앞으로 바람과 바람 사이의 간격으로 걸을 내 보폭에 따라 수시로 은신처를 바꿀 것이다.

통일신라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맞짱'을 뜨다가 위기에 몰린 왕건이 8명의 장수들을 가게무샤(影武者)처럼 자신으로 위장시킨 다음 도망쳤다는 대구 팔공산. 그 자락에는 수많은 절들이 참수된 장수들의 핏자국을 덮고 있다. 봄마다 울창한 오동나무들이 꽃과 향기를 방생하는 동화사를 비롯해 고려대장경을 보관했던 부인사, '기도발'이 좋아 소원 하나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선본사 갓바위부처,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마무리했다는 인각사, 대웅전의 현판 글씨가 추사 김정희의 친필인 은해사 등 그야말로 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집사촌(集寺村)'이다.

그곳엔 국내를 넘어 일본·중국·미국 등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영업 실적'이 가장 우수한 갓바위부처의 점유권 논쟁도 뜨겁다. 지형적으로 대구, 경산, 영천으로 산의 동맥이 겹쳐진 탓이다. 국보급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경산시에서는 갓바위부처의 소속이 '경산시 외촌면'이라는 안내판까지 세워 행정적 영역 표시를 분명히 했다. 무국적과 무소유의 부처가 세속을 만나 문패까지 단 것이다. 어느 절간이든 무소유의 목탁소리가 높을수록 불전함 시줏돈 금고도 높아진다. 또 간혹 그 속은 돈 대신 아주 '기발한' 것들로 채워지기도 한다. 실제로 몇 해 전 조계사 불전함에서는 순복음교회의 헌금 봉투들이 나왔다. 봉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한 시절 지나 다시 경계를 엿보다

서울에서 대구로 가 청도 운문사행 시외버스를 탔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가을비가 귀뚜라미 소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내렸다. 팔공산 동화사의 말사인 운문사로 가기 위해서는 경산을 거쳐야 한다. 경산은 우리 불교계의 거목인 설총, 원효, 일연스님의 출생지로 유명하지만, 정작 그 유명세에 버금갈 고색창연한 사찰이 없다. 어쩌면 그래서 갓바위부처의 소속을 표시한 안내판을 놓듯 관광도시로 위상을 세우는 데 더 적극적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경산은 나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창밖의 자욱한 빗속으로 36년 전의 뜨거운 여름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1977년 운문사에서, 필자와 법운스님

1977년, 부산의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난 여름방학 때 여기 경산의 한 암자로 들어와 책을 읽으며 글을 쓰곤 했다. 깊은 산속의 아담한 암자였지만 큰 절에 있다가 일부러 자원해서 온 새벽이슬처럼 여리고 투명한 여승도 있었고, 뻐꾸기가 울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며 대숲 속으로 들어가 혼자 몰래 훌쩍이던 어린 동자승도 있었다. 배롱꽃과 붉은 능소화로 뒤덮인 작은 암자의 주지스님은 나의 외할머니였는데, 희한하게 담배 골초였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배롱나무에 기댄 채 석양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게 외할머니의 일상이었다. 그럴 때면 항상 곰방대에 봉초를 엄지로 꾹꾹 눌러 담아 뻑뻑 빨아 당겼다. 하루는 내가 먼 산을 보며 은근슬쩍 물었다.

“할무이요, 맨날 뭘 그렇게 번민하십니꺼?”
“고걸 알면 이때까지 내가 와 이카겠노?”
“또 괜히 물었네. 근데 담배는 말라꼬 그렇게 피우십니꺼? 맹색이 쫄따구 스님도 아이고 주지 스님인데….”
“이 곰방대 하나로 맨날 부처도 태우고 향도 피우고 을매나 좋노! 안 글나?”
“아이고~ 마 됐심더.”

외할머니와 이렇게 선문답 같은 대화만 나누던 어느 날, 백구두를 신은 젊은 객승 하나가 비를 흠뻑 맞으며 암자로 왔다. 그는 오자마자 고열을 앓으며 쓰러졌고 절집 식구들은 미음을 먹이는 등 정성껏 병간을 했다. 며칠 후 깨어난 스님은 곧바로 1주일간 ‘묵언면벽 수행’을 했고, 난 외할머니의 명령대로 공양(식사) 배급을 담당했다. 스님은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텅 빈 벽만 쳐다보았다. 찜통더위에 골방에서 웃통만 벗은 그의 등짝에는 늘 모기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걱정하던 외할머니가 모기장과 모기향을 피워 줬지만 스님은 치워버렸다. ‘모기향은 화생방 살생’인 데다 ‘스님이 궁상맞게 모기장 안에서 도를 닦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때 내가 외할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하며 불평했던 게 떠오른다.

“염병~, 도 닦는데 모기장이면 어떻고 돼지우리면 어때! 세계 위인전 보니 다들 시베리아 같은 감옥에서도 기똥차게 한 소식씩 하더구만. 할무이 안 그렇십니꺼?”
“하모. 근데 그래 생각하는 넘이 백구두 흑구두는 와 따지노? 남이사 뭘 신든 한 소식만 하믄 되지. 안 글나?”
“그, 그러게요….”

사실 처음 카바레 제비처럼 백구두를
신고 왔을 때부터 난 스님을 가재미눈으로
보며 '괴짜 땡초'로 낙인을 찍은 터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스님은 어릴 때
장의사를 하던 술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술주정에다 폭력까지 행사하던
남편한테 환멸을 느낀 어머니는 읍내
5일장을 보러 갔다가 영영 떠나버렸다.
그때 어린 스님도 함께 갔는데, 어머니는
눈깔사탕을 사주며 이거 먹고 있으면
볼일 보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눈깔사탕을 다 먹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금방 오겠다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어린아이는 눈깔사탕을 먹지 않았다.
그때가 떠올랐는지 스님은 나와
여행하다가 하모니카를 불며 가끔 엄마를
불렀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또 운다. 중놈이 엄마가 어딨노!"
"그래, 니 말이 맞다. 내가 그놈의
눈깔사탕에 눈이 뒤집혀 엄마를
잃었삣다 아이가."
"스님한테 엄마가 눈깔사탕이라는
화두를 줬네 뭐. 거 앞으로
넘어야 할 고개들이 만만찮을 텐데,
암만 달콤하더라도
함부로 먹지 마이소. 단디 명심하소!"
"지랄~. 아예 니가 땡초해뿌라."

1주간의 묵언 면벽 수행이 끝나고 스님은
다시 바랑을 훌쩍 멨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짜고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마치 귀신한테 홀린 듯 졸졸 따라갔다.
우리는 주로 강가에서 저녁노을을 아래
밥을 지으며 노숙을 했다. 쌀뜨물 같은
그리움이 강물 위로 흘러가다가 하얀
김처럼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둠이
내리면 스님은 하모니카를 불고, 나는
별과 별 사이로 다리를 놓는 상상을
하며 시를 썼다. 스님과 나의 전국
산사여행이자 만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세계역사와 인도철학을
공부했다는 스님의 법명은 법운(法雲)
이었다.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 나오는
파계승이자 끝내 '자발적 죽음'을 택한
지산스님과 비슷했다.

구름 문 지나 피안에 들었건만

법운스님이 맨 처음 나를 데려간 절이
바로 운문사였다. 그로부터 36년 후,
그러니까 열입곱 살 때 처음 간 절을
쉰세 살이 되어서야 다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몸이 아파 가지
못했다. 몸은 정직하고 파동은 전달하고
자연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버스가 운문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그쳤고 오히려 햇빛이 나기 시작했다.
유흥가로 변한 마을은 초가와 슬레이트
지붕 대신 현대식 건물 일색이었다. 36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그 중심에
내 눈과 마음이 있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넓이와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에 따라 변화의 진폭이 달라진다.
늘 그렇듯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난 잊지 않는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하물며 사물의 현상과
이면의 간극을 꿰뚫고 허공의 바닥마저
손으로 탁, 탁 치며 깨달아버린 자는
얼마나 위험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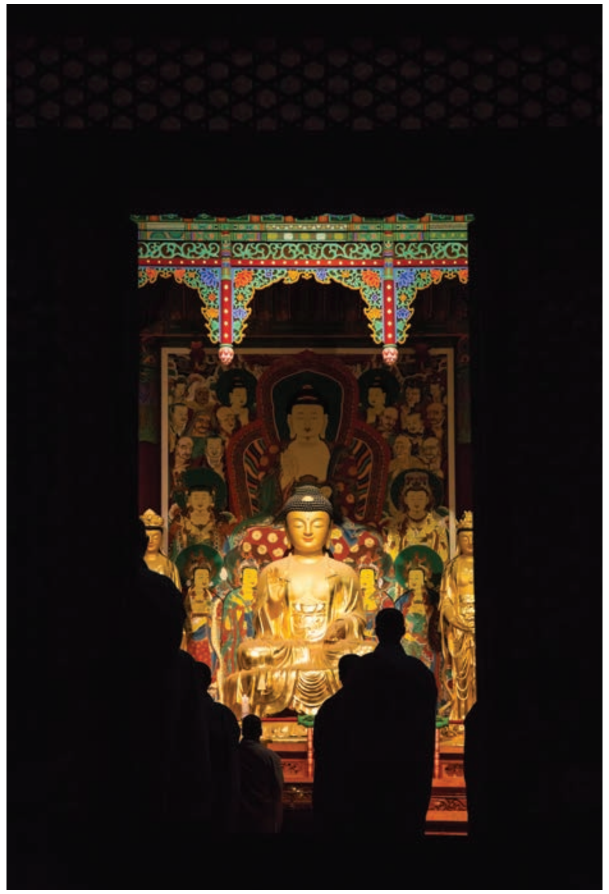
절 입구 매표소 지나자 커다란 일주문
대신 '솔바람길'이라고 쓰인 진입로
이정표가 나오면서 울창한 솔밭이
펼쳐졌다. 모두 고등학교 때 본 수령 100년
이상에다 키가 40~50미터나 되는 적송
(赤松)들이다. 그런데 곧은 소나무들은
사라지고 대부분 굽은 것들만 더욱
외로운 각도로 휘어진 채 남아 있었다.
물론 선선해진 가을 날씨라 절의 가을 단풍을
보러 왔거나 진입로 양쪽으로 주렁주렁
열린 청도 반시(씨 없는 감)를 막대기로
따는 관광객들은 여전했다. 차도와
구분해 인도로 새로 만든 솔바람길
산책로는 유모차나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만큼 잘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계곡의 일부 구간은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나무 데크를 설치해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비가 온 직후라
솔바람길은 솔숲과 풀들의 그윽한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다만 울창한 소나무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었는지 마치
곡예를 하듯 뒤틀려 있어서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었다.

비구니와 붕어빵

오른쪽으로 맑은 개천을 끼고 30여 분쯤
걸어가자 낮은 기와 담장이 나오면서
바로 경내 입구인 범종각 앞에 닿았다.
구름으로 들어가는 산문, 운문사(雲門
寺)다. 신라 진흥왕(560년) 때 창건된
운문사는 신라 화랑들의 군사 수련장이자
일연스님이 주지로 5년 동안 머물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절로 유명하다. 또
고려 무신정권 때는 공주 '망이·망소이의
천민 항쟁'에 이은 경상도의 '김사미
농민 항쟁'의 본거지였고, 조선 시대에는
활빈당의 거점이기도 했다. 항쟁의
지도자였다가 참수된 김사미는 운문사의
사미승 출신이었다. 또 항쟁의 실패로
운문산 깊이 피신해 완강히 버틴 '운문적'
(雲門敵-당시 농민 반란군을 부른 무신
정권의 호칭)의 슬픔과 한은 고려가사
'청산별곡'의 행간 속에 댓잎처럼
서걱거리고 있다.

언뜻 경상도 모든 '반란의 거점'으로도
보이는 이 운문사는 현재 공주 동학사,
수원 봉녕사, 김천 청암사 등 전국 5대
비구니 전문 강원 가운데 학풍이 가장
엄격한 최대 규모의 비구니 승가대학이다.
1958년 불교정화운동 직후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 개설되었고, 1977년 4년제
정규 승가대학으로 허가받아 해마다 약
260명의 비구니 학인스님들이 노동과
학문을 병행하고 있다. 사미계를 받아 5:1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입학할 수
있어서 재수, 삼수생도 많다. 학비는 약 35
만 원 정도의 입학금만 내면 졸업 때까지
전액 무료다.
4년제이기는 하나 일반 대학의 학년이란
호칭 대신 치문반(1년), 사집반(2년),
사교반(3년), 대교반(4년)이라는 말을 쓴다.
물론 중도탈락하지 않고 졸업하면 정식
비구니계를 받는다.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공부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울력(노동)이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가 수행 규범인데, 이는 7세기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도신선사에게서
비롯된 농선결합(農禪結合)이다. 당시
여러 종파들은 황실과 귀족의 우산 아래
절대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신선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인도불교를 답습한 걸식
수행에 몸살을 앓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주류 하층 승려와
떠돌이 유랑승들을 거둬 대규모 생산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는 포도주를
제조한 중세 유럽의 수도원처럼 이때
야생차를 재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사찰과 세속이 차 문화로
유명해진 모태이다.



그러니까 운문사의 울력은 단순히 자급자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을 끊는 수행 과정의 하나다.
운문사에는 운전기사와 부목 네 명만 일반인일 뿐, 부엌살림을 해주는 공양주 보살도 없다. 절 주변에 펼쳐진 넓은 밭의 채소와 작물들은 모두 학인들이 직접 가꾼다. 물론 예외도 있다. 겨울이면 붕어빵 장사 아줌마를 후한 일당으로 고용해 학인스님들에게 붕어빵을 실컷 만들어 주는 경우다. 따뜻한 붕어빵을 먹으며 해맑게 웃는 20살 또래 까까머리 학인 스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끝내 내딛지 못한 한 발

운문사 경내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세루 앞의 500살 가까운 '처진 소나무'였다. 해마다 봄, 가을에 동곡막걸리를 다섯 말씩 부어 주며 특별 관리를 하는데, 엣된 비구니들이 나무를 빙 둘러싸고 고랑을 파서 막걸리를 붓는 장면이 하나의 예불처럼 다가왔다.
한 고승이 시든 나뭇가지를 꺾어 심었다는 이 '처진 소나무'(forma pendura)는 정식 소나무 품종의 하나다.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특성은 접목을 해도 유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만세루 앞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대웅보전이 하나 눈에 띄었다. 알아보니 1994년에 신축했다고 한다. 그제야 운문사 입구의 솔밭에 굽은 소나무밖에 보이지 않은 이유가 짐작되었다. 거기 수직으로 뻗어있던 곧은 소나무들을 베어 신축 대웅보전의 목재로 사용했던 것이다.

운문사는 정갈한 평지사찰이다. 매표소 입구부터 넓은 경내까지 계단이 하나도 없다. 부속 암자로 가는 길이나 경내 각 건물을 오르는 부분 외에는 넓은 종이 한 장을 펼쳐놓은 것처럼 평평하고 매끄럽다.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많이 보인다. 원래 절은 계단과 문이 많은 곳이다. 자신을 비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수행 단계와 새로운 세계로 보기 때문에 거쳐야 할 계단도 많고 열어야 할 문도 많다. 그런데 운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적인 세계만 존재한다. 깨달음은 바닥에서 바닥으로 가장 낮게 흐르는 물처럼 온다는 은유일지도 모른다. 더 낮은 곳으로만 방향을 잡는 물의 화두다.

세상 다 버리고 홀로 숨어 있고 싶은 사리암과 마지막 햇살이 암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북대암을 다녀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쳤던 비도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절 입구의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새벽 2시에 빗속을 걸어 다시 운문사로 올라갔다. 3시의 새벽 예불을 보기 위해서였다. 난 어느 글에서 36년 전 고등학생일 때 본 그 인상을 이렇게 썼다. "대웅전 법당의 붉은 촛불 아래에서 수백 명의 복사꽃 같은 어린 여승들이 합송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고혹적이면서도 장엄했고, 장엄하면서도 도저했고, 도저하면서도 삼엄했고, 삼엄하면서도 처연한 비장미의 절정이었다. 천둥 같은 전율, 벼락같은 충격을 받은 어린 소년은 한순간 심장이 멎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누구는 신이 허락한 가장 장엄한 소리라 했고, 누구는 교향곡이라 했고, 누구는 그레고리안 성가라 했다. 난 비록 그때의 소년처럼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때의 소년처럼 처연한 비장미의 최절정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소년처럼 심장이 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황홀한 경지로 돌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이 한없이 슬펐다. 몸의 감각이 자연의 파동에 찰랑거리지 않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몸의 빈틈을 다 막아놓은 탓이다.
나에게 운문사 가는 길은 가장 먼 여행이다. 그러나 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지 못했다. 중간에 가슴을 거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가슴을 통과한다는 것, 그것은 백척간두에서 허공으로 한 발 내딛는 아찔한 경지와도 같은 것이다.ㅂ

잡다한 곁맛 물리치고 화끈하고 직설적으로

1940년, 미국에서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널드 형제가 맥도널드 햄버거를 탄생시켰다. 도시의 발달과 자동차의 증가, 여권(女權) 신장 및 부엌일 해방 같은 배경이 있었다.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은 햄버거는 혁명적으로 번져 나갔다. 햄버거는 점심시간을 파괴했다.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즐기거나 돈벌이에 더 몰두했다. 18세기 중반, 한반도에도 패스트푸드가 번져나갔다. 상공업의 발달로 전국에 오일장 1천여 개가 생겨나고 보부상과 장꾼들이 등짐과 봇짐을 지고 시장으로,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장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선보였던 엄청난 스피드의 음식을 팔았다. 국밥이 그것이다. 찬밥을 뚝배기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먹을 수 있었다. 국밥에 관한 기록은 중국 문헌에서 처음 보이지만, 어느 민족의 음식으로 폭넓게 자리 잡은 것은 한반도에서였다.

글. 박찬일(요리사)
사진. 박정훈

얼른 먹고 피난 가는 음식, 육개장

1950년, 사변(국밥 시대를 증언하는 세대들의 용어)이 나고 대구는 전국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사변 전 인구가 26만 명이었는데 1.4 후퇴 이후 피난민이 무려 16만 명이나 몰려왔다. 대구 사람 다섯 중 둘은 피난민이었다. 이 난리통에 대구 특유의 얼큰한 국밥인 육개장이 패스트푸드로 기능했다. 대구 사람들은 육개장을 '얼른 먹고 피난 가는' 음식이라고 불렀다. 한이 담긴 슬픈 패스트푸드였다.

대구는 봄가을이 아주 짧다. 대신 여름이면 동쪽, 남쪽, 북쪽이 비슬산과 팔공산에 막혀 더운 습기가 나가지 못한다. 한증막이 따로 없다. 겨울에는 유일하게 열려 있는 서쪽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몰려와 분지를 꽁꽁 얼린다. 대구는 남쪽이지만 다분히 대륙적인 기후와 풍토를 가졌다. 나는 에두르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대구 사람들의 성정이 이런 기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대구 음식의 화끈하고 직선적인 면면은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힌다.

대구 사람들은 그 맛을 그저 '맵고 짜다'고 표현한다. 그것은 잡다한 곁맛을 물리치고 끝까지 가는 맛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도시의 육개장은 맵고 짜며 단단한 맛이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요지부동이다. 육개장의 한 계열인 앞산 '대덕식당'의 해장국 이름은 '소피국'이다.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소피'라고 한다. 마젠타 100퍼센트의 벌건 소피를 듬뿍 넣고 국물은 걸쭉하고 진하게 낸다. 대구 육개장의 원조 격이라 할 '국일따로국밥'의 따로국밥도 그렇다. 두툼한 고추기름이 벌겋게 떠 있다. 주변에 서성거리는 맛 따위는 개의치 않고 한칼에 깊이 속으로 들어온다. 토란대며 고사리, 숙주와 계란의 간드러지는 '곁맛'들이 추임새를 넣고 부드럽고도 개운하게 조화를 꾀하는 서울식 육개장과는 노선이 다르다. 대구 출신 야구 선수 이승엽이 일본에서 날리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귀국 인터뷰를 할 때 일성도 그랬다.

"대구로 빨리 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 짜고 매운 것이 그립다."(『대구식후경』 사단법인거리문화시민연대, 2007). 부언컨대 간질간질한 일본 음식을 먹으며 운동하던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다. 짜고 매운 대구 음식, 화끈하고 묵직하게 밀고 가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지 않았겠는가.

니, 좀 끓이나?

최초로 고기를 구워 먹었던 호모 에렉투스 이후 서양 음식의 상징은 로스트나 스테이크가 되었다. 반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음식의 상징은 국과 밥이었다. 중국 예기에 국을 양(陽), 밥을 음(陰)이라 칭한 걸 보면, 음식의 기본 구조를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사람들은 국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다. 지금도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상도에서 '좀 끓이나?'라는 말은 곧 요리를 잘하느냐는 말이다. '국=끓이기=요리의 핵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 국밥

그중에서도 국밥은 특히 민중 음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국밥은 가장 빠르게 한 그릇의 완전식을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육체노동자에게 특히 중요한) 소금 등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분이 국밥 한 그릇으로 해결된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서양 수프는 흔히 크림 형태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소와 고기를 삶은 국물이 더 많다. 민중들은 여기에 마치 밥을 말 듯 빵을 뜯어 넣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한 끼를 때웠다. 여기서 잠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먹는 빵이 차갑고 딱딱한 형태라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언제든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계급은 귀족 정도였다. 빵을 굽는 오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빵을 사들이거나, 오븐을 가진 집에 다 같이 모여 대량으로 빵을 구웠다. 딱딱해진 빵을 먹기 위해서는 뜨거운 수프나 물이 필요했다. 지금도 유럽 몇몇 지역에서는 맹물에 빵을 적셔 먹는 식사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서양 수프와 형제 관계인 '국'을 이용해서 식은 밥을 먹었다. 국에 밥을 마는 행위는 일반 가정에서나 저자의 국밥집에서나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노동자 계급이 본격 출현하면서 국밥의 효용은 점차 높아졌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빨리 먹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식사로 국밥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국밥은 '토렴'이라는 우리 민족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다. 보온밥솥이 없던 시절, 아침에 해둔 밥은 식게 마련이었다. 이것을 그대로 국에 말면 국물이 미지근해지고 맛이 떨어진다. 하지만 찬밥에 뜨거운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 헹궈내기를 반복하면 밥알 속까지 따뜻해지면서 국밥 온도가 먹기 적당한 상태로 변한다. 토렴에는 또다른 맛의 비결도 숨어 있다. 뜨거운 국물에 뜨거운 밥을 말면 전분이 녹으면서 국물이 탁해져 맛을 버린다. 오히려 밥이 적당히 식어서 단단해진 다음 토렴을 해야 온도도 맞고, 밥 알갱이의 씹히는 맛도 살아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된다.

참고로, 밥알 온도는 이웃 일본의 패스트푸드 탄생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에도 막부 시대에 도시 건설을 위해 유입된 노동자와 불모로 온 지방 토족들의 수행 인력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패스트푸드가 성행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스시다. 원래는 생선을 오랫동안 숙성시켜 먹던 것이었는데, 에도 시대에는 초를 친 밥 위에 생선을 날것 그대로 얹어 먹으면서 패스트푸드가 됐다. 밥알 온도가 뜨거우면 초가 날아가고 생선 고명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적당이 식힌 후에 스시를 쥐었다. 같은 패스트푸드지만 동양에서는 이렇듯 온도가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게 특징이다.

대구 대표 음식, 육개장과 따로국밥

육개장이 대구 명물 음식으로 처음 거론된 것은 식민지 시대였던 1929년의 일이다. 사학자 주영하는 당시의 잡지 ‹별건곤›에서 '대구의 자랑 대구탕반' 이라는 기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달성인(대구 인근 지명인 '달성(達成)'을 의미한다)이라는 필명의 필자의 글을 축약하면 이렇다.

"국물을 먼저 먹은 굵다란 파가 뜨고 기름이 뚝뚝 듣는 곰국에다 고기를 손으로 찢어 넣은 (...) 혓바닥이 델 만치 뜨겁고 김이 무렁무렁 떠오르는 시뻘건 장국을 대하고 앉으면 침이 꿀꺽 넘어가고 업동설한에 언 얼굴이라도 저절로 풀리고 (...)
어쨌든 대구 육개장은 조선 사람의 특수한 구미를 맞추는 고초가루와 개장을 본뜬 데 그 본래의 특색이 있다. (...)"

육개장은 확실히 대구 음식인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 있는 육개장을 찾아볼 수 없다. 근대 음식의 한 갈래를 짚어볼 수 있는 최명희의 소설 ‹혼불›과 박경리의 ‹토지›에는 곰국이나 각종 탕은 나와도 육개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는 대구 인근 경남을 배경으로 하는데도 육개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구시에서는 육개장을 대구 대표 음식으로 선정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문헌을 근거로 들어 육개장이 아니라 '대구탕(大邱湯)'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력 인사도 있다. '대구 = 탕'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대구탕이 육개장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대구 사람들은 대구의 맛으로 여러 음식을 함께 거론하지만, 그 으뜸은 육개장이라고 확언한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육개장과 따로국밥의 역사적 혼재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곁들이고자 한다. 육개장과 따로국밥을 각각 대구의 고유 음식으로 다르게 인정해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일단 밥과 국 '따로'라는 식사 방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고 유행했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일따로국밥' 서경수 사장은 "원래는 육개장에서 따로국밥이 생겼다. 국과 밥을 따로 달라는 까다로운 손님들 기호에 맞추다 보니 생겨난 메뉴다. 본질적으로는 다른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를 바 없는 음식이다"라고 말한다.

대구 양반들이 체통을 차리느라 밥을 따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시기 '국일따로국밥' 근처 한일극장에 유랑극단으로 온 여배우들의 까다로운 기호에 맞추다 보니 생겨났다는 기사 (영남일보 이춘호 기자 취재기)도 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춘호 기자의 표현대로 따로국밥은 대구에서 생겨난, '한국 국 문화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된 셈이다.
실제 먹어본 '국일따로국밥'의 국밥은 아주 감칠맛 나는 진미를 안겨준다. 본디 쇠기름으로 만들었다는 (지금은 식용유) 고추기름이 두껍게 미각을 코팅하고, 뜨거운 국물이 그 위로 진하게 감긴다. 밥을 꾹꾹 말아도 좋고 문자 그대로 '따로' 먹어도 좋다. 나는 반쯤 따로 먹다가 남은 밥을 마는 것을 선호한다. 이름하여 '반반'이라고나 할까.

구장(狗醬)은 육개장을 낳고

앞서 언급한 ‹별건곤›에는 대구 육개장의 원조가 개장, 즉 구장(狗醬)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신탕이다. 육개장의 '개'가 바로 개고기를 뜻한다. 육개장이 보신탕에서 왔다는 증거는 여럿인데, 일단 서울 지역에서 육개장을 만드는 기본 방법 중에서 양지머리나 업진살을 가늘게 찢는 대목을 들 수 있다. 황혜성 선생은 자신의 저서 ‹한국요리› (1992년 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개고기 먹는 것을 모방하여 비슷한 맛을 내려고 쇠고기를 쭉쭉 찢어지는 양지머리나 업진을 쓰는 것이다."
쇠고기 중에서도 국물이 잘 나고 마치 개고기처럼 결대로 좍좍 찢어지는 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개고기 코스프레'나 '이미테이션 개고기'로 육개장을 즐긴 것이다. 알다시피 북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개고기를 즐기는데, 조선료리협회에서 발간한 ‹조선료리사전›에는 단고기국(보신탕) 요리법을 이렇게 쓰고 있다.
"마늘 생강 된장에 고기를 삶는다. 그것을 고깃결대로 찢는다."
역시 결대로 찢는 육개장의 고기 처리법은 보신탕에서 온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실제 대구에는 오래된 보신탕집이 꽤 많은데, 특히 '대원명가' 보신탕은 대구 육개장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개고기를 썼다는 점만 다를 뿐, 고명이나 맛, 담음새가 똑같다. 역사가 오래된 보신탕집에서 육개장의 원형을 발견한 셈이다. 대파를 많이 넣고, 고추기름을 쓰며, 대구 육개장이 그렇듯 토란대나 고사리는 넣지 않고 주로 무와 대파로 맛을 내는 것도 똑같다. 곁들여 파는 닭개장도 보신탕이나 육개장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신탕에 들깨를 치고 고춧가루 양념을 넣는데, 대구 지역 보신탕은 완벽하게 육개장이다. 그러니까 대구는 육개장과 그 아버지 격인 보신탕이 하나의 궤도로 묶이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대원명가' 이병안 사장은 특유의 장맛으로 오늘의 보신탕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원명가 성장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도 많다. 육개장의 원조 음식이면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보신탕의 수난사를 들었다. 지금도 개고기는 공식적으로 법의 통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법외 육류이다. 이건, 민족적인 아이러니이고 수치다.

입맛도 성정도 확실하게 '대구 스타일'

대구식 육개장(또는 따로국밥)의 진미는 시내 곳곳에서 성업하는 여러 식당에서 느낄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옛집식당.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가 며느리인 김광자 사장에게 이어졌고, 지금은 아들이 거들며 3대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박한 가정집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냥 여염집에 가서 밥 한술 뜨는 것처럼 편안해 기분이 좋다. 이 집은 술을 팔지 않고 아침부터 국이 떨어질 때까지 육개장 딱 하나만 끓여낸다.

김광자 사장은 육개장 맛의 중요한 요소로 사태와 대파를 든다. 대구 육개장에는 대파가 많이 들어간다. 파란 부분은 빼고 흰 부분만 넣어 개운하고 달달한 감칠맛을 낸다. 이춘호 기자가 찾아낸 사실에 따르면 예전 대구 육개장엔 '다키이 파'를 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진출했던 일본 종묘회사 '다키이'사의 대파 종자 가운데 하나로, 이 회사는 현재 한국에 다시 진출해 있지만 재진출 이후 한국에서 대파 종묘를 팔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가격이 비싼 까닭이다. 회사 측에 과거 한국에 있었던 '다키이 파'에 대해 물어봤지만 지사가 생긴 지 오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만 자신들의 대파는 '연백부(희고 여린 부분)'가 길어서 감칠맛이 강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대구와 가까운 고령에 '다키이 파'를 심었는데, 매운맛이 아주 강하면서도 달았다고 한다. 지금은 경지 정리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다. 당시 다키이 파는 연백부가 자주색을 띠었다는 증언도 나오는데, 이는 수확을 늦게 할 경우 안토시아닌 침착으로 생긴 현상이 아닐까 하는 전문가의 해석이 뒤따른다.

무엇이 되었든 음식 맛을 좌지우지하는 게 재료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파를 되살리거나 유사 종류의 파를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옛집식당은 건물 자체에 근대의 흔적이 묻어 있다. 서문시장 건너편, 좁은 골목을 더듬어 가다 보면 숨은 듯 수줍게 자리한 식당이 나온다. 자태 고운 주인장은 음식 솜씨뿐 아니라 말솜씨도 좋으시다. 호텔 한식당에서 일하다 어머니 일을 돕고 있는 인물 좋은 아들은 말수가 적고 수더분하다. 옛집식당 방바닥에 대충 앉아 국밥을 한술 뜨는데, 왈칵 오래된 기억이 치솟아 얼굴이 더워졌다. 수돗가, 비 받는 개량 덧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 어머니 손맛…. 정갈하게 정돈된 이곳 부엌에는 타일로 붙인 부뚜막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왕이면 추어탕도 한 그릇

육개장은 아니지만 같은 탕류 음식으로 대구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 대구백화점 뒤로 있는 '상주식당' 추어탕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잘 손질된 배추가 마치 장식이라도 되는 듯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그것이다. 배추를 보며 관상용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식당은 가게 구석구석이 죄다 근대 골동품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아름답다. 반짝반짝 기름을 먹여 만든 장판이며 오래전 장인들이 손수 만든 생활 가구 등 수수한 대구식 한옥 살림집이 추어탕을 먹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눈에 들어온다. 이 집을 지켜온 차상남 사장은 매년 12월 1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영업을 쉬는 것으로도 유명한 이다. 마루든 안채든, 아니면 건넌방이든 가만히 앉아 정갈하게 내준 추어탕을 한 그릇 드는 것으로 우리는 잠시 추억에 든다. 이번 취재는 육개장이 중심이라, 상주식당 추어탕 예찬은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룬다.

야키만두와 건반면

지역의 맛은 풍토와 산물, 현지인들의 성정이 합해져 하나의 정서로 완성된다. 대구 맛의 중심에는 '확실하게' 맵고 진하며 뜨거운 육개장과 찜갈비, 또렷한 맛의 막창구이, 민중의 삶을 관통해온 시장통 칼국수가 자리한다. 여기에 근대 역사의 맛이 더해질 수 있는데, 화교 음식이 그것이다.

대구 출신 학자 이정희 선생이 발굴한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화교가 대구에 처음 정착한 때는 1905년이다. 이후 그 수가 크게 늘다가 만보산사건(중국 만주에서 벌어진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분쟁), 중일전쟁 등으로 쇠퇴했는데, 해방 후 중국 공산화와 군정의 우대조치 등으로 다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한때 5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화상들이 하는 식당도 줄고 젊은 세대들은 대도시나 외국으로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화교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 정책으로 대만이나 미국 등지로 이민 간 사람도 아주 많지요."

대구화교협회 간부를 지냈고 대구 시내에서 중화요리집 '청보석'을 경영하는 화교 출신 유장산 사장의 증언이다. 그는 자신의 식당에서 지금은 사라진 '중국 요릿집 황금시대'의 메뉴를 재현해 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돼지갈비를 이용한 요리나, 예전만 해도 고급 식재료였던 계란 요리, 찬물에 식히면 바삭하게 부서지는 특유의 설탕옷이 기가 막힌 고구마과자 등을 맛봤다. 그리고 다음 날, 그를 따라 화교의 숨결이 묻어 있는 종로 거리를 걸었다.
"그래도 대구 중식당에는 여전히 옛날 메뉴가 살아 있는 편입니다. 대구의 보수적인 기풍 덕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야키우동이라는 메뉴가 먼저 눈에 든다.
"대구 사람치고 이 메뉴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맵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일종의 짬뽕이랄까, 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국물이 자작하게 맵게 볶은 요리다. 한때 서울중식당에서도 '야키'라는 말이 들어간 근대 음식을 팔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지금도 일본에서 파는 야키우동과는 상당히 다른 맛이다. 일단 대구 야키우동은 아주 맵고 진하며 불맛보다는 감칠맛을 전면에 내세우는 스타일이다. 무엇보다 '야키우동'이라는 일본식 용어가 살아 있다는 건, 대구의 보수적인 면모가 음식에도 투영됐다는 느낌을 준다. 같은 풍경은 중국식 만두집에서도 생생하게 목격된다. 서울에서 보통 찐만두라고 부르는 '찐교스'가 팔리고, 일제 때 군만두를 칭하던 '야키만두'도 있다. 속이 야무지고 맛있다. 특이한 건 이런 메뉴조차 상당수는 대구 사람들의 특수한 입맛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야키만두는 매운 양념을 얹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식이 되었다. 맵고 진한 맛. 대구를 설명하는 음식 기호사의 키워드가 만두에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중구 종로통에 자리한 '영생덕'에서는 신기하게도 화교 음식 전래 당시의 메뉴인 계란빵과 호떡을 만났다. 조선에 이주해 온 화교들이 처음부터 화려한 중화요리집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대개 처음에는 채소 농사와 건축 일,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파는 간이식당으로 시작했다. 짜장면이 그렇게 전래됐고, 계란빵이나 호떡도 그 시절 간이 음식이다. 더불어 이 집에서는 화교 요리사들이 여름철 한국식 냉면의 대항마로 내세운 중국 냉면을 원조 격인 '건반면'의 형태로 맛볼 수 있다. 메뉴에는 없지만 주문은 가능하다. 알다시피 한국에서 파는 중국 냉면은 한국식으로 육수를 흥건하게 부어준다. 물론 중국에는 그런 냉면이 없다. '깐빤미엔(건반면)'이 그나마 여름에 차갑게 즐겼던 음식인데, 그게 대구 중식당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을 줄이야.

대구가 근대의 보고라는 것은, 이런 소소한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ㅂ

경상감사 신석우와 떠나는

대구 문화유산 답사기

부산과 함께 영남의 거점 도시인 대구는 조선시대에도 위상이 매우 컸다. 삼국시대부터 달구벌(達句火)로서 행정 구역이 설치되었고, 조선 초부터 대구도호부로서 영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갈수록 위상이 높아져 1601년에는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면서 명실상부하게 경상도의 중추 도시로 발전했다. 경상도가 팔도 중에서도 정치나 산업, 문화면에서 그 비중이 컸기 때문에 대구의 위상은 팔도의 어떤 도회지와 비교해도 작지 않았다. 경상도 감영의 위상도 그에 걸맞은 자리를 차지하였고, 경상도 관찰사 역시 위세가 대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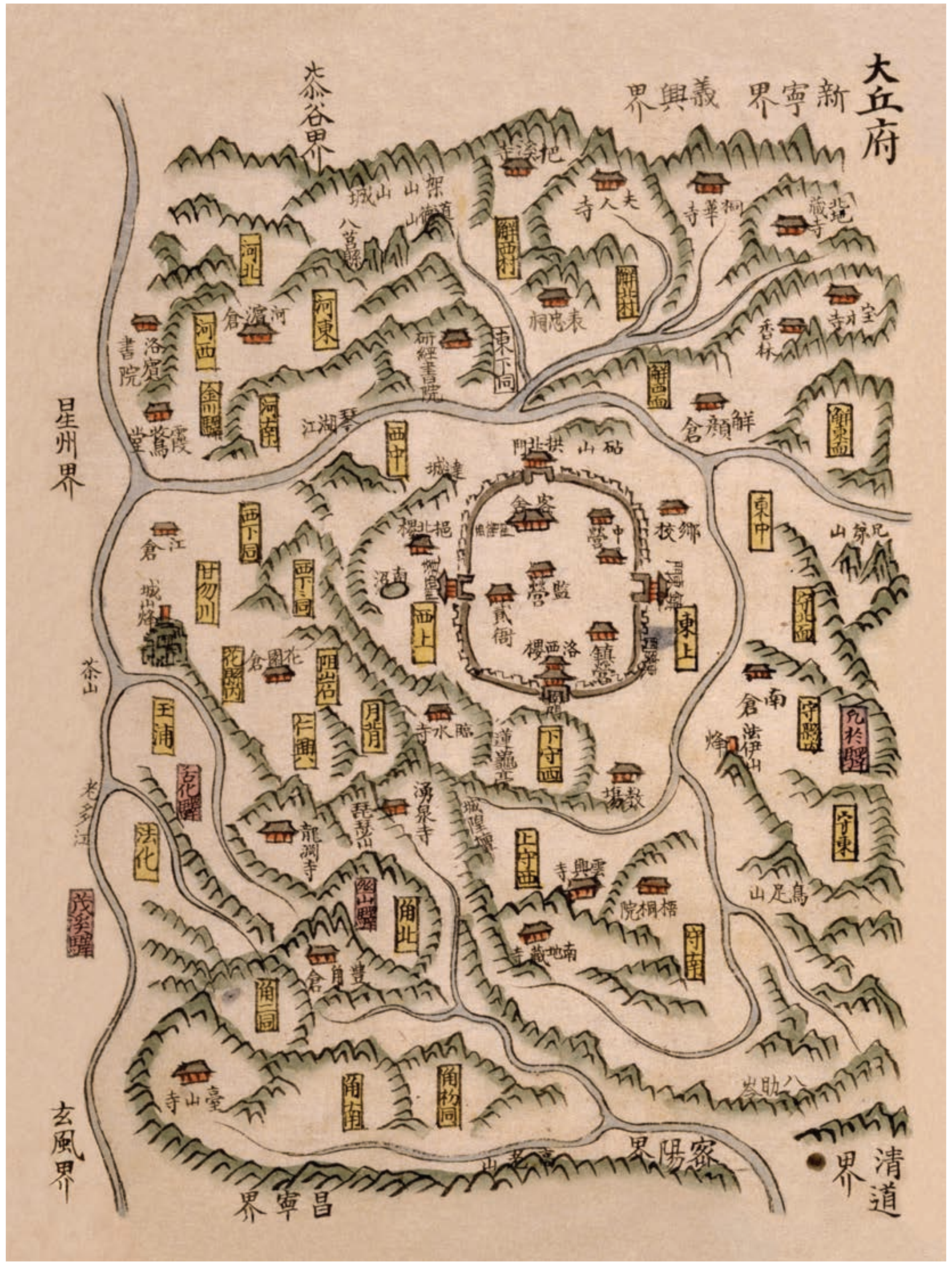
글.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도회지로서 대구를 묘사하다

지리적으로 영남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 정조 시대에 유만주(兪晩柱)란 학자는 전국의 도회지를 품평하면서 한양을 제외하곤 평양과 전주, 대구를 가장 번화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평양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큰 도시라고 추어올렸다. 그의 평가는 실상과 잘 부합한다.

그러나 대구를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평가가 좀 달라진다. 조선시대에 대구는 사실 전국적인 명성을 누린 명승지를 소유하지 못하였다.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번화한 도시의 위상에 어울리는 멋진 명승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평양과 비교할 때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밀양이 영남루, 진주가 촉석루, 통영이 세병관을 갖고 있어 영남을 여행하는 이들이라면 꼭 들러 가는 형편과 비교가 된다. 교외에 팔공산과 동화사를 비롯한 명산과 명찰이 없지는 않으나 여행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정도는 아니다. 경주와 안동, 동래나 진주 등 대구보다 규모가 작은 영남의 도회지가 특색 있는 명승으로 여행자와 시인묵객의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다.

그런 탓인지 도회지 자체로서 대구를 흥미롭게 묘사한 옛사람은 드물다. 19세기 중반에 감사로 부임했던 해장(海藏) 신석우(申錫愚, 1805~1865) 같은 분은 그래서 눈에 뜨인다. 1년 반 정도 대구에 머물면서 영남 각지를 다니며 많은 시와 산문을 남겼다.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었던 그의 붓끝에서 19세기 중반 영남의 생생한 풍경이 되살아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 풍경 묘사가 그의 손을 빌려 재생된다.



‹여지도› 가운데 대구부(大邱府). 가운데로 1736년에 만들어진 읍성이 나타나 있고, 우측 상단쪽에 팔공산과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 표충사가 표시되어 있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대구와 영남을 속속들이 기록하다

해장은 철종 6년인 1855년 음력 11월 16일 부임길에 올랐다. 전임자는 송석(松石) 김학성(金學性)으로 그와 잘 아는 사이였다. 겨울철에 부임하여 몇 달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감영에서 세모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설과 보름을 지내고 나서 음력 2월 21일 드디어 도내 순찰을 시작하였다. ‹첫발을 디디며[首途記]›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글인데 남창(南倉)과 효령창(孝靈倉)을 목적지로 하여 가산산성(架山山城)에 도착한 과정을 적고 있다. 첫날 도착한 칠곡의 가산산성은 임진왜란 이후에 축조된 산성으로 해장은 ‹가산성기(架山城記)›를 지어 산성을 탐방하여 얻은 정보를 기록하였다. 큰 너럭바위인 가암(架巖)에서 풍악을 연주하고 주변을 조망하였는데 날이 맑으면 지리산도 보인다고 별장이 귀띔을 해주었다. 산성 일대는 현재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등산 코스의 하나이다. 가암은 가산바위라 하여 대구 시내가 환히 내려다보인다.

해장은 팔공산을 거쳐 군위로 넘어가 풍산과 안동, 진보, 경주, 울산, 부산, 밀양, 합천, 진주, 통영을 거쳐 대구로 돌아왔다. 가는 곳마다 명승에서 시를 짓고 산문을 남겼는데 유달리 산문을 많이 남겼다. 안동에서는 ‹영호루기(映湖樓記)›, 청하에서는 ‹보경사기(寶鏡寺記)›와 ‹내연산삼용추기(內延山三龍湫記)›, 경주에서는 ‹동경방고기(東京訪古記)›, 울산에서는 ‹반구대기(盤龜臺記)›, 동래에서는 ‹동래부기(東萊府記)›와 ‹역일본관기(歷日本館記)›, 통영에서는 ‹입통제영기(入統制營記)›와 ‹유한산도기(遊閑山島記)›를 남겼다. 그 밖에도 산문만 20여 편을 남겼는데 하나하나가 주목할 만하다. 자유롭게 여행한 문인이라 해도 영남 일대를 이렇게 풍부하게 기록한 이는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달서문 누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해장은 감사의 지위에 어울리는 장소를 많이 찾았다. 감영을 둘러싼 성곽에 자주 올라 도회지를 둘러보았는데 순성(巡城) 과정에서 창작한 시가 많은 이유는 그 때문이다. 대구 성곽은 영조 때인 1736년에 신축되어 구한말인 1906년에 헐렸다. 전주성과 함께 평지에 축조된 대표 성곽으로서 진동문(鎭東門)과 달서문(達西門), 영남제일문(嶺南第一門), 공북문(拱北門)의 4대문이 있었다. 대구처럼 큰 도회지치고는 성곽 신축이 상당히 늦었고 관련 기록도 매우 적다.

해장은 성곽에서 경내를 둘러보기를 즐겼다. 북쪽에 있는 공북문을 통해 달서문, 영남제일관, 진동문을 차례로 찾아 성곽을 한 바퀴 돌면서 풍경을 감상하였다. 정월 대보름날 달을 구경하러 올랐고, 늦여름에도 피서하기 위해 올랐으며, 가을날과 7월 칠석날에도 올라보면 도회지 풍경이 한 눈 아래 들어왔다. 달서문에 올라서 해장은 이런 시를 지었다.

> 달서문 누대에는 시장의 왁자한
> 소리가 많이 들려
> 오래도록 앉았으니 석양이 내려가네.
> 분홍빛 살구꽃은 대로에 흩날리고
> 분단장한 일행이 여장(女墻) 끼고 지나가네.
> 술 조심을 풀고서 좋은 술을 따라 놓고
> 풍속을 알고 싶어 들녘의 노래를 듣네.
> 이 시대의 태평을 백성들과 즐기려니
> 금호강의 봄 물결은 물결도 치지 않네.
> 達西樓臺市聲多
> 坐久其如返景何
> 紅杏飛緣官路墜
> 粉粧行挾女墻過
> 少寬禪戒斟廚
> 欲探民風聽野歌
> 此日昇平人共樂
> 琴江春水不生波

대신동으로 옮겨지기 전, 원래 자리인 시장북로에 있던 서문시장.

달서문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해장의 귀와 눈에는 시장의 왁자한 소란이 밀려온다. 그가 본 시장은 작은 시장이 아니다. 달서문 밖에 있는 서문시장으로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렸던 큰 장이다. 붉은 살구꽃도 바람에 흩날리고 몸단장한 여인들이 성벽을 따라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쑥 술 생각이 나서 술잔을 기울이자니 어디선가 민요가 들려온다. 짧은 한 편의 시에는 150년 전 달서문 주변의 왁자하면서도 고즈넉한 풍경이 묘사된다.

성곽 위에 오르면, 해장은 마치 자신이 중국 남방의 가장 번화한 도시 소주와 항주의 자사(刺史)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다. 사월 초파일 밤에는 달서문 서북쪽의 달성(達城)에 휘황하게 걸어놓은 등불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시구를 남기기도 하였다.

> 구경거리로서 달성(達城)보다
> 즐거운 것이 없나니
> 오늘밤 멋진 놀이는 영남에 온
> 뒤로 제일이네.
> 함께 온 한양 사람들에 묻노니
> 서울의 일만 개 등불과 비교해 어떠한가?
> 供觀無如達城歡
> 今夕淸遊最過嶺
> 寄語同來漢陽人
> 何如王城萬燈整

신숭겸과 박팽년을 기리다

대구 주변에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명승은 없다고 하나 해장은 찾아볼 만한 곳은 두루 탐방하였다. 그중 눈에 뜨이는 곳이 바로 고려 건국기의 명장이자 그의 조상인 신숭겸(申崇謙)의 유적이었다. 대구는 후삼국 시대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진훤(견훤을 해장은 진훤으로 읽어야 한다고 일부러 밝혀 놓았다.) 이 쟁투한 지역인데 팔공산이 바로 그 현장이었다. 진훤에게 쫓기던 왕건이 피하는 사이 신숭겸이 왕건의 복장을 입고 대신 죽어 건국공신으로 추대되었다. 그를 추모하여 팔공산 자락의 왕산(王山)에 표충사(表忠祠)가 세워졌고, 대구 앞산에는 은적암(隱迹庵)이 유적으로 남아 있었다. 표충사는 후에 표충서원으로 변모하여 조정에서 사액까지 받았다.

부임한 이듬해 2월 13일 해장은 유적들을 두루 찾아보고서 까마득한 후손으로서 유적을 돌아보는 감회를 시로 썼고, 자세한 과정을 〈알표충선원기(謁表忠先院記)〉라는 글로 남겼다. 대구 옛 지도에는 부인사 아래쪽에 표충사가 뚜렷하게 그려져 있어 이 지역의 상징적 고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해장이 찾은 고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조선 초 사육신의 하나인 박팽년의 유적이 있다. 계유정란으로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 그에 반기를 든 사육신과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박팽년의 어린 아들은 구사일생으로 영남으로 피신하여 혈육을 보존하였는데 그에 얽힌 사연은 대단히 유명하다. 후손들은 대구에 정착하여 달성군 하빈면 묘골에 집성촌을 이루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박팽년의 사당에 다른 사육신들까지 함께 모셔서 육신사(六臣祠)가 되었다. 그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태고정(太古亭)이다. 해장은 이임하던 해 윤5월에 박팽년의 후손 박해도(朴海濤)의 안내로 육신사에 들어 태고정에도 올라가 보고 감회를 읊었다. 또 후손가에 박팽년이 직접 그린 화첩이 있는 것을 보고서 부본을 만들기도 하였다. 해장은 〈제취금헌화(題醉琴軒畵)〉란 글을 지어 후손가를 찾아간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대구읍성 해체 못내 아쉬워

해장은 햇수로는 3년, 거의 1년 반을 대구에 머물렀다. 칠성암(七星巖)이란 6기의 고인돌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 이 바위는 1795년에 경상감사로 부임한 이태영(李泰永)이 일곱 아들의 이름을 나눠 새기며 후손의 번영을 기원하였다는 일화가 전하는 것인데 시를 지어 그 전설을 밝혀놓았다. 동화사를 비롯한 주변 사찰도 그가 자주 찾은 명승이다.

해장은 1857년 6월 28일 감사에서 파직되고 후임자인 조병준(趙秉駿)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파직당한 이유는 경상도 72개 고을 수령의 고과(考課)를 지나치게 후하게 했다는 탄핵을 받아서였다. 파직 사유가 특별하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감사 시절에 잘못한 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뒤끝은 좋지 못했으나 그가 대구에 머물 동안 다니며 보고 느낀 것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더구나 짧은 기간 머물렀으나 대구를 보고 그가 기록한 것은 분량도 적지 않고 기록물로서 의미도 작지 않다. 그가 찾아가 묘사하고 평가한 것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옛 모습을 충실히 간직한 것이 많다. 신숭겸이나 박팽년, 그리고 이태영의 숨결이 서린 유적과 산천과 사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대구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다만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머물렀던 감영과 성곽이 20세기 들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무척이나 아쉽다. 일제강점기 동안 대구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갔지만 그로부터 50년 전의 대구 풍경을 해장의 붓끝에서나마 찾아볼 수 있다. ■

〈서문시장〉, 1972년, 강위원

(왼쪽, 위) ‹서문시장›, 1983년, 강위원 / (왼쪽, 아래) ‹서문시장›, 1983년, 강위원

(오른쪽) ‹서문시장›, 1978년, 강위원

〈번개시장〉, 1979년, 강위원

〈서문시장〉, 1992년, 강위원

시장통에서 만난 '진짜 대구'

상인들은 다들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했다. 확실히 경기는 나쁘다. 하지만 17세기 이래 서문시장은 여전히 이 도시의 가장 큰 곳간이고, 약전골목이라 불리는 한국 첫 약령시에는 3대를 이어온 한약상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퇴, 또 후퇴했지만 염매시장이며 전후 신기루 같았던 '양키시장'도 색깔은 분명했다. 물건이, 구구절절 사연이, 구수한 사투리가 차고 넘치는 시장에서 노포(老鋪)들을 기웃거리며 옛이야기를 청했다.

글·최성우(보안여관 대표)
사진·박정훈

서울에 돌아와서도 진동은 찌릿하게 무르팍에 남아 있었다. 그 진동이 커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부채로 내 무릎을 툭툭 쳤다. 그것이 큰스님이 내려치는 천근의 죽비(竹篦) 같아서, 나는 매번 찌릿찌릿, 쿵, 쿵, 진동했다. 공문(空門)의 뜰 안을 울리는 것 같은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장사하러 나오는 거 아이다

"서문시장은 암것도 읍꼬, 펑지 마당 거치 돼있고. 금달래가 머리에 꽃 꼽고 춤추고 댕깃다. 아무나 앉으면 장이 되고, 좌판만 깔면 시장이 됐다 아이가. 인자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언제 가노 하고 있다. 휴… 나무관셈보살… 오래된 사람은 이제 마 잡아 가소."

서문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를 하고 계신, 명주 삼베 모시 도매점 대원상회의 주인 95세 김계분 할머니. 20대 초반의 새댁 때부터 당당하게, 거침없이, 또 한편으론 애달프게 평생을 시장과 함께 살아왔다. 선문답 같은 대화를 답답하게 쳐다보던 앞 점포 개풍상회의 장영기 대표가 거들고 나섰다. "우리 어무이 친구분이십니다. 우리 어른은 먼저 가시고, 이 어른은 자제분이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도 매일 이래 나오십니다. 장사요? 어데요.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할무이를 모셔 오고 모셔 가고 합니다."

그렇게 대원상회 주인장은 매일 점포를 연다. 식어버린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에게 시장 밖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서문시장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장터가 오늘에도 이어지는 흔치 않은 곳이다. 대구읍성의 남문인 달서문 밖에 있던 서문시장의 처음 이름은 대구장, 혹은 대구 큰장으로,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조선 3대 장으로 불렸다. 한양에서 부산 동래로 이어지던 영남대로의 한 거점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며 내륙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조정은 1601년 경상감영을 대구로 옮겼고 이후 대구장의 물자 교류 기능은 크게 활발해 졌다.

근대 들어서는 1915년 대구 최초의 염직물공장을 시작으로 잇달아 섬유 공장이 생겨나면서 그 물건들이 서문시장을 통해 전국은 물론 북간도, 서간도까지 팔려 나갔다. 일제가 도심에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해 1920년대에 천왕당지를 메워 지금의 위치로 옮겨왔지만 강경장이 군산의 개항과 철도 개통으로 쇠락하는 사이, 서문시장은 대구역을 오가는 철도와 주변의 13개 중소 향시(鄕市, 지방 장시)를 배후 세력 삼아 남한 최고의 장으로 성장하며 약령시와 함께 근대 상업 도시 대구를 견인한 거대한 축이었다.

김계분 할머니 다음으로 서문시장을 오래 지켜온 대동상회 주인 서기범 할아버지는 면직물이나 견직물 도소매 전문이다. 그는 호시절을 이렇게 증언했다.

"옛날에는 새벽같이 갈매기호 타고 온 서울 사람들 가게 문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물건을 해갔다. 비둘기호 말고, 갈매기호. 그게 지금으로 치면 KTX 같은 기라." 1960년대 후반의 이야기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뚫리고 교통이 점점 좋아지면서 부산 사람도, 호남 사람도, 전부 서울로 가고 지역 공장들도 서울 대규모 도매상들과 직거래를 시작했다.
섬유 경기가 사그라들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1만 개가 넘던 점포는 반으로 줄었다.

화재도 잦았다. 1951년 방화는 빼더라도, 1952년 화재로 4천여 점포가 소실되고, 해방 이후 1960년대에만 세 번이나 큰불이 났다. 1960년에는 2천여 점포가, 1967년에는 370여 점포가, 1968년에는 290여 점포가 불탔고, 1975년 화재는 1천9백여 점포를, 1976년 화재는 650여 점포를 태웠다. '불이 자꾸 불을 낸다'고 해서 3지구는 정부에서 아예 폐쇄시켰다. 가장 최근 2005년 화재는 1천여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원인은 대개 누전이나 담뱃불이었다. 화재로 재산을 몽땅 태워도 상인들은 잿더미 위에 주저앉는 대신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근처에 임시로 터를 잡아 다시 물건을 채워 넣고 장사를 이어갔다.

"보상이 어디 있노. 그때는 지금처럼 재래시장 지원 같은 것도 없고, 알아서 사는 거지."
우리가 시장을 찾아간 때는 연중 가장 바쁘다는 추석 대목,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오후 2시 무렵이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어깨가 부딪쳐 걸음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성시를 이루던 기억이 선명한 이들은 다들 "이건 시장도 아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문시장 1지구 한 곳의 상가번영회만 쳐도 그 규모가 다른 재래시장 전체 상인회보다도 클 만큼 여전히 이곳은 상인 3만여 명이 지키고 있는 대구 제1의 도매 시장이다.

없는 게 없던 도깨비시장, 전설의 순대 할머니

교동시장에서는 서울순대 주인장 이은주 할머니를 만났다. 서른다섯 나이에 청상이 되어 네 자식을 보란 듯이 키우기 위해 이 할머니는 금박 한복 차려 입은 다방 주인, 닭 모가지를 비틀었던 생닭집 사장, 왕십리해장국으로 유명했던 종업원 25명의 음식점, 또 구제품 땡처리 장사, '구르마' 끌던 아모레 주단학 화장품 판매왕을 거쳐 이제 '테레비'에 스무 번이나 나온 유명 순대집 사장이다. 할머니의 거침없는 입담에 넋을 놓고 흥을 맞추니, 쉬재고 뭐고 더 놀다가라고 붙잡으신다.

"지금은 여기가 먹자골목이지만 36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전부 한복집이고, 골목 중간중간에서 노점상이 소라나 김밥 같은 걸 팔았다. 구르마 끄십고 단속반한테 맞아가면서 장사했다. 지금은 소방도로가 나서 제법 넓어졌지만 그때는 좁은 골목이라, 골목. 지금은 우리 가게가 있는 여가 젤 중심이다."

서울순대에는 신화도 있다. "어느 날 사별한 남편이 꿈에 나와서 큰 통에 돼지 창자를 삶아주면서 '니는 이 장사해라' 카더라고. 그때는 대구에 순대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뱀이다. 구렁이다' 하면서 놀라기만 하고 사 먹지를 안 해. 그래가 다시 꿈에 매달렸지. 꿈을 꾸면 받아 적는다고 한 손에는 연필, 한 손에는 공책을 잡고 잤다."

혼자된 아내가 안쓰러웠던가, 남편은 다시 꿈에 나타나 방법을 일러줬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제야 손님이 몰렸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방송 출연도 숱하게 했다.

한복집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교동시장은 한국전쟁 중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거래되던 천막형 '양키시장'이 그 시작이었다. 단속반이 뜨면 물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순식간에 나타난다고 해서 '도깨비시장' 이라고도 불렀다. 다닥다닥 붙은 작은 점포지만 외제 물건이라면 없는 게 없었다. 교동시장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 1971년 무렵부터이다. 40여 년간 수입품 장사를 해온, 교동 2층 백화부 담배집 김광청 대표의 이야기.

"그때는 외국 사람을 무조건 양키라 불렀다. 외국 사람은 전부 미국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서문시장에서 못 구하는 외제 물건도 교동시장에선 다 구할 수 있었지. 경기 좋았지. 뭐, 지금이야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웬만한 제품은 다 구할 수 있는데 누가 여길 기웃거리나." 마진 10퍼센트 이상은 절대 안 남기고 돈이 급하면 원가로도 팔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다.

교동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동성로와 이어져있다. 동성로를 쭉 걷다가 몇 골목을 돌아서면 현대 상권과 전혀 다른 스케일의 재래 상권, 교동시장이 나타난다. 재래 상권이라지만 양키 골목, 의류 골목, 전자·컴퓨터 골목, 먹자 골목, 또 나중에 생긴 귀금속 골목 등 골목 별로 온갖 제품이 들어서 있는 조직적인 상권이다.

염매시장의 추억

성주건어물의 주인인 성송자 할머니는 56년째 염매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 지금 성주건어물 자리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 약령시에 장사하러 온 상인들이 묵던 '경인여관'이 있었다고 한다. 주인장은 "일곱 살 때 성주에서 맨발로 대구에 왔다" 고 했다. 비유가 아니라 성주에서 대구까지 오는 중에 신발이 떨어져 말 그대로 맨발로 걸어 왔다.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아는 집 양녀로 왔는데 공부는 안 시켜주고 고생만 하다가", 군인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염매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남편은 '동동구리무' 재료를 사서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고, 할머니는 양말이나 브로치, '난닝구' 같은 물건을 팔았다. 경기 좋던 그 시절에는 장이 하루에 다섯 번 섰다고 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도 많고, 노점도 많았고. 새벽엔 중국집 하던 화교들이 재료 사러 구미나 경산에서까지 오고,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근처 음식점 하는 사람들, 술집이나 기생집(춘앵각 등) 할마시들, 마담들, 고급 요릿집 주방장들이 장 보러 오고, 맨 나중에 주부들이 저녁 찬거리 사러 오고.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찡기가꼬 난리였지. 지금 여는 마 시장도 아이라. 그냥 뒷골목이나 한가지라.

요새는 엉망진창이 되가 마 이카고 있다. 동아쇼핑 생기기 전에 옛날 자리에 있을 때는 매상이 지금 열 배는 됐다. 생선 파는 집이 서른 군데, 포목전이 서른 군데쯤 됐고, 소금 장사도 있었다. 생닭 파는 데도 있었고."

그녀가 기억하는 염매시장은 1984년 동아쇼핑이 들어서기 전, 염매시장이 그 일대를 포함해 넓은 상권을 형성했던 때다. 최근에 삼성금융플라자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래 봐야 200미터 정도 골목에 떡, 생선, 과일, 죽, 채소 등을 파는 50여 개 가게와 식당이 전부라 그이 말대로 옛날에 비하면 시장도 아닌 형국이 돼버렸다. 다만 특이한 것은, 가을이 되면 건어물상도, 생선 가게도, 모두 송이를 판다는 점이다. 경상도 지역의 한약재가 바로 옆 골목 약령시로 모이듯 봉화 등지에서 나는 경북 지역 송이는 여전히 약전골목과 이어진 염매시장으로 들어온다. 한편 염매시장은 폐백이나 여러 잔치에 쓰는 떡을 주문하는 용도로 '이미테이션 떡'이 전국에서 처음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와 전통이 남겨준 비장의 콘텐츠

염매시장 뒤로는 350년 전통의 약령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재 시장으로 2001년 한국기네스위원회로부터 그 역사성을 인증받기도 했다. 1658년 한약재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대구읍성 북문 근처 객사에서 시작한 장시는 1908년 대구읍성이 해체되면서 지금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부를 쌓은 대구 상인들이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면서, 1941년에는 시장이 폐쇄되기도 했었다. 해방 후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또 폐지되는 등 몇 번의 부침은 있었지만 최초 약령시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지금도 3대에 걸쳐 운영되는 한약방이나 약재상이 꽤 된다. 약령시에서는 90년 전통의 중앙한약방 박신호 대표를 만났다.

"전국 한약재 40퍼센트가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약재들이 거의 대구 약령시로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약재 쌓아놓은 포대 위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중앙한약방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한약재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골목에 약재상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숍도 생기고 잡다한 가게들이 많지요.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산지에서 외지 사람들과 직거래를 하니까 옛날처럼은 안됩니다. 그게 흐름인데,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하지만 박 대표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1926년부터 3대째 이어온 집안의 역사가 그 자체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게임회사에서 해외 마케팅을 하다가 가업을 잇던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시 고향에 와서 보니, 3대째 축적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표는 한약방에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부터 바꿨다. 오는 손님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산후조리원을 모두 찾아 메일을 보내고 기업과 연계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특판 제휴를 시작했다. 약령시에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환약 반죽 재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조리원뿐 아니라 실버타운, 수험생 등 특화된 시장을 공략하고 약차, 약술, 효소, 공진당 등 진맥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적극 홍보해서 건강 제품 시장에 빼앗긴 한약방 손님도 되찾아올 생각이다.

"한창 때 500여 도매 약업사와 한약방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많이 쇠퇴한 게 사실이지만 들여다보면 오래된 한약방이나 약업사들마다 각자 전공 분야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저는 약령시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 거대한 생태계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심드렁하니 진공 같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동행한 이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김계분 할머니를 만나는 동안 나는 애써 그 눈길을 피했고 내내 울컥했다. 그이 눈에서, 여러 연유로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나를 키워주신 외할머니의 눈빛을 만난 까닭이다.

원고에는 반에 반에 반도 못 풀어낸 녹취 파일을 듣는 내내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내 시간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흐르는 시간, 그 세월이 빚어낸 그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문자로 번역할 일이 막막하다. 다른 노포들을 다니다 보면 그 시간대에 접속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닐수록 시장이라는 생태계는 점점 거대해질 뿐이었다. 애당초 시장 사용 설명서 따위가 있었을 리 없다. 그들 중 누구도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오지 않았다. 하루하루 생존의 좌판을 펼친 것뿐이었다. 그 위에서 삼베를 팔다가 '센베'도 팔고, 쑥떡을 팔다가 죽 장사를 하고, 포목점을 하다가 밥장사를 하고, 계란을 팔다가 도시락 반찬을 팔았다. 국수 팔던 광주리에 채소를 태산 같이 채우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뒤는커녕 앞도 못 보고 달린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다큐멘터리를 봤다. 내레이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ㅂ

‹피어오르다›, 강지호, 29×22cm, 종이에 아크릴.

서문시장 최고령 상인, 아흔다섯의 김계분 할머니를 만났다. 한참의 침묵 후에 차츰 말문을 여시니 한 세기의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어른은 오랜 세월의 먼지를 닦아 내듯 지나온 시간을 읊조리셨다. 세 번의 화재, 숱한 고비.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한 세기의 밀도가 휘몰아든다. 자식들 만류에도 노인의 발걸음은 매일 평생 지켜온 시장을 향한다. 작은 돌멩이를 단단한 기둥으로, 거친 삼베를 비단으로, 폐허를 꽃밭으로 바꿔온 강인함이 지금 그녀의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 왔으리라. 잠시 엿본 그 세월 앞에 삼가는 마음으로, 작은 도화지 위에 파편들을 모아 헌사의 마음을 전한다.
강지호(작가)

‹피어오르다›, 강지호, 29×22cm, 종이에 아크릴.

‹갓바위로 가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다›, 강지호, 29×22cm, 종이에 아크릴.

‹김계분 님›, 강지호, 22×29cm, 종이에 아크릴.

서문시장 돔배기(상어고기) / 서문시장 무명과 교동시장 사탕류 / 서문시장 대구포 / 서문시장 계피와 생강

포목으로 유명한 서문시장에서 무명 한 필과 삼베를 끊어다 보자기며 주머니를 만들었다. 꼭 무슨 날이 아니어도, 살다 보면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다. 평범한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고 주머니에 담아 문득 건네며 환한 웃음 한 번 보는 걸로 건조한 일상은 반짝 빛이 난다. 장 보는 내내 마음이 흐뭇했던 걸 보면 역시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설레는 일이다. 김정민(더스타일링그룹 대표)

종이 포일과 무명 주머니로 곱게 싼, 경상도 제사 음식이자 별미인 돔배기 / 볶은 대구포를 안주로 9천 원짜리 '만포 밥상'에 차린 술상 / 계피 두 개, 생강 한 줌 넣고 팔팔 끓인 건강차

스티로폼 박스 대신 나무 광주리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더 귀해진 송이 / 보온병에 담아 건네주는 한방차 / 빛깔 고운 삼베 주머니에 사과 몇 알을 담아 전하는 가을 인사

염매시장 송이버섯 / 약전골목 한약재(부처손, 황칠나무, 개똥쑥, 녹각) / 서문시장 천연 염색 삼베

‹자화상 I›, 이쾌대, 목판에 유채, 38×45.7cm.

시대를 앞서간 대체 불가의 거인

이쾌대 李快大

대중에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름 이쾌대는, 그러나 그림 분야에서는 분명한 거인이다. 최근 100년 내 배출된 한국 화가들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여겨지니 거인이라 할 수밖에 없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에서도 도드라지는 미술가라 자부해도 좋다.

글·최석태(미술평론가)
자료 제공·이한우

이쾌대. 1913년에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그는 성장기를 대구에서 보내고 경성과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다 한국전쟁이 일단락될 무렵 북쪽으로 간 특이한 이력의 화가다. 그가 오랫동안 거론되지 못한 것은 전후 한국 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이쾌대는 금기의 굴레에 갇힌 불운한 천재였다.

남한에서 활동한 짧은 시기 그가 남긴 그림자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의 자취는 짐작조차 어려운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쾌대의 월북으로 남한에 남겨졌던 그의 아내가, 남편의 중학생 때 습작부터 한창때 남긴 주요 작품은 물론, 포로수용소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까지, 거의 모든 유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쾌대의 아내 유갑봉 씨는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편의 흔적들을 지켜왔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월북 화가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전시회는 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능했다. 그동안 남편의 작품을 숨기다시피 하며 보관해오던 유 씨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틀을 떼어내고 쌓아두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작품이 서로 들러붙어서 제대로 떼어내고 화면을 되살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해금이 되었지만 조력의 손길은 없었다. 가족들은 손상된 작품들을 되살리는 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였다.

어렵게 공개된 이쾌대의 작품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막대한 스케일에 걸맞는 웅대한 구상, 등장 인물의 숫자나 기량 등은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화단 전체로 봐도 지난 100년 동안 견줄 이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통해 선보였고, 나라 밖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이다. 이런 놀라움을 안겨주는 거장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해방 공간, 이쾌대와 이여성이 있었다

이쾌대는 대구 북서쪽 칠곡군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창원군수를 지내기도 했던 그의 아버지는 집 주변에 교육기관과 예배당을 세우기도 한 반면, 본처 외에 8명의 첩을 둔 분방한 이로 칠곡뿐 아니라 대구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그 아래에서 자란 이쾌대는 특히 형 이여성으로부터 예술적 감수성은 물론 그 지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쾌대와 이여성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였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형제애는 적당한 연령 차이에서 드러나는 아기자기한 상태를 넘어 서로 일방적인 아낌과 존중이라는 매우 이상적인 상태를 보인다.

필자는 이중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그의 수많은 멘토 가운데 이여성의 영향력이 막대했으리라는 점을 꽤 힘주어 서술한 바 있다. 나중에 월북해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를 지낸 이여성은 독립운동가이면서 그림을 좋아한 사람이었다. 마치 안동 사람으로 대구를 거쳐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는 동시에 시 쓰기에 몰두했던 이육사와 흡사하다. 이여성은 아버지의 막대한 가산을 처분해 여운형의 활동 자금을 대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 대한 관심은 놀라운 수준의 역사화 그리기를 지나, 미술의 한 본령인 '옷과 치레'에 대한 저서로 발전했으며, 나아가 미술사 전반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사상가로서 경제학이나 민족해방론에 대한 다수의 저서도 남겼다. 이쾌대의 중학교 친구로 재헌의원을 지낸 이상돈은 이여성이 일제강점기에도 미래의 총리로 꼽힐 정도로 민족사회의 신망이 자자했던 이라고 증언했다.

통합을 염원하는 리얼리즘의 극치

도쿄경제대 서경석 교수는 이쾌대의 삶과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쾌대는 일제가 일으킨 전쟁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는 일본의 패전과 그에 따라 해방의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쾌대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해방 직전이나, 적어도 직후에 그려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쨌거나 뒤에 살펴볼 ‹군상›보다 명백히 앞서 그려졌음은 분명하다.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여러 면에서 문제작이다. 그린 이가 입은 옷과 배경은 물론, 붓을 든 손 모양과 붓의 종류도 남달라 눈길을 끈다. 여기에 화면 전체에 걸쳐 명암을 완전히 배제하다시피 한 처리는 이 그림을 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방 후 그려진 것이 확실한 작품들과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이쾌대의 그림은 해방 전후로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 불안을 품은 배경을 뒤로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군상›은 명백히 해방공간에서 그려졌다. 이 그림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과 달리 꽤 강한 명암법이 적용되었으며, 선의 역할도 없다시피 하다. 화가에게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단점은 이른바 모더니즘, 즉 현대주의 미술 사고의 단련을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런 한편, ‹군상 Ⅳ› 같은 그림은 폭발에 반응하는 한 무리 인간 군상을 표현하면서도 현실을 곧이곧대로 옮긴 것은 아니어서, 그가 곧이곧대로의 사실주의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이쾌대, 캔버스에 유채, 60×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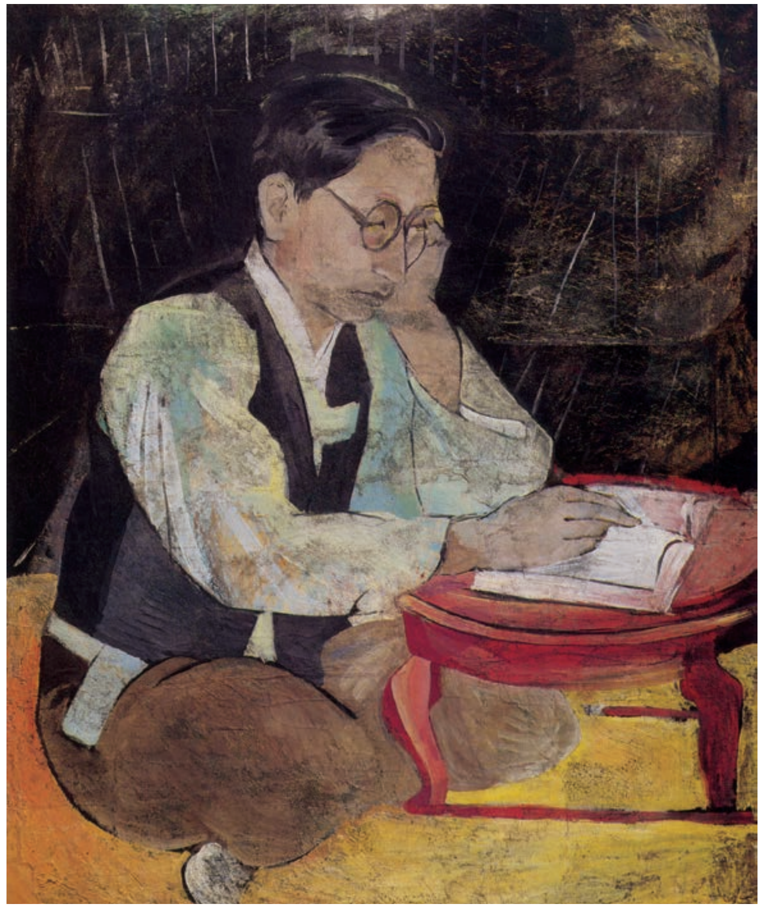
‹부녀도›, 이쾌대, 조선신미술가협회 창립전 출품, 60.7×73cm, 1941.

‹군상 I-해방고지›, 이쾌대, 캔버스에 유채, 178×217cm, 1948.

‹군상 Ⅳ›, 이쾌대, 캔버스에 유채, 216×177cm, 1948.

‹봉숭아›, 이쾌대, 캔버스에 유채, 39×53cm, 1949년 무렵.

가족사진. 맨 앞줄 왼쪽부터 유갑봉(부인), 이쾌대, 이미생(이여성의 차녀), 이한구(이여성의 장남), 윤정열(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 어머니). 그다음 줄 왼쪽부터 이호생(이여성의 장녀), 이경옥(아버지). 맨 뒷줄 두 사람은 박인애(형수), 이여성(형).



‹이여성›, 이쾌대, 캔버스에 유채, 72.8×90.8cm.

이쾌대와 부인 유갑봉.

이는 1948년 6월에 있었던 미군의 독도 폭격을 그린 ‹조난› 등을 통해 드러난다. 당시 독도에는 여러 척의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 해방군이라는 미군이 비행기로 총알을 퍼부었다. 이것이 '조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뒀던 이쾌대는 이 그림으로 비극의 축은 미국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넘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는 고발시가 아니라 서사시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다.

서경석 교수는 이쾌대의 이 대작에서 일찍이 유럽에서 명성을 얻고 돌아와 일본 화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후지타'라는 화가의 그림자를 확인한다. 후지타가 유럽에서 동양적 유화를 선보이고 돌아왔을 때 그를 접한 이쾌대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옳은 지적이다.

한편 이쾌대가 일제강점기 말, 이른바 암흑기에 새로운 미술가 모임이라는 뜻의 '조선신미술가협회'를 만들었을 때, 그가 가장 믿은 후배이자 동료는 이중섭이었다. 이중섭에게 이쾌대는 한국 문화재를 수집했던 자신의 형, 초기 미술 유학생이었던 김찬영(친구 김병기의 아버지),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난 스승 임용련에 이은 영원한 멘토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쾌대를 만나 이여성, 고유섭 같은 한국 미술사의 거두들과 이어졌고, 여기에 이르러 이중섭의 미술은 꽃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는, 얼마나 높이 날았을까?

이쾌대의 자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중섭 말고도 많다. 제자이면서 대학 후배가 된 불세출의 조각가 권진규도 그런 이였고, 이중섭을 만나 급진적으로 발전한 박수근 뒤에도 이쾌대로부터 받은 감화가 도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만화가, 서적 삽화가들이 해방 후 본격화된 출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도 정현웅과 더불어 이쾌대가 그 뒤에 있었다.

이렇듯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쾌대는 왜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될 시점에 해방공간의 가족이 아닌 북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이쾌대가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가족에게 거듭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두 번째 편지에서 답장을 바란다고 적었지만, 서울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당시 이른바 월북자나 부역자 가족으로 찍힌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쾌대가 수복 과정에서 북쪽으로 가려한 데에는 그가 좌익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임종을 앞둔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있던 이쾌대는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된 사람들을 후퇴하던 남한 정부와 경찰이 처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승만의 방송을 믿고 남아 있다가 적 치하에서 강요된 부역에 응한 이들도 수복 후 다 처벌받았다. 여운형도 죽고 단독 정부 수립 반대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으로 갔던 형 이여성이 김일성대학 사학과 강좌장과 고위직을 거친 상황이었다. 이쾌대는 생존을 위해 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포로 신세가 된 그는 가족들이 편지에 답장이 없자 거센 폭격이나 앙갚음으로 다 죽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포로수용소에서 그의 그림에 반한 미군 소장이 물감 등을 사라며 거듭 외출을 허용해 줬을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이쾌대가 거제포로수용소에서 마침내 북을 선택한 데에는 이런 절망스러운 이유가 있었다.

훌쩍 날아가 버린 새처럼 이쾌대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은 흔적이 진해서 우리는 일부, 그 생의 전반기를 볼 수 있다. 그가 삶의 나머지 반 동안 만든 많지 않은 작업들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나무로 읽는 대구의 역사

덥다고 불평하지도 춥다고 엄살떨지도 않고 누백 년 침묵하며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는, 그것이 동네 어귀의 흔한 정자목이든 온 마을을 떠받을 듯 웅장한 당산목이든, 숨 가쁘게 사는 인간들에게 세속의 번다함을 잊고 잠시나마 제 그늘 아래서 쉬어 가라고 다독인다. 평상심의 한가운데로, 이따금 마른 잎 한 장 팔랑이며 떨어지는 소리에 잠시 침묵을 허물며, 나무가 들려주는 대구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글 · 강판권 / 쥐똥나무
(계명대 사학과 교수)
사진 · 박정훈

대구에는 구석기부터 사람이 살았지만, 그중에서도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에 위치한 달성공원은 대구 역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공원의 중요성은 그것이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달성공원의 유구한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부터 대구의 중심지였던 이 공원 안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토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토성은 관리 소홀 등으로 상당 부분 훼손돼, 지금은 달성공원을 찾더라도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알아차리는 이가 드물다. 더불어 대구 시민들에게 달성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곳이 대구 역사의 출발점과도 같은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그 사적으로서의 가치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달성공원의 역사적 가치는 단순히 토성에 석축을 더한 성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이처럼 인문 생태와 자연 생태가 조화를 이루며 남아 있는 곳이 드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즉 달성공원은 대구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대구의 심장에서 역사를 만나다 —
달성공원 회화나무(서침나무)

달성공원의 자연 생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나무들이다. 하늘에서 달성공원을 내려다보면 대구를 둘러싼 산을 제외하고는 달성공원이 대구 유일의 '생태 문화 숲'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것도 울창한 숲이다. 많은 대구 노인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사슴을 비롯한 각종 동물 덕분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나무 덕분이다.

나는 달성공원처럼 인문 생태와 자연 생태를 골고루 갖춘 공간이야말로 최고의 '복지 생태' 공간이라 생각한다. 달성공원과 같은 복지 생태 공간이 대표적인 선진국형 복지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한 그 자체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달성공원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 특별한 것을 꼽으라면 콩과의 회화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공원 중앙의 낮은 언덕에 살고 있는 이 회화나무는 멀리서도 돋보일 만큼 키가 크다. 다른 나무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굳이 이 나무를 꼽는 것은 그것이 일명 '서침(徐沈)나무'로 불릴 만큼 남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회화나무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사(士)'의 무덤에 심었기 때문에 '학자수(學者樹)'라 불렀다. 달성공원 회화나무를 '서침나무'로 명명한 것 또한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구계(龜溪) 서침(徐沈, ?~?)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서침은 조선 시대 대구의 대표적인 선비였다. 내가 그를 대구의 대표 선비로 평가하는 것은 세종 때 나라에서 자신 소유의 달성공원 땅을 요구하자 주민들의 세금 감면을 조건으로 흔쾌히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략 300살 정도의 달성공원 회화나무는 서침의 선비 정신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대구 선비 정신의 표상이기도 하다. 무릇 선비 정신의 핵심은 서침과 같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과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솔선수범이다.

그러나, 베어버릴 수 없는 슬픈 역사 —
달성공원 가이즈카향나무

서침나무가 대구의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측백나뭇과의 가이즈카향나무는 대구의 슬픈 역사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달성공원 정문에 들어서면 맞은편 정면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純宗, 1874~1926)과 조선 식민지 정책을 주도한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1841~1909)이 심은 두 그루의 가이즈카향나무가 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901년 1월 7일 서울을 출발한 순종은 그날 오후 대구역에 도착했지만 북성로와 경상감영만 방문한 채 바로 부산으로 떠났다. 당시 순종의 대구 방문은 을사늑약과 군대 해산으로 고조된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전국 순방의 일환이었다. 이후 12일에 각 학교의 집합운동을 순람(巡覽)하기 위해 다시 대구를 찾은 순종은 이등방문과 함께 각각 가마를 타고 북성로와 수창로를 거쳐 달성공원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공원 방문 기념으로 각자 한 그루씩 가이즈카향나무를 심었다.

현재 달성공원의 가이즈카향나무는 170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문을 등지고 왼쪽에 있는 가이즈카향나무는 순종이, 오른쪽에 있는 가이즈카향나무는 이등박문이 심은 기념식수로 짐작된다. 방문 기념으로 하필 가이즈카향나무를 심은 것은 아마도 이등방문의 직접적인 제안이거나 이등방문의 의중을 헤아린 누군가의 선택일 것이다. 패총(貝塚), 즉 가이즈카라는 이 나무의 이름은 일본 오사카의 지명이기도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만을 원산지로 알고 있지만, 이 나무의 학명(Juniperus chinensis var. kaizuka Hort)에서 드러나듯 중국도 원산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문화 유적지에는 낙우송과의 금송과 함께 일본의 잔재 중 하나인 가이즈카향나무가 아주 많이 살고 있어서, 이 나무들에 대한 제거론자와 유지론자 사이의 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지만, 이제는 결국 우리의 가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문화 유적이나 정신문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로 판단해 남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달성공원 내의 가이즈카향나무는 한국에서도 아주 보기 드물 만큼 나이가 많아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높이 8미터에 그 위용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겉보다는 반드시 공원 안에서 봐야 한다.

한국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

문화재를 포함한 어떤 것이든 제1호의 의미는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중 제1호가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구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 중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鮑石亭址), 중요민속자료 제1호 덕온공주 당의(德溫公主唐衣) 등은 기억하면서도 천연기념물 제1호가 대구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은 1962년 지정 당시에는 '달성의 측백수림'이었으나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천연기념물을 측백나무 '숲'으로 부르는 것은 높이 5~7미터의 측백나무 7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중국 원산의 측백나무가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점과, 대구가 측백나무 생장의 남방한계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늘 푸른 큰 키 측백나무 가운데 독립수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는 없다. 그래서 대구 측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양, 안동, 영양 세 곳의 측백나무숲과 더불어 그 학술 가치가 아주 높다. 그러나 한국의 천연기념물 측백나무숲은 모두 바위 절벽에 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더욱이 도동 측백나무숲은 대구가 낳은 조선 전기 문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꼽은 달성 10경 가운데 6경에 들 만큼 아름다운 명승지였지만, 지금은 오랜 세월의 부침과 부실한 보존으로 크게 훼손된 상태다.

측백나무는 중국 주나라 시절 제후의 무덤에 심었던 유래 때문에 조상들의 무덤은 물론 의미 있는 역사 공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중국 춘추시대의 대사상가 공자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라는 논어 구절을 통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 유배 시절 제자 이상적에게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선물한 것도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킨 고마움을 공자의 말씀을 빌려 전한 것이다.

임 향한 일편단심 배롱나무—
표충단 신숭겸 장군 나무

부처꽃과의 갈잎 중간 키 배롱나무는 백 일 동안 꽃이 피어서 붙여진 '백일홍'의 한국식 이름이며, 북극성을 의미하는 '자미화'라고도 불렀다. 그런 상징성으로 인해 중국의 경우 황제가 근무하는 곳에 심었으며, 한국에서도 궁궐과 관청에 많이 심었다. 특히 배롱나무의 붉은 꽃과 껍질이 없는 줄기는 일편단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한국 어디든 일편단심을 기리는 조상과 서원의 사당 앞에는 어김없이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구시 동구 지묘동의 신숭겸 장군 유적지 중 표충단 주위에 있는 약 400살 정도의 배롱나무 다섯 그루는 전국의 배롱나무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이곳의 배롱나무는 후삼국시대 주군인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숭겸 장군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심은 것이다. 전국 어느 유적지에도 표충단처럼 수령 400년 정도의 배롱나무 다섯 그루가 한곳에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 만큼 귀한 수목이지만, 대구시에서는 아직도 이곳의 배롱나무를 공식 보호수로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배롱나무가 꽃을 활짝 피울 때면 예비부부들이 이곳을 찾는다. 벌써 이곳은 대구의 웨딩촬영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표충단을 찾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일편단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이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는 배롱나무는 성스러운 존재이다. 부디 이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비부부들은 신숭겸처럼 숭고한 정신으로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이웃도 아끼고 보듬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란다. 나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꽃이 떨어진 배롱나무도 한없이 아끼듯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경과 존중으로 바라볼 때 완성된다.

표충단 배롱나무의 앞날은 대구 시민들의 사랑에 달려 있다. 시민들의 사랑으로 자라는 배롱나무는 언제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반길 것이다. 배롱나무꽃이 뚝뚝 떨어지는 날 표충단을 찾으면, 신숭겸 장군의 붉은 영혼을 통해 몸속 가득한 자신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ㅂ

대구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 달성공원

Москва

Умом Россию не понять,
Аршином общим не измерить:
У ней особенная стать -
В Россию можно только верить.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평범한 자로 잴 수도 없다.
러시아는 평범하지 않은 나라 -
이 나라는 오직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 시인, 표도르 튜체프 (Фёдор Тютчев, 1803~1873)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땅

글 · 손요한(«플래텀» 편집인), 일러스트레이션 · 최진영

수도 모스크바로 들어가는 관문인 셰레메티에보 국제공항. 비행기에 내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입국 심사대 직원들의 경직된 표정이다. 이건 흔히 짐작하듯 사회주의의 흔적도, 여타 국가에 비해 내전과 테러가 빈번한 상황 때문도 아니다. 그 표정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낯을 가리는 러시아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러시아인들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민족이 아니다. 무뚝뚝한 표정을 지적하면 그들은 이런 유머를 들려줄 것이다. '러시아인이 거리에서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은 대부분 전날에 과음을 했기 때문.'이라고.

첫인상과 달리 러시아인들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누구보다 열정적이며, 특히 매우 독특한 유머 감각을 지닌 민족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행사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유머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만담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혹은 2인의 코미디는 TV에서도 인기가 높다. 내용 또한 신랄하고 직설적이다. 사회주의의 오류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를 냉소하는 유머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보드카 문화는 단골 소재이다. 제구실을 못 하는 언론도, 터무니없이 싼 임금도, 기능만 고려할 뿐 효율은 뒷전인 문화도 죄다 유머에 녹아든다.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러시아에서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불편해서, 장모에게 구박받은 사위들의 한풀이용 유머도 많다. 어쩌면 풍자와 해학은 20세기 초 혁명 후 지금까지 드라마틱한 역사의 고비마다 이 나라 사람들을 위로해 온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린 공산당원의 꿈

옛 동독 수상 에리히 호네커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호네커와 함께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후, 고르바초프는 옆에 있던 어린 공산 당원에게 물었다.
"너의 어머니가 누구지?"
"조국 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바로 고르바초프 서기장님이시죠."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련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호네커는 동독에서도 이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다.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한 것이다. 호네커는 고르바초프와 함께 공식 행사를 마친 뒤 옆에 있던 어린 공산당원에게 질문을 했다.
"너의 어머니가 누구지?"
"조국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바로 호네커 수상님이시죠."
호네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이었다.
"그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싶으니?"
"고아가 되고 싶습니다!"

러시아 남자의 소원

러시아인, 독일인, 미국인이 난파를 당한 뒤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었다. 배가 고팠던 이들은 낚시를 하게 되고 우연찮게도 황금 물고기를 낚았다. 위기에 처한 물고기가 애원을 했다.
"나를 살려주면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 줄게요!"
미국인이 소원을 빌었다.
"돈과 함께 나를 고향으로 보내 주게."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위스키 한 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독일인도 소원을 말했다.
"절세미인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 주게."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인이 소원을 말했다.
"보드카 한 상자와 아까 고향으로돌아간 두 친구를 다시 이 배로 보내 주시오!"

낙서에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

레닌이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레닌 바보" 레닌은 낙서한 자본가에 대해 혁명을 일으켰다.
스탈린이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스탈린 바보" 스탈린은 청소책임자를 처형했다.
흐루쇼프가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흐루쇼프 바보" 흐루쇼프는 스탈린에게 책임을 돌렸다.
브레즈네프가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브레즈네프 바보" 브레즈네프는 화장실을 폐쇄했다.
안드로포프가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안드로포프 바보" 안드로포프는 화장실 낙서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죽었다.
체르넨코가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체르넨코 바보" 체르넨코도 화장실 낙서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죽었다.
고르바초프가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고르바초프 바보"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에게 낙서를 보여주었다.
옐친이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옐친 바보" 옐친은 취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푸틴이 크렘린의 화장실에 들어가니 이런 낙서가 있었다. "푸틴 바보" 푸틴은 '푸틴'이라고 적힌 부분을 '부시'라고 고치고 화장실을 나왔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세 명의 영국 여행자가 모스크바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첫 번째 여행자가 주문을 했다.
"쇠고기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해주시고 후추 소스를 곁들여 주세요. 구운 포테이토도 잘 커팅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여행자도 주문을 했다.
"송아지 고기 튀김으로 주세요. 야채도 함께 버무려 주시고요."
세 번째 여행자는 이렇게 주문했다.
"훈제 쇠고기를 주세요. 고기는 웰던 말고 레어로 해주세요. 야채도 함께 주시고요."
주문을 받아 적은 웨이터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고기 요리 세 접시!"

옐친 최대의 업적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70년 동안 그토록 강조했지만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던 과업을 옐친은 단지 자신의 재임 시절 몇 년 만에 이루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답: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것.

어떤 기다림

우주 비행사를 아버지로 둔 아이가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 계시니?"
"아니요. 아버진 지금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셔서 1주일 뒤에 오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계시니?"
"아니요. 어머닌 지금 배급 받으러 가셔서 줄을 서 계시니까 오시려면 2주일은 더 걸려요."

장모님용 사과

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좌판 한쪽에는 '일반 선물용 사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모 선물용 사과'라는 팻말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
지나가던 남자가 물었다.
"장모 선물용 사과는 뭐요?"
"이 사과는 체르노빌산(産)입니다."
남자는 냉큼 돈을 꺼내 장모 선물용 사과를 샀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남성들이 몰려 '장모 선물용 사과'는 금세 다 팔려버렸다.

고르바초프를 향한 그들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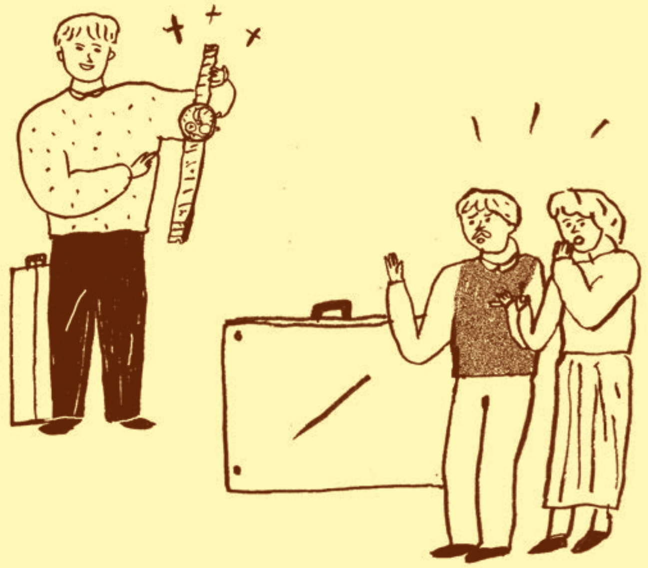
고르바초프 재임 시절 개혁 개방으로
혼란을 겪던 시민들은 늘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길고 긴 줄을 서야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줄이 줄어들지 않자
화가 난 모스크바 시민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게 다 고르비
탓이야. 내 그놈을 죽이러 가려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벌써 다녀왔네. 그쪽 줄은
두 배는 더 길다네."

친절한 모스크바 경찰

모스크바를 찾은 영국 여행자가
볼일이 급해져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 어디에도 공중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다소 지저분한
골목 옆에서 볼일을 보려는데 그때
모스크바 경찰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소?"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보이질 않네요."
"나를 따라오시오."
경찰은 여행자를 매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꽃들이 곱게 피어 있고 잔디도 관리가
잘된 곳이었다. 경찰은 그곳에서
일을 보라고 말했다. 여행자는 급한
일을 해결한 뒤 경찰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이것이 모스크바의 친절이군요!
그나저나 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요?"
경찰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영국 대사관이라오."

'진실'과 '뉴스'는 매진

모스크바를 방문한 어느 외국인이
신문 가판대에 갔다.
"‹프라브다›(진실이라는 뜻의 신문)
한 부 주시오."
"러시아에는 프라브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에츠 카야 라씨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의 신문)
한 부 주시오."
"소비에츠카야 라씨야는 망했어요."
"‹이즈베스치야›
(뉴스라는 뜻의 신문)는요?"
"이즈베스치야는 며칠 전 거예요."
화가 난 외국인이 따져 물었다.
"그럼 도대체 있는 게 뭐요?"
가판대 점원은 심드렁하게 말을 했다.
"트루드(노동)는 하나 있네요.
2코페이카 입니다."
(일당이 2코페이카로, 노동의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의미.)



성능만 좋으면 돼

어느 폴란드인이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향하면서
두 개의 큰 짐가방을 들고 왔다. 하나는
여행을 떠날 때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행을 하면서 새로 생긴 것이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번쩍이는 시계를
꺼내놓고 입을 열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러시아 최첨단
과학 기술로 만든 시계를 사왔어.
기능이 정말 놀라워.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위성을
연결해서 여러 도시의 날씨도 알려주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의료 기능도 있어.
심지어 달의 움직임조차 알 수 있다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아!"
얘기를 듣던 가족들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멋진 시계네요. 그나저나 가방이
하나 늘었던데, 그 가방에는 뭐가 있나요?"
"(가방 전부가) 이 시계 배터리."

숫자로 보는 러시아와 모스크바

일러스트레이션·최진영

17,098,242km²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

145,000,000명

인구 규모는 세계 9위

60세 73세

러시아인 평균 수명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러시아. 출생 성비는 남녀가 비슷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낮아 인구 전체로 보면 여성이 16% 정도 많다. 2012년 기준, 러시아 전체 인구 중 14세 미만은 16.2%, 노동 인구(남 16-59세, 여 16~54세)는 61.5%, 노령 인구(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는 22.3%로 러시아는 젊다!

출처: 러시아연방 통계청 www.gks.ru

러시아 사람들의 이혼사유

2012년 기준, 러시아에서는 1,316,000명이 결혼했고, 669,400명이 이혼했다. 누적 수치로 보면 결혼 인구의 75%가 이혼으로 마무리 되며 그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뒤 헤어지는 부부도 10%를 차지한다. 푸틴 대통령도 올해 6월, 이혼을 발표했다. 결혼한 이들의 48%는 아이가 없고, 출산 여성의 30%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출산율 감소에 대해 여성들의 31%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꼽는다.

출처: 전러시아여론조사기관 (VTsIOM), 2012

52%

배우자의 외도

45%

과도한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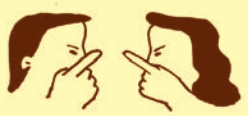
38%

폭력

28%

자녀에 대한 무관심

28%



배우자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러시아 대학생의 뇌물에 관한 생각들

68%

교수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

55%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39%

학점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러시아 대학생 68%는 성적을 위해 교수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25%는 대학에서는 그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뇌물을 제공한 학생들 가운데 71%는 점수가 올랐고, 23%는 낙제를 면했다. 뇌물 액수는 모스크바의 경우 평균 3,300루블(약 10만 원), 페테르부르크는 5100루블(약 16만 8천 원), 지방은 1300루블(약 4만 3천 원).

출처: CAREER.RU, 2011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출처: 전러시아여론조사기관 (VTsIOM), 2013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국의 위험 요소

46%

금융 위기

33%

테러, 음주 등 사회적인 도덕성 결핍

27%

대규모 실업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출처: Levada Center, 2013

75%

양육 거부

64%

자살

62%

동성애

52%

인간 복제

모스크바 생활

1,880,000원

모스크바 근로자들의 월 평균 급여

930,000원

모스크바 원룸 월 평균 임대료

13,000,000,000원

모스크바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600m²)

78명

모스크바 거주 억만장자

35%

상위 110명 재산이 러시아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스크바 거주 억만장자는 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서울은 23명으로 8위). 이들은 주로 '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중후반 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나온 국영 기업들을 사들인 사람들'로 요약되는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들로, 석유, 가스, 광물 등을 통해 급성장했다. 이들을 포함, 러시아는 상위 110명의 부자가 러시아 개인 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Forbes› 2013, Global Wealth Report 2013

어떤 영화사보다 비통한, 그러나
어떤 역사보다 더 먼 미래를 전망하는, 러시아 영화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모든 예술 중 가장 중요한 예술"은 영화였다. 레닌은 "영화가 선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었고 1919년 모스크바에 세계 최초로 영화학교(현 모스크바 국립영화대학, VIGK)를 세웠다. 이후 오랫동안 다른 모든 예술과 더불어 영화는 국가의 소유물이었다. 주목할 것은, 그 무시무시한 세월 속에서도 누군가들은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정성일(영화평론가·감독)

어림도 없는 소리! 러시아 영화사를 그저 한눈으로 흘깃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영화평론가 12명의 사도를 이끌고 와도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영화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고 기구한 사연으로 점철되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체제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걸작들을 수 없이 만들어냈다. 우리는 여기가 체호프와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의 나라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러시아 영화의 첫 번째 감독은 레닌이다. 그건 독일 영화의 첫 번째 감독이 히틀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레닌은 문맹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인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보다 더 좋은 선전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지도자 레닌의 머릿속에서 상영되었던 상상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영화가 발명되어야만 했다.

신세계 건설의 최전선에서

먼저 위대한 스승 레프 쿨레쇼프(Lev V. Kuleshov, 1899~1970)가 있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화는 19세기 부르주아들의 어떤 문화유산도 필요 없는 새로운 과학의 승리라는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변증법과 예술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그는 혁명이 진행 중인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주변에 몰려든 제자들과 수없는 실험을 반복했다. 그들은 몽타주를 발명했다. '새[鳥]와 입[口]을 합치자 울기 시작한다[鳴]'는 그 유명한 명제가 만들어졌다. 모든 이미지는 혁명이며, 숏은 투쟁이고, '씬'은 새로운 건설이며, 영화는 새로운 세계가 되어야 했다.

제자 가운데에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Sergei M. Eisenstein, 1898~1948)은 그중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채플린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인간. 제임스 조이스와 문학을 토론하고, 프로이트를 만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서방 세계를 방문했을 때 피카소가 만나기를 자청했던 예술가. 그가 스물다섯 살에 자신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전함 포템킨›(1925)의 오데사 계단 장면은 단번에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혁명의 군대를 맞이하는 시민들. 갑자기 나타난 코사크병들. 무자비한 탄압. 계단 아래로 도망치며 죽어가는 시민들. 굴러 떨어지는 유모차.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항의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어머니. 마치 기계톱날처럼 정확하게 물려가면서 증오와 분노, 슬픔, 그리고 혁명의 흥분을 순식간에 불러일으키는 이 장면을 본 영화사의 대가 조르주 사둘은 "영화사를 바꾼 순간"이라고 극찬했다.

이 영화와 함께 '10월 혁명을 기념하는 열 개의 사건들' 중 하나로 만들어진 프세볼로트 푸도프킨(Vsevolod Pudovkin, 1893~1953)의 ‹어머니›(1926)는 막심 고리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겼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혁명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려낸 이 영화의 마지막, 붉은 깃발을 쳐드는 순간은 전 세계에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을 확신에 차 호소한 장면이었다.

아름답거나 혹은 무시무시하거나

로고스의 혁명, 파토스의 혁명. 두 개의 혁명 곁에 세 번째 혁명이 있다. 알렉산드르 도브첸코(Alexander Dovzhenko, 1894~1956)는 혁명을 시로 승화시켰다. 혁명은 공장과 도시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모스크바에서 혁명을 바라본 도브첸코는 고향 우크라이나에 돌아가 ‹대지› (1930)를 만들었다. 농부들은 새로운 혁명의 기운을 느끼지만 지주들은 불안에 차서 그들을 위협한다. 새로운 희망을 전하던 당 마을위원회의 젊은 지도자를 암살하지만 그의 희생은 더 많은 농부들을 단결시킬 뿐이었다.

도브첸코는 여기서 자신의 주인공을 대지 그 자체로 만든다.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햇살에 익어가는 과일들, 밀밭을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 마치 내려앉는 것만 같은 구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대지의 공기. 그 안에서 젊은 혁명이 태어나고 있다. 도브첸코는 이 대지 위에 서야 할 미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고 노래한다. 차라리 이 영화는 혁명의 관능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전함 포템킨› (1965,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스탈린은 치열한 당내 투쟁 끝에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문예 노선의 변경을 단행했다. 에이젠 슈테인은 형식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아비판을 요구받았고 도브첸코는 민족 분열을 야기하는 분파주의자로 공격당했다. 수많은 영화감독들이 선전 선동 영화에 동원되었다. 혁명의 열기는 식었고 무시무시한 숙청과 고발이 이어졌다. 붉은 광장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더 나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히틀러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였고 겨울궁전의 전술은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다음 근대화 정책은 모든 인민을 경제 투쟁에 동원시켰다. 모든 영화는 검열당했고, 예술가들은 침묵을 강요 당했다. 강제수용소의 계절. 잘 알려진 (솔제니친의) 수많은 이반 데니소비치(들)의 하루.

‹대지›(1930, 알렉산드르 도브첸코)

짧은 봄, 긴 겨울

모든 것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yov, 1894~1971)는 서방 세계와 교역을 시작할 필요를 느꼈다. 냉전이 끝나진 않았지만 예술가들의 해외 방문도 차례로 허락되었다. 예브게니 므라빈스키(Yevgeny A. Mravinsky, 1903~1988)가 1956년 레닌그라드 필하모니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공연을 했을 때 철의 장막 저편의 예술은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베일 속에 가려져있던 스뱌토슬라프 리흐테르(Sviatoslav T. Richter, 1915~1997)의 1958년 소피아 공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Andrei A. Tarkovsky, 1932~1986)는 그의 첫 번째 영화 ‹이반의 소년시절›(1963)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장-폴 사르트르는 "시적인 리얼리즘의 탄생"이라고 격찬했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Sergei Parajanov, 1924~1990)는 ‹잊혀진 선현의 그림자들›(1964)로 14개 영화제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영화의 탄생. 조지아 지방의 오랜 민담을 따라가면서 카메라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야기는 자유자재로 펼쳐지며 민요가 신비롭고도 비통스럽게 불려졌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Andrei S. Konchalovsky, 1937~)는 ‹첫 번째 선생›으로 스탈린 시대를 고통스럽게 자문했다. "우리들의 봄은 이제야 겨우 왔는가." 그러나 그들은 너무 일찍 자유를 노래했다. 1968년 8월 20일, 위성국가였던 체코의 '프라하의 봄'은 끝났다. 탱크로 광장을 점령하고 무자비한 숙청이 다시 시작되었다. 타르콥스키는 가까스로 영화를 만들어나갔지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어느 날 내가 총살당하는 꿈을 꾸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다시 아침을 맞이했다."

파라자노프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되어 4년의 수감 끝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서 구걸을 했다. 그는 밤에는 시나리오를 쓰고 낮에는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양탄자를 짜면서 하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안드레이 콘찰롭스키는 결국 서방 세계로 망명했다.

‹이반의 소년시절›(1963,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잊혀진 선현의 그림자들›(1964,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페레스트로이카, 보물창고는 열렸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 타르콥스키는 ‹노스탈지아›(1983)를 찍기 위해 이탈리아에 나갔다가 귀국을 금지당하고, 스위스의 작은 섬에서 다음 영화 ‹희생›(1986)을 찍다가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편집 중에 심장병으로 죽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토록 보고싶어 했던 "아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는 자막이 떠오른다. 파라자노프는 가까스로 복귀하여 고향 아르메니아에서 ‹수람요새의 전설›(1984)과 ‹아쉬크 케리프›(1988)를 찍고 폐암으로 죽었다. 그때 그는 23편의 영화제작 계획과 감옥에서 쓴 231편의 시나리오와 거리에서 만든 780여 점의 양탄자를 갖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안드레이 콘찰롭스키는 할리우드에서 그저 그런 감독이 되어갔다.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희생자였다.

‹희생›(1986,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갑자기 찾아온 '개방'은 그동안 비밀 경찰의 창고 속에 갇혀있던 영화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서방 세계의 영화제은 이것을 '페레스트로이카의 보물창고'라고 불렀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슬픈 보물창고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은 비탈리 카네브스키(Vitali Y. Kanevsky, 1935~)의 ‹얼지 마 죽지 마 부활할 거야›(1990)일 것이다. 1966년 모스크바 국립영화학교(VIGK)를 다니다가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8년 동안 유배를 당한 이후 1977년에야 가까스로 졸업했지만, 카네브스키는 그 후에도 계속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페레스트로이카로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이 유배당한 극동 지역 강제수용소에서 남몰래 재빨리 완성한 이 영화는 가까스로 구한 낡은 필름으로 인해 마치 창고에서 건져낸 영화처럼 화면에 종종 비가 내리고 때로 현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오히려 고통받은 한 영혼에 대한 기록처럼 비친다. 마치 갉아먹힌듯한 화면들. 앙상한 빛. 어떤 연민도 없고 어떤 탄식도 없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차갑게 진행되는 이 영화에는 단 한 조각의 희망도 없다. 그건 마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에 대한 어두운 예언처럼 보인다.

‹얼지 마 죽지 마 부활할 거야›(1986, 비탈리 카네브스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놀라운 실험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소쿠로프(Aleksandr Sokurov, 1951~)는 이 모든 소란에 관심도 없다는 듯 자기 영화를 밀고 나갔다. 신비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작업은 마치 수도자처럼 이어지고 있다. 『죄와 벌』을 옮긴 ‹속삭이는 페이지›(1993)에서 첫 10분을 마치 흑백 영화인 줄 알고 보다가 거의 색이 바랜 듯한 컬러 화면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 관객들은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

‹어머니와 아들›(1997)에서는 단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후 슬픔에 잠겨 있는 아들의 모습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그러나 그때 그 슬픔을 바라보기 위해 소쿠로프는 이미지 상(像)이 휘어 보이는 커다란 거울을 들고 야외에 나가서 아들을 바라보는 대신 거기 비친 아들을 찍는다. 그때 아들은 마치 눈물 때문에 일그러져 보이는 것처럼 거기 얼룩진다.

그 절정은 21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만든 ‹러시아의 방주›(2002)일 것이다. 그는 에르미타주미술관에서 300년에 걸친 러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시간 36분 동안을 단 하나의 쇼트로 찍어나간다. 그는 거기서 "우리들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물론 끊어진 적도 없지, 이 그림들과 조각들과 건축물을 보란 말이야. 여기는 러시아야, 우리 모두 여기서 방주를 타고 새로운 세기를 건너가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 호화찬란한 미의 향연 앞에선 누구라도 넋을 잃을 것이다. 가득 찬 자부심. 과거의 유산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만남. 이것은 모든 영화사 중에서 가장 비통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먼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아들›(1997, 알렉산드르 소쿠로프)

‹러시아의 방주›(2002, 알렉산드르 소쿠로프)

어느 상사맨의 러시아 이야기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기 전,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인 시절부터 그곳을 오가던 극소수의 한국인들 중에는 문화 예술인, 학자들 외에 소련과 무역을 하던 상사맨들이 있었다. 그들의 경험담을 재구성해, 냉전 시대를 지나 한국과 새롭게 관계 맺기 시작하던 30여 년 전 러시아로 '상사맨 K'와 함께 떠나보자.

글 · 편집부, 일러스트레이션 · 김태우

보고서 '소련 · 중공 침투 방안'

K는 1973년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은 러시아어. 당시 미수교국이자 적성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소련)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전기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나니 후기에는 전기에 없는 특별한 과를 찾게 됐고 러시아어과가 눈에 띄었다. 1년 전 7.4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되고 했으니 졸업할 즈음이면 남북 관계도 나아질 테고 그러면 소련과도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 졸업 후 K의 첫 직장은 종합상사 상품기획팀. 소련은 여전히 적성 국가였다. 종합상사라지만 누구도 공산 국가인 소련이나 '중공'에 관심을 두진 않았다. 그런데 입사 후 3년쯤 지나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스웨덴에 있던 한인 교포 회사를 통해 소련 원목을 한국에 들여오고 한국 운동화를 소련에 팔던 지인이 있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비전이 있어 보였다. 공산 국가들과 직접 교류는 못 해도 이미 중국 물건은 홍콩을 통해서, 소련 물건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부터 K는 다른 종합상사 사람들도 만나고 당시 중앙정보부 외사과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 국제 질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과 소련은 언제쯤 수교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때 무역 규모는 얼마나 될지 등의 내용으로 백지를 채워나갔다. 단기적으로는 빈이나 헬싱키에 머물면서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동구권 국가를 공략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련에 들어갔을 때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에 거점을 만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웠다. 반년을 공들여 쓴 B4 60장 분량의 그 보고서의 제목은 '소련 · 중공 침투 방안'이었다.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분이 받아서 서랍에 넣고는 3개월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술 한잔 하자고 했다. 1차도 사고, 2차도 사면서 계속 설득했다. 겨우 과장 사인을 받아 부장한테 갔는데 이 양반이 또 2개월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설명 좀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 좀 있어 봐.' 하시는데 역시나 안 되겠다 싶어 또 몇 번이나 술자리를 만들어 설득했다. 그렇게 부장 사인도 받아 담당 임원에게 올렸는데 그분이 보자마자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부장들 80명쯤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시켰다. 그게 시작이었다."

K의 보고서 '소련 · 중공 침투 방안'은 이후 여러 계열사들이 러시아 사업을 시작할 때 교본처럼 읽혔고 지금도 그 회사에 자료로 남아있다.

1단계: 동구권을 접수하라

1985년, 오스트리아 빈에 지사를 만들면서 K대리는 본격적으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모두 미수교국이라서 비자는 빈에 있는 각 나라 영사관에서 받고, 비자가 나오면 중앙정보부에 출입 신고를 한 다음 교육도 받았다. 내용은 주로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백 가지' 같은 것들이었다. 초기에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매번 신변 안전 문제로 불안했다. 실제 납치 사례도 있어서 동유럽은 물론 빈에서도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다.

"그러다 한번은 불가리아 상품박람회장에서 당시 불가리아 북한 대사와 마주쳤다. 딱 보자마자 '당신 남에서 왔지?' 그러더니 '못 본 척할 테니까 빨리 꺼져!' 하더라. 자신들 동네니 괜히 사업한다고 얼쩡거리지 말라는 소리다."

동구권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K대리의 머릿속에는 늘 '소련'이 있었다. 당시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에 취임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하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운동선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수 등 문화 학술 영역 외에는 직접 교류가 없었다. K는 동구권 상품박람회장을 다니다가 소련과 거래한다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말을 붙였다.

그러다 부다페스트 코트라(KOTRA) 전시장에서 핀란드 사람 아우라넨(Auranen) 씨를 만나면서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소련과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던 그는 1987년 부다페스트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속 공학자와 만남을 주선해 줬고, 한참 사업 설명을 듣던 그이가 "헬싱키 소련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줄 테니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한번 오라."며 초대를 했다. 1973년 러시아어과에 입학한 지 10년 만에, 1983년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 4년 만에, 드디어 소련 땅을 밟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후에도 아우라넨 씨는 지상 경제보다 지하 경제가 발달했던 1980년대 말 소련에서 신변 보호에서부터 거래처 연결까지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파트너가 돼주었다.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 소련에 들어가긴 했겠지만 과연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K는 지금도 한다.

1987년, 어느 봄날

헬싱키에서 밤 9시에 기차를 탔다. 다음 날 새벽 6시면 드디어 소련이다! "그날이 정확히 1987년 5월 11일이다. 기차에 오르니 승무원이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아직 그 승무원 이름도 기억한다, 나탈리아라고. 자리에 앉아 막 기차가 출발하는데 창밖에서 한 남자가 나를 보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1주일 후 헬싱키로 돌아가려고 다시 기차를 탔는데, 이번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에서 역시 그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깜짝 놀랐지. 아마 비자를 주긴 했지만 '넌 우리 손바닥 위에 있으니 허튼짓 말라'는 경고였던 듯싶다. 일개 회사원에게 뭘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어느 날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온 내가 정말 회사원인지 정보 요원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거다."

소련에 들어가긴 했어도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었다. 호텔도 정해져 있었고, 스케줄도 다 잡아 놓아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식이었다. 신변에 대한 불안도 여전했다. "미팅을 마치고 숙소에 와보니 누가 돌을 던져서 창문에 금이 쫙 가있더라. 어느 날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와서 받으면 딱 끊어버렸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다. 그래도 젊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수교도 안 된 이 큰 땅에 장사를 하러 왔구나 생각하면 긴장은 돼도 기가 죽진 않았다.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첫 방문 이후 K는 빈에 머물면서 매달 소련에 들어갔다. 수교는 나중에 하더라도 장사는 한번 화끈하게 해보자며 사람들을 설득하길 6개월, 1987년 11월에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코스모스호텔에서 처음으로 '한국 상품 단독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 사업가들도 30명이나 데리고 갔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그 소식은 정치 뉴스가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동아일보› 1면에 올랐다. 더 큰 성과는 적성 국가 회사원에게 비자를 내 줄 정도로 영향력 있던 당시 파트너들이 그 상품전을 계기로 소련 정부에 한·소 수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북방 정책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이후 수교 협상은 급진전됐다.

수교 전까지 K는 매달 모스크바의 호텔 객실을 빌려 사무실 겸 숙소로 썼다. 거기 머물며 한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백러시아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한 팀이 와서 1주일 있다 가면, 다음 팀이 오고, 또 다음 팀이 오는 식이었다. 물자가 귀했던 소련은 바이어들에게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방적 기계 등을 샀다. 초기 러시아 사업은 한번 물꼬가 트이자 바로 탄력이 붙어서 한국 바이어들이 너도나도 무리를 지어 나왔다.

다 좋은데 늘 식사가 문제였다. 딱딱한 빵은 한국인들 입맛이 아니었고, 고급 식당은 예약을 하고 그나마도 뒷돈을 줘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성격 급하고 번거로운 게 싫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가져온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러면서도 소련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내내 흥분 상태였던 바이어들은 매일 밤 소시지를 안주 삼아 보드카를 마시며 이야기가 길어졌다.

"4~5주를 그렇게 지내다가 바이어들이 돌아가면 나도 호텔 생활을 접고 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모스크바에서 빈까지 네 시간 정도 걸렸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제야 긴장이 쫙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다. 그때는 빈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꼭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같았다."

36박 37일 동안 술자리가 이어졌던 어느 출장 때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절해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이틀 만에 깨어나 의사에게 처음 들은 말은 "당신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였다.

"계속 그러면 죽는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다 끊으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보드카 끊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아니라서 담배만 바로 끊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빈에서 6년을 살았지만 대부분 소련에 들어가 있던 K대리에게 주재원 생활의 달콤함 같은 건 없었다. "다른 회사 주재원들은 알프스로 여행도 잘 다녔는데 당신은 그때 정말, 참 너무했다."는 이야기를 K의 아내는 지금도 한다. 그러니 어쩔 것인가. 스키 타고 알프스 슬로프를 내려오는 것보다 소련에서 라면 먹으며 장사하는 재미가 더 쏠쏠했던 것을.

'라면 사태'와 '싸부님'의 등장

이런저런 제품을 많이 팔았지만, 소련을 목표로 할 때부터 K대리가 가장 탐냈던 건 러시아 석탄이었다. 모스크바에 갈 때 마다 석탄공사를 찾아갔다. 담당자를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부사장도 만나고 미팅은 이어졌지만 대답은 한결같이 "비수교국에 석탄은 줄 수 없다."였다.

"갈 때마다 소위 문전박대를 당한 거지. 그래도 계속 가는 거다. 선물도 사다주고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모든 게 분업 체제일 때라서 사람들이 위에서 시킨 일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사무실이나 호텔이나 옆에서 아무리 전화벨이 울려도 자기 자리가 아니면 받질 않았다.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관계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따로 만나야했다. 한국에 석탄 파는 일 같은 건 그냥 귀찮은 거다."

그 시절 에피소드. 한번은 본사에서 석탄 담당 부장이 나왔다. 오실 때 라면 스무 개만 사오시라 부탁했다. 주로 호텔에서 밥을 해먹고, 러시아 빵이나 소시지도 먹고, 라면은 아껴 먹는 특식이었다. 부장도 나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성과가 없는 채로 출장 마지막 날이 됐다. 그날 미팅이 끝나면 부장은 서울로, K는 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아침이 됐는데 부장님이 '오늘은 니 혼자 갔다 온나.' 그러시더라. 맥이 풀리신 거지. 나오다 보니까 탁자에 라면이 두 개 남아 있었다. '다녀와서 저거 먹고 집에 가야지.' 생각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로 또 석탄공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석탄은 못 준다는 소리만 잔뜩 듣고 시무룩한 채로 미팅이 끝났다. 터덜터덜 숙소로 와서 부장님한테 '라면 드셔야죠?' 했더니 이분이 '어? 라면이 있었어?' 하시는 거다. 하, 그 사이에 혼자 두 개를 다 드신 거다! 성과는 없지, 안 그래도 서러운데 뚜껑이 확 열려서 '아이 XX,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네!' 하고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다 (웃음). 그분 요즘도 만나면 '니는 대리가 말이야, 라면 하나 가지고 부장한테 대들고 말이야' 하면서 뭐라 그러시지만 지금이라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그럴 것 같다 (웃음)."

'싸부님'이 등장한 건 그때였다. 이래저래 속만 상해서 빈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난 드미트리예프라는 사람인데, 아까 모스크바에서 당신을 봤소.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으니 좀 만납시다."

소련과 오스트리아 합작사 사장으로 빈에 나와 있던 그는 석탄 공사에서 퇴짜 맞던 K대리를 봤고, 빈에 돌아올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다.

"내가 당신 거기 자주 가는 거 아는데, 거기서 아무리 사정해 봐야 석탄 안 줍니다. 그래도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시작한 이야긴 이랬다. 한국과 소련은 수교가 안 돼서 석탄을 못 주지만, 자신의 회사와 K의 회사가 합작을 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내면 그건 소련·오스트리아 합작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소련에서 투자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석탄을 준다는 것이다. 그날로 드미트리예프는 K의 사부님이 됐다. 바로 서울 마포에 한국·오스트리아와 합작사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소련 석탄이 처음 들어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에 납품됐다.

"사업도 반은 운이다. 매번 무시를 당해도 계속 찾아갔더니 뜻밖에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다. 막막하게 시작한 일이라도 한 가지에 집중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다." 그렇게 3년 동안 소련을 서른 번 오가고 나서,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은 국교를 수립했다.

극동에서, 한 게임 더

1992년, K과장은 6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본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극동 지역에도 지사를 만들 생각인데 다시 나가지 않겠냐는 거였다. '지금? 다시?? 극동? 극동??'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가기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 가면 고생할 게 분명한데도 가기 싫다는 마음은 또 안 들었다. 그래서 또 들어갔다."

소련 붕괴 직후라 러시아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도 동행했다. K과장은 도착 후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근처 초등학교를 찾았다. 러시아인 교장은 역사책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몇 장 넘기다 보니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안 배우는 내용이라고 했다. 펼쳐보니 레닌이 나왔다. 몇 장을 넘기다 보니 또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거기는 스탈린이 있었다. 체제가 바뀌었지만 교과서를 새로 찍을 예산이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일찍부터 토론 중심의 유럽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소련 교육의 수혜를 받은 교사들 수준도 뛰어났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교육 자재는 열악했다. 면담을 마치고 아이에게 "어때? 아빠랑 살면서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될까?" 했더니 아홉 살짜리 꼬마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는 여기 와야 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가고 하바롭스크에서 호텔 방을 잡고 다시 사무실 겸 숙소로 쓰는 기러기 생활이 시작됐다.

"그래도 벽에 붙은 러시아 전도를 보고 있으면 흐뭇했다. 남한의 170배, 한반도 전체로 봐도 80배쯤 되는 거대한 땅을 어떻게 접수할까 생각하면 막막하기는 해도 가슴이 뛰었다. 지도 위에 앞으로 만들 거점을 생각하며 핀을 꽂았다. '일단 하바롭스크, 그다음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캄차카, 그리고 바이칼 호수 옆...' 하면서 허허벌판에서 땅따먹기 하듯 그랬는데, 신기한 건 그게 다 실현이 됐다는 거지."

150년 전 한인들이 처음 이주한 땅, 사할린

낯선 하바롭스크에서 사귄 첫 친구는 책을 많이 읽던 외과 의사 비탈리 리 씨였다. 한국 이름 이무센. 사할린에서 태어나 하바롭스크에서 의사를 하던 그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온 할아버지, 사할린에서 태어난 아버지를 둔 고려인 3세다.

의사라지만 그의 생활은 그리 윤택하지 않았다. 혁명 후 국가에서 모든 직업의 월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레닌은 의사의 월급을 낮게 매겼다. 의사는 치료를 해주면 환자들이 고맙다고 달걀도 주고, 빵도 주고, 보드카도 주기 때문에 월급은 적어도 된다는 알뜰한 논리였다. 극동의 긴 겨울, K는 꿀을 넣은 홍차를 마시고 잼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밤새 책을 읽는 이무센 씨의 취미에 자주 동참했다. 함께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며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도 많이 배웠다.

신기한 것은 물자가 귀해서 상점이 텅텅 비어있던 시절에도 이무센 씨의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다는 점이다. 이걸 다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면 빙그레 웃으며 "러시아는 겉은 가난해도 속은 알차다."고 했지만 답은 예상 가능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길에 두세 명만 줄을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줄인지 묻지도 않고 줄을 섰다. 그러다 뭐라도 구하면 다행이고, 물건이 떨어져 허탕을 쳐도 군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줄 설 곳을 찾았다. 생활력 강한 이 고려인은 그렇게 하나씩 모은 물건들로 늘 냉장고를 채워두었던 것이다.

1864년 함경도와 평안도의 농민 13가구가 정착한 이래 연해주는 한인들에게 사연 많은 땅이다. 조선 말, 가난과 탐관오리의 수탈을 피해 두만강 건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일부는 블라디보스토크 군항과 시베리아 철도 부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며 러시아 땅에 정착했다. 그 기반 위에 20세기 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주해 항일 독립운동의 해외 중심 기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력한 전제 정치를 꿈꾸며 소수 민족을 탄압했던 스탈린에게 민족성 강하고 똘똘 뭉쳐 살던 한인은 타깃이 됐다. 1937년, 스탈린은 지도자층 한인 3천여 명을 먼저 잡아 처형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낸 다음 9~11월 사이에 연해주 20만 한인을

6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다. 뭘 챙길 사이도 없이 밤중에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끌려나온 이들은 끝없이 이어진 시베리아 열차의 화물칸과 가축 수송용 칸에 태워졌다. 창문도 없고, 문이 닫히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곳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 길면 50일을 지냈고, 그 후 군인들은 인적 없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허허벌판에 이들을 버리고 사라졌다. 그 사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또 질병으로 20만 한인 중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기차에서도 죽고 벌판에 버려져서도 죽었다. 갓난 아이 대부분이 사망한 탓에, 강제이주 고려인들 중에는 1936~1938년생이 아주 드물다. 그 1세대들은 어쩔 수가 없어 아이나 부모의 시신을 달리는 기차 밖으로 던지던 처참한 광경을 증언한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둥글게 모여 있다가 그대로 얼어 죽은 시신들이 멀리서 탑처럼 보였다는 기록도 있다. 10월부터 이듬해 봄이 찾아온 4월까지 이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겨울을 났다고 한다. 스탈린 사망 때까지 고려인들은 주거 이전도, 모국어 사용도, 강제이주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불법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전까지는 외부에 실상도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 놀라운 사람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지으며 중앙아시아에서 핵심 소수 민족으로 성장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다시 소수 민족 차별과 경제난 속에 상당수 고려인들은 애써 가꾼 터전을 버리고 다시 연해주로, 혹은 러시아 남부 농업지대로 이주했다. 1990년 대 초 한국 기업들이 극동에 관심을 가진 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독려도 있었다. 기업들이 나가서 극동 경제를 활성화하면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이 모여들 테고 그러면 다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구상이었다.

마피아 = 새로운 권력 집단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이후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소련 시절 국유 재산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유화됐다. 그 과정에서 신흥 재벌들이 탄생했고 많은 지하 경제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소련 시절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형성하며 권력 집단이 되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간부, 경찰이나 세무서, 세관 간부 등이 그들이다.

어수선한 시절이라 K는 신변 안전을 위해 늘 총기를 휴대했다. 가스총은 몸에 차고 리볼버 권총은 가방에 넣고 다녔다. 한번은 급하게 본사 출장이 생겨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도착했는데,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세관원이 따라오면서 물었다. "장난감 총이죠?" "??…!" 가방에 넣어둔 총이 그제야 떠올랐다.

처음 한국 중고차를 팔 때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계약을 하고 몇 달을 기다려 한국에서 샘플 봉고차 20대가 도착했는데, 발 매트를 들췄더니 차를 하도 험하게 타서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다.

"대금 15만 불을 모두 지급하고 몇 달을 기다려 받은 물건이 그 모양이니 상대는 잔뜩 화가 나서 대뜸 40만 불을 배상하라고 했다. 본사에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사할린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보름쯤 있었다. 당장 돈도 없고 본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얼쩡거리다 마피아들이 총이라도 꺼내 들면 끝이니까. 그래도 시간을 끄는 데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는 '너희들 나 죽이면 돈 하나도 못 받아!'하면서 협상했다. 본사에서는 '야, 받은 돈 돌려주면 되지, 걔들은 그걸 가지고 왜 난리야.' 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지, 거래처에서는 곧 죽일 듯이 덤비지, 참. 선금으로 받은 15만 불에 5만 불 더 보상해 주고 40일 만에 간신히 마무리했다."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4년을 지내면서 처음 러시아 전도 위에 찍었던 '가상 거점'들은 모두 현실이 됐다. 갈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올 때는 바이칼 호수를 기준으로 러시아 동쪽 땅 곳곳에 사무소가 들어섰고, 직원도 현지 인력을 포함해 40명 정도로 늘어났다. 원자재 수입에서 자원 개발로 영역을 넓힌 것도 그때였다. 1993년 K과장의 첫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외국 기업과 합작한 첫 광산 개발 사업이었다.

이반과 나타샤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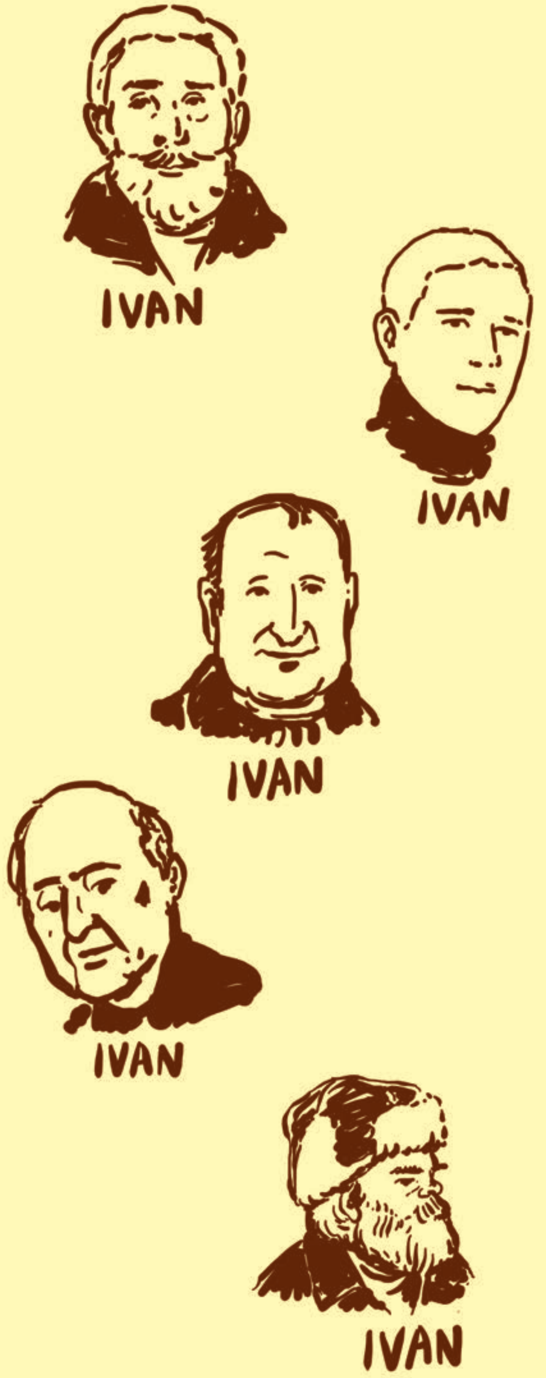
한국은 같은 성 씨는 많아도 이름은 다양한 반면, 러시아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많은 대신 성 씨가 다양하다.

"러시아 남자 이름은 중에는 농부라는 뜻의 유리,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반 등이 많다. 이반이 얼마나 많은지 2차 대전 당시 소련군과 독일군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독일 장교가 '이반!' 하고 외쳤더니 저쪽에서 소련 병사 몇 명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고 총을 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자 이름에 많이 쓰는 것은 '올가', '이리나', '나탈리아' 등이다. 2005년 K가 모스크바 지사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비서 이름도 나탈리아였다. 최나탈리아(나타샤). 레닌그라드 공대를 막 졸업한 고려인 3세로 한국어는 전혀 못 했다. 한인 강제 이주 후 오랜 기간 모국어 교육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려인 3세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이다. 아무튼, 성격이 불같던 그녀는 미팅을 하다가 K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등등 누가 상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저걸 그냥, 확 잘라?'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지만, 재미난 것은 그러면서도 K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었다. 나중에는 잔소리 피하려고 미팅 전에 자료도 더 챙기게 되고 한 번 확인한 사항도 본사에 전화해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고 그랬다. 층층시하 상사들을 모시고 있는 본사와 달리 혼자 떨어져 있는 주재원 생활은 일을 하려고 들면 끝이 없지만 안 하려고 들면 또 그저 그렇게 한 시절이 흘러간다. 불교 경전에 보면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로 원림(圓林)을 삼으라'는 구절이 있다. 주변에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여럿 두는 게 자기 수양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데, 나타샤가 그랬다."

무서운 비서 나타샤는 현재 홍콩에 머물며 금융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 그 사이 어디쯤

"러시아 국가 문장은 두 마리 독수리가 각각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다. 러시아인들은 그게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국 러시아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달리 보면 동서양의 정서가 혼합된 러시아의 상징이기도 하다. 휴가는 무조건 한 달쯤 가는 등 라이프 스타일은 유럽식이지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은 다분히 동양의 정서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며 K에게 뜻밖에 도움을 준 것은 학교 때 배운 러시아 노래였다. 주로 ‹카츄샤(Катюша)›, ‹트로이카(тройка)›, ‹아가뇽(Огонёк)› 등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오래된 민요로 대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중 톨스토이 ‹부활›의 여주인공 이름을 딴 ‹카츄샤›는 전쟁에 나간 애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병사들 사이에 크게 유행해 나중에는 군가가 된 국민 가요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다. 당시 사망한 소련 군인과 민간인을 합치면 그 수가 최소 2천만 명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계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의 피해는 막심했다. 러시아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조국 수호 전쟁'이고, 승전기념일인 5월 9일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러시아 최대 국경일이다. 소련 붕괴 후 중단됐던 이 행사는 2000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활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 소련뿐 아니라 전 유럽을 나치에서 해방시켰다는 자부심이, 슬픈 역사에 대한 애잔함과 함께 러시아 국민들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색하던 비즈니스 관계도 옛 민요 한 곡이면 금방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사만 외운 게 아니라 배경이 된 시대 상황도 이해하고 있었던 게 공감을 얻은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모스크바 고위 관료와 어색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던 날도 그랬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형식적인 응대일 뿐 마음으로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썰렁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노래가 끝날 때쯤 상대의 표정은 달라졌다. 사연 많은 옛 노래를 감정까지 소화하며 부르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내친 김에 한 곡 더 부르자 그들은 옆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던 '뱀 쇼'까지 불러 화답하는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고 모스크바와의 거리도 그만큼 좁혀졌다.

푸틴 대통령이 2001년 첫 취임 후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도와준 친구 내외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지내며 한참을 대접한 일화는 '친지들과의 우정과 신뢰를 삶 자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푸틴의 특징이자 러시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2013년, 달라진 러시아 시장

2000년대 초, 이미 성숙한 러시아 시장에서 처음 상사 업무를 시작했던 또 다른 상사맨 J과장은, 2010년 러시아를 포함해 독립국가연합(CIS)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 지역 전문 종합상사로 회사를 옮겼다. 그는 달라진 러시아 시장을 이렇게 전한다.

"과거 러시아 거래처들은 중국산 제품은 품질 문제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국 제품을 택했지만, 지금은 품질 차이도 없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을 택한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외국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사실상 오픈 시장이 되다 보니, 계약에 급급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제조업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극명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제 러시아 사업은 자원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 조건이다. 보드카로 친구를 만들고 큰 거래로 한번에 돈을 버는 것은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신생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그들의 특성상, 신뢰를 구축하고 작은 거래로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 주면서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러시아 경제의 중심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쪽이지만, 이 나라 최대의 무기인 천연자원은 극동에 산재해 있다. 2025년까지 내다보는 푸틴의 핵심 정책 '극동 개발 프로젝트'도 그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APEC 행사를 유치하는 등 극동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 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극동 러시아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중국 동북 3성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대로 두면 땅 주인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원인이 됐다. 2012년 WTO에 가입 후 러시아는 자유 무역을 표방하고 보호주의적 색채를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거대한 나라가 변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 러시아. 20세기 들어 소비에트 혁명으로, 또 공산주의 붕괴로 두 번이나 세계사를 뒤흔든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진 나라. 한때 생필품을 사기 위해 길가에 줄을 길게 서는 것이 일상이었던 러시아는 더 이상 없다. 지금 러시아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중이고, 달라진 시장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세대의 또 다른 '상사맨 K'들이 자신들의 무용담을 만들어 가고 있다.

1987년, 모스크바 붉은광장 레닌 묘지 앞.

1990년대 초 모스크바의 비즈니스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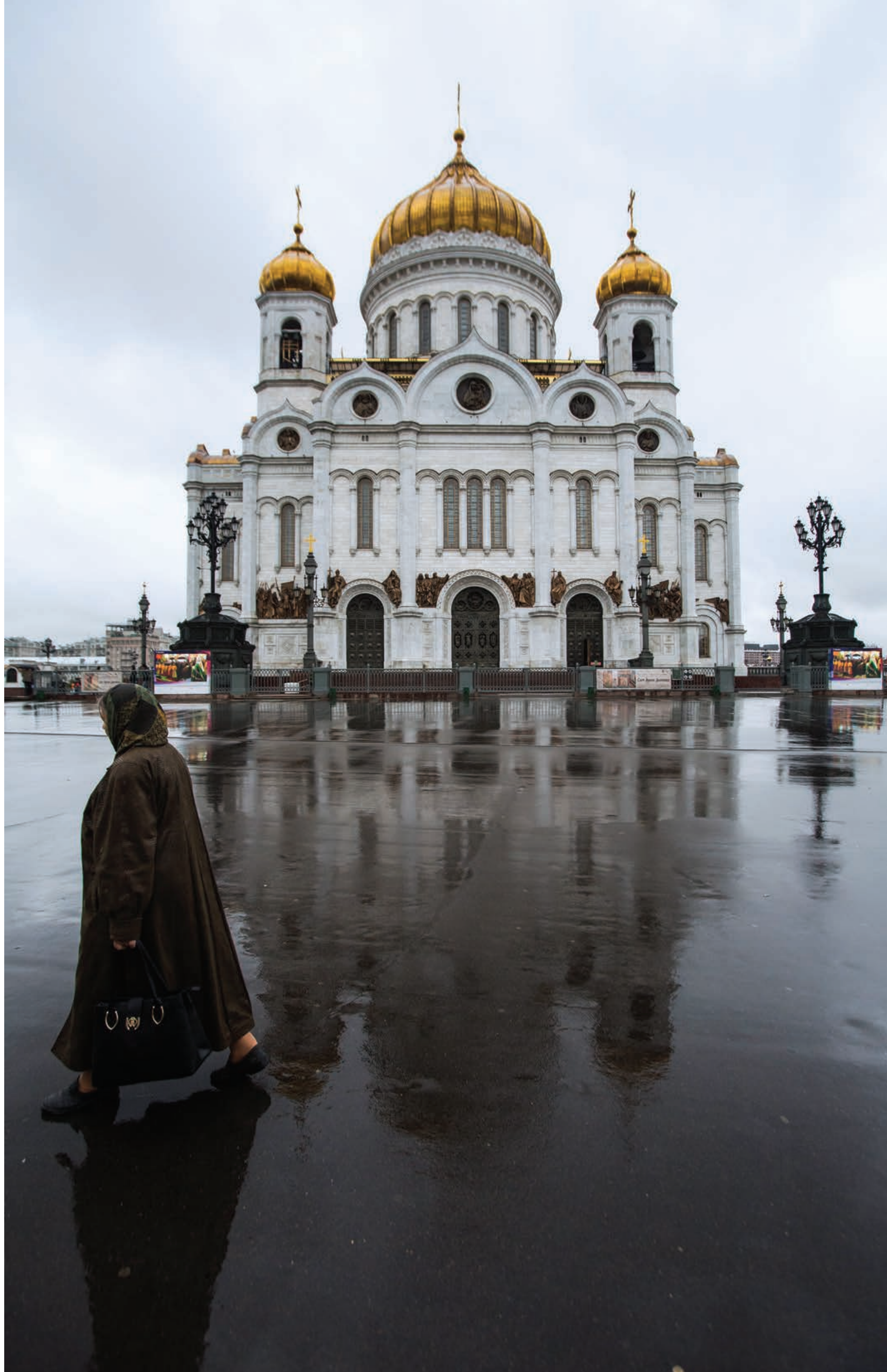
시절이 바뀌자 한때 최고 권력자들로 분장한 이들이
기념 촬영 모델로 등장했다.

여름이면 모기가 극성을 부려 모기장을 쓰고
다녀야 했던 1990년대 중반 시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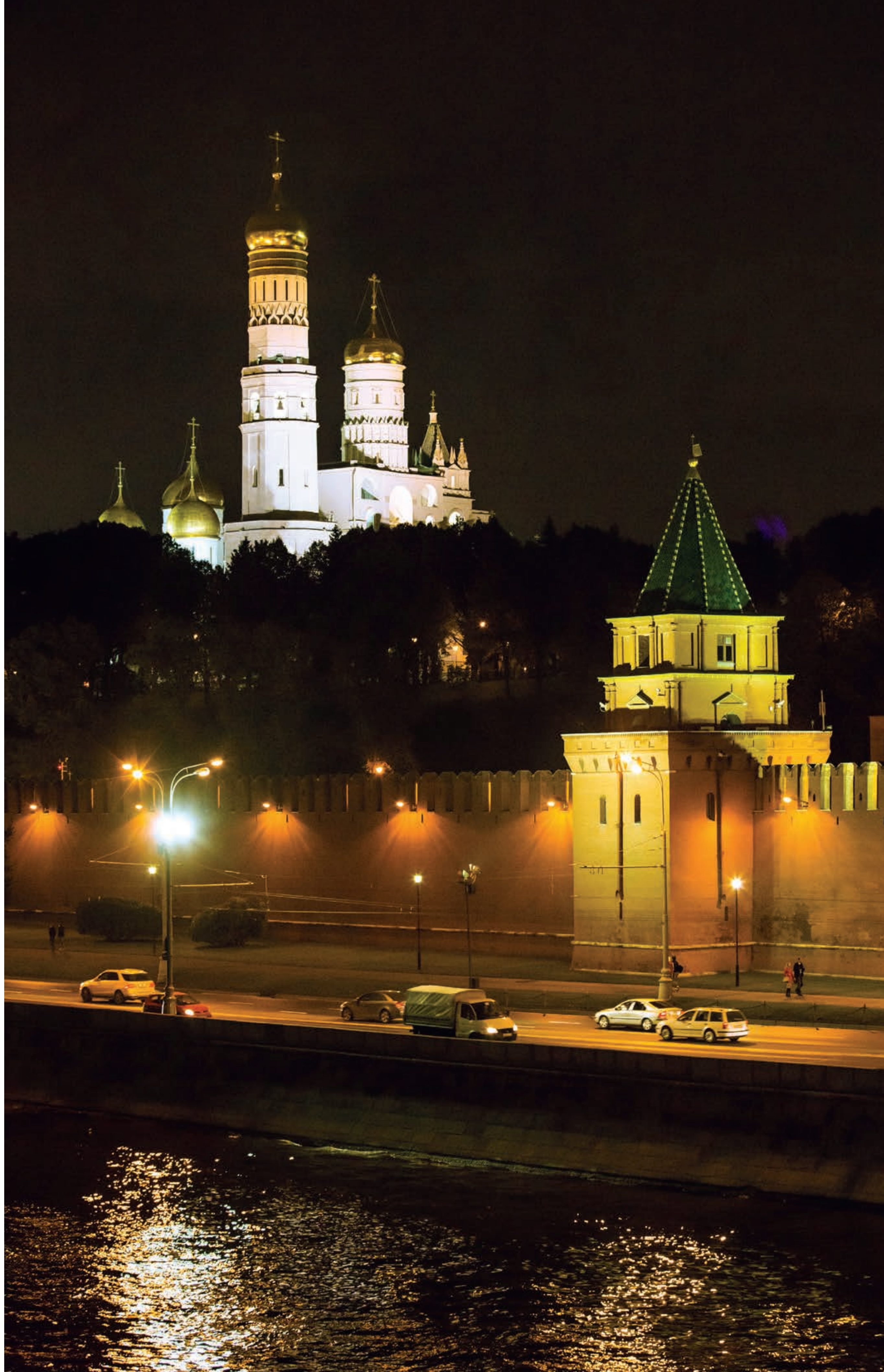
2000년대 초 모스크바.

1994년 하바롭스크 한국 대리점 오픈식.

자문 및 자료 제공·
김승동(LS네트웍스 대표이사),
전명수(LS네트웍스 블라디보스토크 지사장)



redkassa
24



Макдоналдс
СБЕРБАНК
Обслуживание частных клиентов
БАНКОМ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С.С.Р
ИМЕНИ
ЛЕНИНА

다차에서 배운 러시아의 마음

그곳엔 죄로 물든 키르케 궁전의 성대한 주연과 즐거움과 방종 대신 시베리아 들판의 한없는 정적과 굳이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의 여백이 있어 좋았다. 평안과 노동과 영감의 안식처에서 그들은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내며 떡갈나무 숲의 평화로운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모스크바 근교, 미하일의 다차에는 망각의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있었다.

글·정성일(영화평론가·감독)
사진·박정훈

차를 타고 모스크바 교외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좀 더 좋은 날씨였으면 좋았겠지만, 모스크바에 머물던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기예보는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예보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변호사인 미하일(Shepovalov Mikhail Alexandrovich)씨의 호의로 그의 '다차'에 가는 길이었다. 아침 일찍 부산을 떨었지만 주말이라 금세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는 다차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조금 들떠 있었다. 그런데 잠깐, 당신은 내게 반문할지 모르겠다. "다차(дача, dacha)가 무엇인가?" 아, 그렇군. 나도 처음에는 그게 무언지, 어떤 개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약간 너스레를 곁들여야겠다.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남았다.

'다차'로 인민의 마음을 얻다

다차 전문가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어 번역이 안 된다고 말한다. 흔히 시골 별장이나 주말 농장 등으로 부르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차는 다차'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다차가 처음 러시아 역사에 등장한 것은 로마노프 왕조 네 번째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1672~1725) 때였다. 알렉세이 황제의 열네 번째 왕자였던 표트르 대제는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왕위에 오른 다음 21년 동안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벌이는 한편 잉글리아, 에스토니아, 리보니아를 차례로 굴복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랜 전쟁에 지친 봉신(封臣)들이나 왕실 하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 바깥에 작은 소유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다차라는 말이 '주다(давать)'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처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다차는 점차 모스크바로까지 확대되었고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귀족들의 사교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등 러시아 고유 문화로 정착되어 갔다.

그러다가 1861년 농노제가 폐지되고 도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몰락한 시골 영주들은 자신들의 땅 일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임대에 나서게 되었다. 시기가 좋았다. 마침 철도 산업이 발달하며 도시와 시골이 연결되었고,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이 교외에 땅을 마련해 다차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면서 다차 문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듯했다. 이때 다차는 귀족으로부터 당 간부들, 혹은 특정 계층들의 소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1940년대가 개입하였다.

집단 농장만으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일종의 자급자족 경제가 요구되었다. 스탈린은 국영기업 노조에 다차를 임대해 주었고, 다시 1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스스로 채소를 길렀다.

다차에 휴양이자 동시에 농사라는 노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때부터일 것이다. 물론 규제도 있었다.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고 오두막도 25제곱미터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채소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토지 용도 변경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스탈린이 죽고 난 후 등장한 흐루쇼프 정부는 일종의 유화정책으로 600제곱미터의 땅을 도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은 항상 풍요로우며 그 그릇은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물질생활과 식량 공급의 향상을 약속하는 등 다차로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고속도로에서 오솔길로 접어들어 거의 두 시간 만에 도착했을 때, 미하일은 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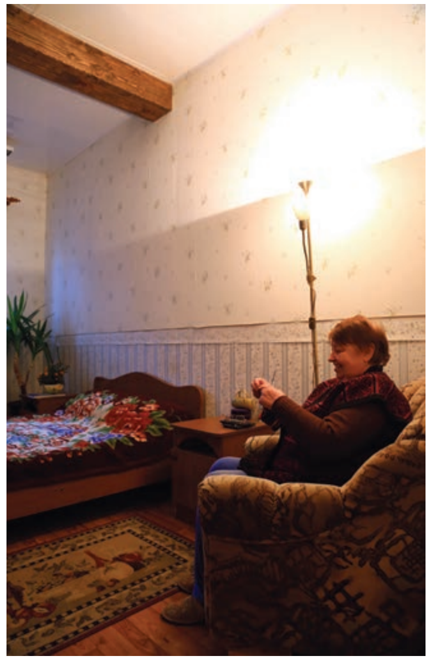
맞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프로 레슬러처럼 체구가 좋았지만 사람 좋은 미소에 지적으로 생긴 전형적인 러시아인이었다. 2층으로 된 미하일의 다차는 동네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뒤로 서로 다른 모양의 다차가 줄을 이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한가운데로 길이 나 있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단 하나도 같은 다차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당연하지요, 다차는 그냥 땅만 사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직접 땅 주인이 설계도 하고 집을 짓는 데서 다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취향도 있고, 어떤 집은 그걸로 자기 가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짓는 데 얼마나 걸렸냐고 하자 주말마다 여기에 와서 꼬박 일 년 동안 지었고 그런 다음 올해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다. "보통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머물지만 우리 다차에는 장인 장모님이 일 년 내내 살고 계시니까 난방이 된다는 게 다른 집이랑 좀 다르지요. 대부분 다차는 난방 시설을 안 하는 게 관례예요."

집에 들어서자 미하일의 아내 이리나(Shepovalova Irina Vladimirovna) 씨가 약간 수줍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

녀는 조심스러웠고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멀리 극동의 나라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리나 씨의 아버지 블라디미르(Tomsky Vladimir Fedordvich) 씨가 악수를 청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미소를 지으면서 알듯 말듯 한 표정을 지었다. 낯선 손님이 온다는 말에 단장을 마치고 나온 이리나의 어머니 타마라(Tomskaya Tamara Pavlovna) 씨



가 우리를 식탁으로 인도했다. 이리나는 비를 맞고 온 우리를 위해서 IR 이라고 부르는 발열판을 켜 주었다.

"우리 집에도 다른 난방 기구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겨울 바람도 견딜 만해요. (IR을 가리키면서) 이게 있으면 문제없죠." 미하일은 은근히 자기의 집 지은 솜씨를 자랑했다. 사실 이 집은 자랑해도 좋을 만큼 꼼꼼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내도 구석구석 손 가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기자기했다. 식탁에는 홍차와 보드카, 그리고 과자와 집에서 만든 두 종류의 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배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포도로 만들었는데 배 잼은 정말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갔다. 별로 달지도 않은 것이 원래의 아삭거리는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좋은 꿀에 오랜 시간 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고 여유롭게 쉬다

미하일은 비가 오는데도 바깥에서 돼지 꼬치를 만들어 숯불에 직접 구웠다. "이 요리는 샤슬릭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 남자가 만드는 음식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요리를 싫어해도 이건 남자가 만들어요. 아마 칼과 꼬챙이를 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집마다 굽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집은 양파와 함께 굽는 게 비법이죠." 자신만만하게 굽고 있었지만 장인인 블라디미르는 무언가 어설퍼 보인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주변을 맴돌면서 거들려고 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지글거리는 연기가 소리 없는 비바람 사이로 기분 좋게 번져갔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우리는 별채로 마련된 사우나 '바냐'를 구경했다. 러시아에서 바냐는 보드카, 다차, 샤슬릭과 함께 4대 문화라고 부를 만큼 뿌리 깊은 것이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가 나서서 우리를 안으로 인도했다. 별채의 일층은 음식 창고이고 이층이 바냐인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작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제법 커서 어른 남자 세 명 정도는 한꺼번에 들어가도 충분했다. "바깥에서 장작을 때면서 온도를 높여가는데 최고 120도까지 올라가요. 취향에 따라 레몬향을 만들 수도 있고 녹차향을 낼 수도 있죠. 잊지 말건 꼭 머리에 수건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땀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진짜 대머리가 된다니까요."라고 말하면서 웃었지만 농담만은 아닌 것 같았다. "한겨울에는 여기서 사우나를 하다가 나와서 눈 내린 마당에서 뒹굴다가 다시 들어가곤 하죠. 이게 진짜 러시아식으로 겨울을 나는 법이지요."

바냐를 구경하는 사이에 식탁이 차려졌다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진수성찬이 펼쳐졌다. 물론 가운데에는 샤슬릭이 자리했고, 그 옆에 타마라가 직접 담근 오이와 토마토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젓갈처럼 놓였다. 샤슬릭을 먹다가 너무 기름지다 싶으면 하나씩 건져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약간 시큼하지만 원래 오이의 맛과 풍미를 잃지 않은 데다가 감칠맛마저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이 아닌 채소라고 할 만큼 모든 식탁에 오른다. 토마토 절임은 약간 무덤덤하지만 뒷맛이 싱싱했다.

"다차에서 힘든 건 전기세지요. 모스크바보다 3배나 더 나가니까요. 옆의 마을은 싸지만 다차는 따로 전기세를 더 내야 해요. 샤슬릭 같은 음식도 가스로 하면 편하지만 사람들이 잘 쓰려고 하지 않죠. 그건 다차가 아니니까요." 미하일의 다차

는 일층에 방이 4개, 이층에 방이 4개였다. "휴일이면 항상 여기에 오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오후까지 머뭅니다. 아이들은 5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방학이니까 여름 내내 여기서 머물고요."

굳이 채우지 않은, 삶의 여백

샤슬릭에는 보드카가 빠질 수 없다. 이때 술에 대한 예법을 배워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당신에게 강제로 권하지 않는다. 이건 좋은 점이다. 그 대신 돌아가면서 연설에 가까운 건배 제의를 들어야 한다. 이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서는 푸시킨의 시를 암송하기도 한다고 한다. 블라디미르의 건배 제의는 인상적이었다. "친구들을 위하여" 그냥 그 한마디. 나는 낯선 사람을 이런 말로 반기는 자리를 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언제 만나셨나요?" 블라디미르는 눈을 가늘게 뜬 다음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류로는 내가 1944년 1월 15일생인데 어머니 말로는 한여름 복숭아 향이 날 때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17살, 이 사람이 16살이었지요. 6년 후에 결혼했어요. 그런 다음 난 군인이 되었

고 시베리아에 철도를 놓으러 갔어요. 이 사람도 따라왔지요. 힘들었죠. 그래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죠. 추운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32년간 군대생활을 했지요." 그런 다음 타마라를 보고 덧붙였다. "이 사람이랑 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친 다음 보드카를 마셨다. 흥이 난 타마라가 가족 앨범을 보여주었다. 긴 세월이 거기 있었다.

저녁이 어스름하게 그림자를 내리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 여기서 스마트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하일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여기는 해방구예요. 스마트폰도 끊기고 대부분 와이파이 서비스도 안 되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오히려 그걸 즐기죠." 이 멋진 생각. 미하일이 동네 구경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한껏 부른 배를 안고 그를 따라나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떤 다차는 벌써 인적이 끊어졌다.

"예전에는 겨울 동안 다차를 비울 때 음식이랑 보드카를 놓아두고 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요. 혹시 한겨울에 행인이 머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다차의 인연이지요. 여기에 오면 도시에 살던 사람도 모두 농부가 돼요. 다차는 일종의 음식 창고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여름나기 채비는 파종과 이어지죠. 이번 여름에는 무얼 심을까, 어떤 종을 키울까. 2월이면 집집마다 우유갑이나 플라스틱 통에 씨앗을 재배하죠. 그런 다음 해가 길어지고 따뜻해지면 재빨리 다차에 옮겨 심어요. 다차가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나는 잠시 멈춰 서서 흙을 만져보았다. 여기는 휴식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노동의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지를 사랑하는 농부가 되는 시간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불렀다. 돌아오는 길에 블라디미르의 말이 떠올랐다. "러시아의 마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다른 나라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말이지요." 러시아의 마음. 나는 푸시킨의 시를 소리 내서 읽어보았다.

"나의 인사를 받아다오, 황량한 시골이여, 평안과 노동과 영감의 안식처, 내 지난날의 보이지 않는 물결이, 행복과 망각의 품속에서 흘러가는 곳이여, 나는 너의 것, 죄에 물든 키르케의 궁전과, 성대한 주연과 즐거움과 방종 대신, 떡갈나무숲의 평화로운 속삭임과 들판의 정적과, 유유자적을 내 사색의 동반자로 선택했노라" ('시골', 1819년). 나의 후렴구, 러시아의 마음. ㅂ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도스토옙스키와 푸시킨과 솔제니친…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문호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때론 푸짐하게, 때론
단출하게 나름의 비법을 가미한
성찬으로 맛의 향연을 펼쳐보였다.
양배추 수프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손에는
흘레브 한 조각을 든 채 이들의 작품을
읽고 있는 러시아인의 얼굴엔
여유와 만족이 넘쳐 흐른다.
뭐, 맛있는 이야기라도 있는지!

글·석영중(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사진·박정훈

시치, Shchi
『예브게니 오네긴』의 양배추 수프

러시아인들은 대략 10세기경부터 '시치'라 불리는 양배추 수프를 즐겼다. 쇠고기를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내고 양배추와 다양한 야채를 넣어 끓인 이 수프는 러시아 국민 수프라 해도 좋을 만큼 오랜 세월 사랑받아 왔다. 이 음식의 가장 큰 미덕은 재료나 요리 솜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가 없을 때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육수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야채에서 나오는 국물을 사용해도 된다. 양배추 외에 당근, 셀러리, 양파 등 집에 있는 야채를 넣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대충 맛이 어울린다.

'시치'는 길고도 혹독한 겨울 내내 러시아인들의 위장을 따스하게 해주고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공급해주는 정말로 고마운 음식이다. 한국인들에게 된장찌개나 된장국이 그렇듯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시치'라고 한다.

이렇게 보편적인 음식이다 보니 시치는 고급 식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된장찌개를 고급 요리라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 작품 속에서 시치가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서민적이고 가정적인 식사 장면에서다. 그런데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인 푸시킨(A. S. Pushkin, 1799-1837)은 다른 것도 아닌 이 평범한 수프를 자기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코드로 승격시켰다.

푸시킨은 문학뿐만 아니라 식도락과 관련해서도 가히 아버지라 불릴 만큼 음식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고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관심사를 작품 속에 집어넣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심지어 "점심때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녁때까지 미루지 마라."는 식도락 잠언을 남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푸시킨은 음식에 대해 전혀 까다롭지 않았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유별난 음식을 찾아다니거나 희소하고 정교한 음식을 탐하지는 않았다. 언제 먹어도 싫증나지 않는 몇 가지 음식들, 이를테면 알맞게 끓인 러시아 죽이나, 간이 딱 맞는 수프, 혹은 구운 감자 같은 것들에 만족했다. 푸시킨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마지막에 삽입된 미완성 원고에서 자신의 입맛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나의 이상은 아내, 나의 욕망은 평화와 양배추 수프 한 사발, 그것도 큰 것으로"

이렇게 소박한 푸시킨의 입맛은 그의 '문학적 입맛'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구 문학을 받아들여 러시아 문학으로 재창조하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그가 도달한 지점은 소박함이었다. 푸시킨에게 산문 문체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확성과 간결성'이었다.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써 내려간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소박함의 결정체로 응고되어 푸시킨 문학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결하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푸시킨이 항상 추구했던 문학적 이상이다. 그 어떤 산해진미도 아닌, 간을 딱 맞춘 '양배추 수프 한 사발'이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음식이었듯이.

블린, Blin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팬케이크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또 다른 음식은 '블린'이라는 이름의 팬케이크다. '블린'은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어 '팬케이크'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팬케이크보다 얇고, 그 맛은 우리나라의 밀전병이나 프랑스의 크레페 껍질에 가까우며, 여러 가지 고명과 함께 돌돌 말아 먹을 수도 있는 매우 독특한 음식이다.

그런가 하면 녹인 버터에 푹 담가서도 먹고, 사워크림을 얹어서도 먹고, 캐비어를 넣어 돌돌 말아도 먹고, 고기 다진 것을 넣어 월남쌈처럼 접어서도 먹고, 잼을 발라서도 먹고, 좌우간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 러시아 국민 음식이다.

러시아인들은 평소에도 블린을 먹지만 사순절 직전의 카니발(러시아어로 '버터 주간'이라 부른다) 기간 동안에 특히 많이 먹는다. 버터와 우유와 달걀만 허용되는 이 시기에 러시아 사람들은 버터를 잔뜩 두른 철판에 팬케이크를 지져서 실컷 먹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블린은 장례식 음식이기도 하다. 러시아 사람들은 추도식에서 블린을 구워 먹으며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그러니까 블린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삶의 음식이자 죽음의 음식이며 동시에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넘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도스토옙스키(F. M. Dostoevsky, 1821-1881)는 블린의 이러한 상징성을 소설 속에 깊이 새겨놓았다. 푸시킨과 투르게네프와 고골과 톨스토이가 잘 알려진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후의 장편이자 그리스도교 문학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는 그도 음식과 먹기를 종종 언급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갱생과 부활에 관한 소설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부활의 이상을 전달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일류샤라고 하는 가엾은 작은 소년의 죽음을 소설 속에 심어 놓는다. 순진무구한 어린 소년의 고통과 수난과 죽음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리는 애욕과 질투와 증오와 살인의 드라마를 비춰주는 가운데 인류를 대신해 수난을 당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례식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소년도,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모든 필멸의 인간들도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카라마조프가의 막내아들 알료샤는 외친다.

"우린 틀림없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만나 기쁘고 즐거웠던 지난날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알료샤는 소년들에게 블린을 먹자고 말한다. "자 그럼 이젠 이야기는 그만하고 일류샤의 추도식에 가봅시다. 그리고 사양하지 말고 블린을 실컷 먹읍시다. 그건 아주 오랜 전통이고 또 영원히 지속될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블린은 항구한 기억의 매체이며, 이를 먹는 행위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넘어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축제와 장례의 음식, 과거로부터 이어져 미래로 무한히 지속되는 음식…, 이것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가 갱생과 부활에 관한 소설의 마지막에서 되살린 블린의 특성이다.

흘레브, Khleb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검은 빵

러시아 사람들에게 빵은 모든 식사의 중심이다. 러시아에서 '빵(khleb)' 하면 보통 통밀과 호밀을 섞어 만든 검은 빵을 의미한다. 그들에게는 검은 빵만이 빵이고 나머지는 빵이 아니다. 한국에서 '밥'이 식사도 되고 쌀로 지은 음식(라이스)도 되는 것과 같이 러시아에서 빵은 구워 먹는 빵도 의미하고 식사도 의미한다.

러시아에서 빵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춥고 겨울이 긴 러시아는 먹을거리가 풍족한 나라가 아니다. 거기에 툭하면 가뭄과 기근, 침략과 내전이 일어났다. 백성들은 때로 빵과 물만으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연명해야 했다. 빵은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였다. 러시아 전통문화 속에서 칼로 빵을 자르는 것이 금기시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빵은 언제나 손으로 '나누고 쪼개는 것'이지 칼(혹은 여타의 금속)로 '베고 자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금기의 밑바닥에 깔린 것은 빵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이다.

생명으로서의 빵을 소설 속에서 가장 장엄하게 형상화시킨 작가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A. Solzhenitsyn, 1918-2008)일 것이다. 그에게 노벨문학상의 영광을 안겨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주인공 이반이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1951년 1월의 어느 날 하루 동안 겪는 일상적인 삶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솔제니친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음식의 언어이다. 솔제니친은 음식의 코드로써 인간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의 위대함을 전달한다. 장기 복역수인 노인 죄수("U-81"이라고만 알려짐)가 음식을 먹는 장면은 진정 위대하다.

"수용소 내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고양이 등처럼 꾸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있는 데 반해서 유독 이 노인만은 언제나 등을 쭉 펴고 있다. (…) 다른 죄수들처럼 얼굴을 그릇에 처박으려 하지도 않고 수저를 높이 쳐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이는 아래위 하나도 없다. 뼈처럼 굳어진 잇몸으로 그는 굳은 빵을 씹고 있다. 그의 얼굴에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폐인처럼 연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산에서 캐낸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뭇거뭇했다. (…) 그는 조금도 편하고자 꾀를 부리지 않는다. 300그램의 빵만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처럼 국물에 더럽혀진 식탁에 대뜸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깨끗이 세탁한 천 조각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 늙은 수인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뭇거뭇한 얼굴은 그의 '정신'의 외적 표상이다. '그'라는 인간 자체가 바위처럼 단단하다. 그는 생의 어떤 굴욕도, 압박도, 재난도 다 견뎌낸 인간 승리의 증거다. 늙은 수인의 검은 빵은 사실상 솔제니친의 메시지 전체를 함축한다. 그의 식사는 생물학적 사이클을 벗어나 어느새 수행으로, 종교적인 의식(ritual)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존재, 그의 삶, 그의 생명까지도 거룩한 성사에 근접한다. 그는 '먹고 싸는' 짐승에서 신으로 승화한다. 이것이야말로 독실한 정교 신자인 솔제니친이 상상할 수 있었던 최종적인 인간 신화(神化)의 전범이었다.ㅂ

맥도널드를 닮은 모스크바 메트로 사인

키예프스카야(Киевская) 역

모스크바 지하철역 관람기

모스크바 강 아래로, 링 모양의 순환선을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뻗어 있는 모스크바 지하철은 대중 교통 시설이라기보다는 지하 궁전 내지 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인민을 위한 궁전'을 표방하며 1935년 첫 지하철을 개통한 이래로, 모스크바는 당대 러시아 최고의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을 동원해 화려한 장식, 매력적인 모자이크 패널과 조각품으로 지하철역을 치장했다. 다만 '작품' 대부분은 레닌이나 스탈린, 또 전쟁 영웅들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농부, 노동자, 군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즉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스탈린 시대 공산주의 프로파간다가 총집약된 곳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스크바 지하철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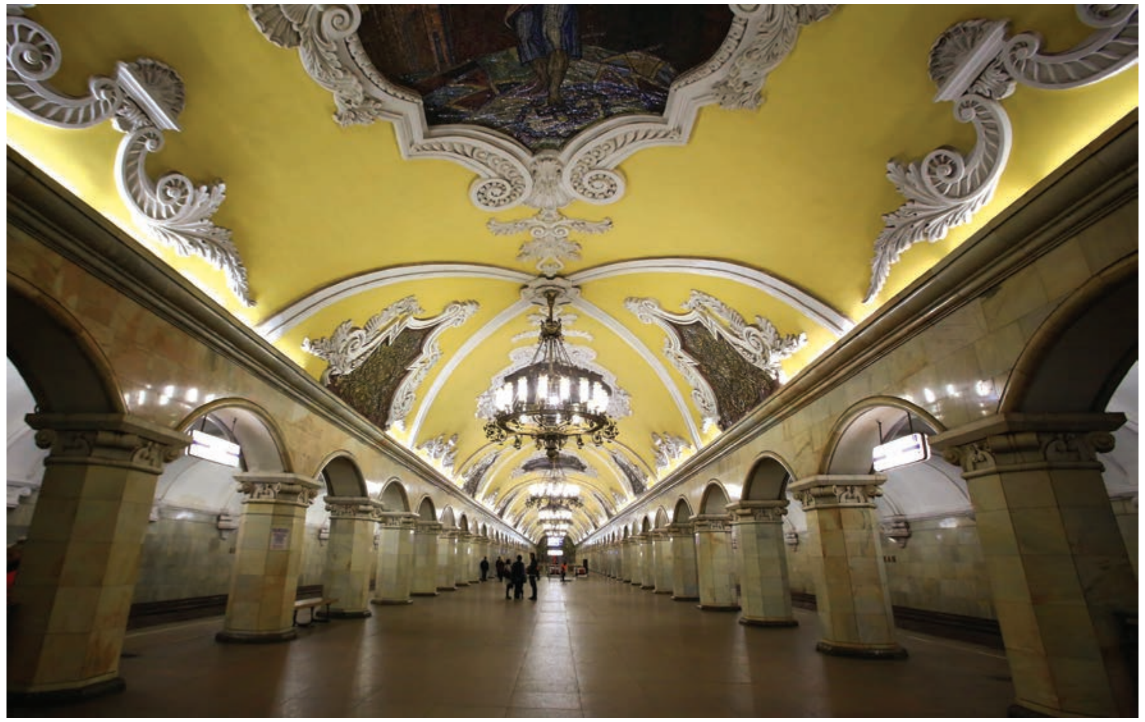
모스크바 지하철의 또 다른 특징은 안내 방송이다. 안내 멘트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에 따라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를테면, 모스크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지하철은 안내 방송이 모두 여자 목소리로 나온다. 대신,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모든 안내 방송이 남자 목소리로 나온다. 또 순환선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남자 목소리,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여자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한다. 안내 방송 목소리만으로 최소한 거꾸로 타고 한참을 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하염없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긴 에스컬레이터 또한 모스크바 지하철의 상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50년대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유사시 방공호로 활용하는 등 군사적 목적까지 고려해 땅속 깊숙이 지어졌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지하철역을 방공호로 활용했고, 냉전 시대에 건설된 3호선 아르바츠크-포크롭스카야 라인은 핵 공격까지 대비해 더 깊숙이 내려간다.

비밀 실험실, 핵미사일, 거대한 쥐 등 모스크바 지하철을 둘러싼 흥미로운 괴담도 끊임없이 생겨난다. 스탈린의 다차가 있는 곳에서 도심까지 비밀 철로가 있다는 소문은 심지어 사실로 밝혀졌고, 정부 요원들을 위한 비밀 지하철 'Metro 2'가 있다는 것도 거의 정설처럼 떠돌고 있다. 지하철 노선도 한 가운데에 링 모양을 하고 있는 갈색의 순환 노선은 스탈린이 지하철 건설 보고를 받다가 커피 잔을 내려놓아 흔적이 남는 바람에 만들었다는 유머도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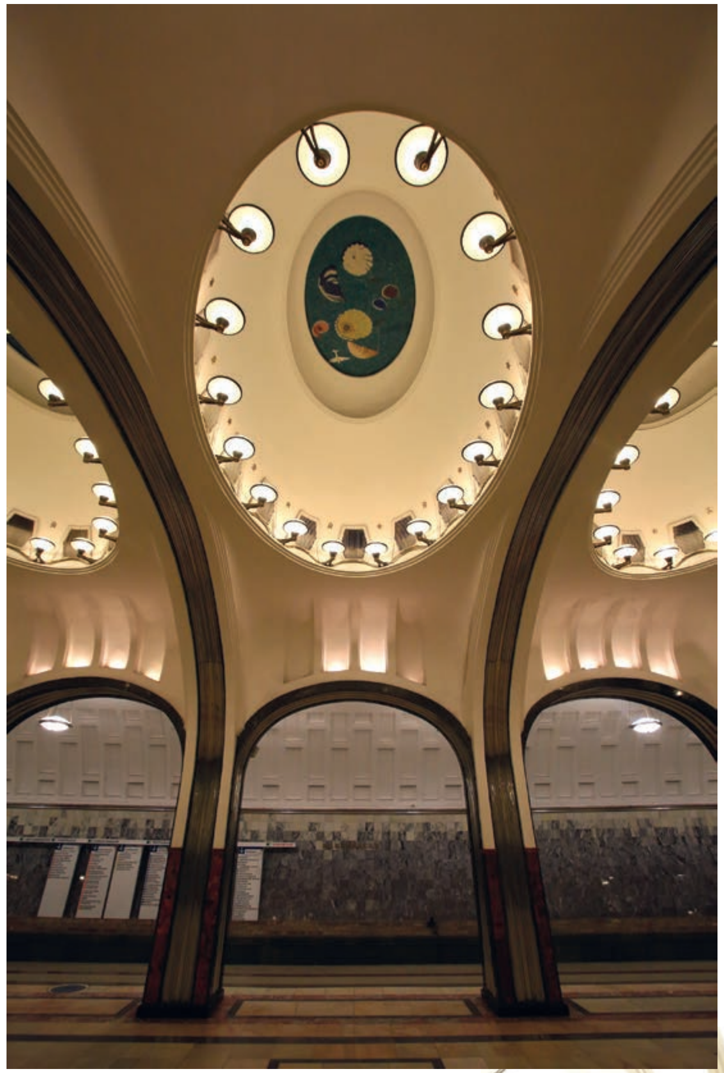
안내 책자에서는 모스크바 지하철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깨끗하며, 제일 빠르다."라는 소개 문구가 있다. 과장을 빼고 다시 적어보자면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매우 깨끗하며,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지하철의 실제 속도는 평균 42킬로미터 정도라지만, 오래전 개통해 낡은 선로나 차량이 많다 보니 달릴 때 소음과 진동이 굉장해서 기분은 최소한 시속 100킬로미터는 훌쩍 넘는 듯하다. 규모 면에서 세계 3위, 188개 역에서 낮에는 평균 90초 간격으로 열차가 도착하며, 하루 평균 9백만 명이 이용하는 모스크바 지하철은 한 번 표를 끊고 들어가면 출구로 나오지 않는 이상 종일 타고 다닐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내에 화장실은 없다!

1937년 완공된 키예프스카야(Киевская) 역은 혁명, 전쟁, 사회주의 건설 등 소비에트 연방의 다양한 서사와 함께 15개 연방 사람들의 특징적인 일상을 담은 모자이크 작품들로 유명하다.



콤소몰스카야(Комсомольская):
늘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한 콤소몰스카야 역은 세 개의 철도역과 연결되는 모스크바 교통의 중심이자 최대 환승장이다. 1935년에 첫 개통한 곳으로, 스탈린은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건축비를 아낌없이 투자했다. 화려한 상들리에가 인상적인 천장에는 색유리와 보석으로 만든 여덟 개의 모자이크 장식이 있는데 대부분 소련의 유명한 장군이나 정치가를 형상한 것으로 원래 스탈린 초상이 있던 자리에 나중에는 레닌의 초상이 들어섰다.

파르크 포베디 (Парк Победы):
2003년 완공된 파르크 포베디, 즉 '승리 공원' 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에 승리한 지 50주년을 기념해 1995년에 완공한 승리공원과 연결된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깊은 역으로 땅속 85미터 지점까지 내려간다. 승강장 한쪽 끝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을 화려하게 묘사한 모자이크 벽화가, 반대편 끝에는 1812년 나폴레옹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모자이크가 자리하고 있다.



마야콥스카야 (Маяковская):
1938년에 개통한 마야콥스카야 역은 소련 혁명 시인이자 러시아 최고의 시인으로 뽑히는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Владимир В. Маяковский, 1893-1930)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지어진 역이라서 전쟁 후 공산주의 선전 요소를 강하게 부각한 다른 역들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천장을 장식한 모자이크 패널의 주제도 서정적이고 우아하며 간접 조명을 활용해 한층 부드러운 역사 분위기를 연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방공호로도 쓰였는데, 시민들이 한 달 넘게 대피해 있는 동안 무려 217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도스토옙스까야 (Достоевская):
도스토옙스키를 기념하며 2010년 개통된 역으로, 승강장에는 『백치』, 『악령』, 『죄와 벌』, 『카리마조프의 형제들』 등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내용이 조각되어 있고 통로 끝에는 도스토옙스키의 대형 초상이 새겨져 있다. 1990년대 시작된 지하철 공사가 경제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20년에 걸쳐 완성했다.

만민을 위한 개인의 헌신,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아마 망설일 것이다. 둘 중 어디를 가야 할까. 트레티야코프 미술관과 푸시킨 미술관. 만일 당신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여행객들은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다. 선택이 쉽지 않다. 아마도 당신은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고갱과 세잔, 모네, 마티스, 어쩌면 앙리-루소의 이름들에 먼저 이끌릴지 모른다. 나는 그런 당신을 단호하게 말릴 생각이다. 여기는 파리가 아니라 모스크바다.

글·정성일(영화평론가·감독)
사진·박정훈

‹쿠르스크 구베르니아의 종교행렬›, 일리야 레핀(1880~1883)

나는 러시아 미술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래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찾았다가 거의 넋이 나갈 뻔했던 쇼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곳은 미술관이 아니다. 당신은 거기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은 서로 다른 네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통 구관과 신관 두 개로 구별된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컨퍼런스 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처 가보지 못했다. (잘 알려진 대로) 1892년 상인이자 콜렉터였던 파벨 트레티야코프는 자신이 모은 그림을 사람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에 동생과 함께 자신이 모은 모든 작품을 모스크바시에 기증했다. 트레티야코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며 자비로 작품을 구입해 목록을 늘려나갔다. 이 미술관이 남다른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부분을 러시아 작품으로 채워나갔다는 점이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일리야 레핀에게 달려갈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쿠르스크 구베르니아의 종교행렬› 앞에서 당신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거짓 믿음을 파는 종교와 저 무자비한 군대, 기적을 기다리는 간절한 민중들의 저 생생한 표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의 삶을 안고 하나의 광경 앞으로 몰려든 것 같은 이 그림 앞에 서면 어떤 해설 따위도 필요 없이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어떤 그림도 도판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작품 앞에서는 그저 한나절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싶어진다. 혁명 전야의 러시아. 거기에 1917년이 어른거린다. 그림은 보는 사람과 작품 사이의 시간과 거리의 문제이다. 철학자 들뢰즈는 "회화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멋지게 표현했다. 작품 앞에서 그것이 주는 힘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림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무엇

또 다른 힘을 찾아서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이 미술관에서 간절하게 보고 싶은 그림 중 하나가 14세기 이콘화의 대가 안드레이 류블료프가 그린 ‹삼위일체›이다. 아, 마침내 그 그림을 만난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기꺼이 러시아의 영혼을 담은 예술가라고 존경을 바치면서 전기 영화를 만든 그 화가. 이미 대가였던 류블료프는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왕실의 제안에 그런 그림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공포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거절한 다음 그림도 포기하고 14년 동안 침묵 수행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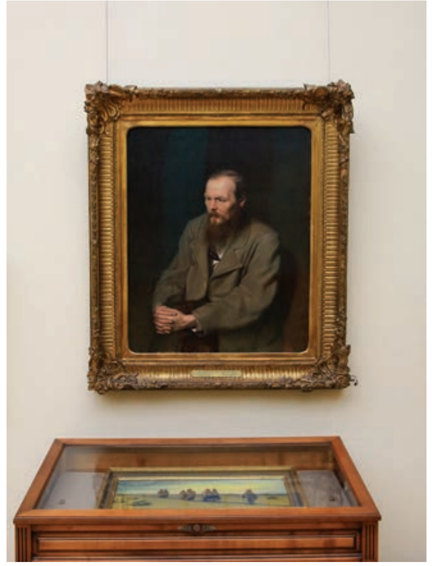
그러던 그가 신비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붓을 든다. 오랜 명상. 세상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류블료프는 그렇다, 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나는 이 그림 앞에서 (아마도) 프랑스에서 온 할머니와 일본에서 온 젊은

남자, 그리고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감흥을 참지 못한 여자가 그만 침묵을 깨트렸다. "So magnificent!" 우리들은 일제가 된 것처럼 미소로 화답했다.

이 그림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만 그 감동의 여운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을 뿐이다. 세 명의 천사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중일까. 저 다소곳한 자세. 조심스러운 미소. 당신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이 그림이 당신과 우주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상념이 물러난 그 자리, 문득 깨달음

이 거대한 미술관에 오면 누구라도 한 번은 길을 잃고 지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만큼 많은 그림들이 미로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저 내가 제목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면은 빼곡히 찰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 미술관에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초상화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많은



‹도스토옙스키의 초상›, 바실리 페로프(1872)

톨스토이, 그리고 푸시킨, 투르게네프, 무소르크스키, 안톤 루빈스타인, 체호프. 그중에서 내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바실리 페로프의 ‹도스토옙스키의 초상›이었다.

오직 회화의 관점에서라면 다른 수많은 작품들이 더 훌륭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도스토옙스키이다. 평생을 모주꾼에 도박 빚에 시달렸으며 종종 찾아오는 간질병에 고통받던 그. 뼈가 드러날 것만 같은 살. 그저 걸쳐놓은 것 같은 외투.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 꼭 움켜쥔 양손의 깍지.

그 자신이 사형수였다가 형 집행 직전에 사면을 받고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악령』에서 키릴로프의 입을 빌려 자문자답한다. "고뇌가 멈추면 죽음이 확실해지는 법이지요, 고뇌는 자살을 막아주는 방파제일까요?" 이 그림은 고통으로 가득한 영혼을 지닌 소설가의 상념에 사로잡힌 듯한, 혹은 잠시 넋이 나간 것 같은, 슬픈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시간을 보고 있다. 내가 앓고 있는 고통 따위란 그저 잡념처럼 여겨질 만큼 이 그림은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 돌아가자마자 『백치』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생각이다.

‹삼위일체›, 안드레이 류블료프(1411)

자, 나는 여기서 어떤 가이드북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을 당신에게만 말해 줄 생각이다. 대신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비밀은 당신과 나만 간직해야 한다. 모스크바의 미술관들이 서방 세계의 그것과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림에 액자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 앞을 유리로 막아놓지 않았다. 나는 유리에 반사되어 그림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조명이 언제나 불만스러웠다. 여기서도 어떤 그림은 유리 너머에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 눈앞에 어떤 방해도 없이 놓여있다.

다른 하나는 관람객과 그림 앞에 놓여 있는 방어선인 줄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림 앞 5센티미터까지 다가가서 붓질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게 가능하다. 정말로 여기서는 당신과 그림 사이에서 마음껏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가을비가 한참 내리는 날 오전에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신관을 방문했다. 푸시킨공원 맞은편에 자리한 이 거대한 미술관은 그날따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물론 방마다 지켜보는 아줌마들이 앉아있기는 했지만 매일 반복하는 업무에 입을 가로막고 하품을 하거나 미술관을 찾아온 낯선 관람객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돌고 있었다. 그러다 3층 거의 마지막 방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18번 방이었을 것이다, 거기 내가 그저 도판으로만 보아왔던 바실리 칸딘스키의 ‹구성 7번›이 걸려 있었다.

‹구성 7번›, 바실리 칸딘스키 (1913)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인 그림. 마치 화음을 내는 것만 같은 색채의 향연. 나는 홀린 듯이 바라보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말았다. 재빨리 흘깃 돌아보자 감시인 아줌마가 깜빡 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만 그 그림을 만, 져, 보, 았, 다. 잘 모르지만 그 색채를 정말 간절하게 '터치'해 보고 싶었다. 돌아보자 뒤에 걸린 마르크 샤갈의 하늘을 나는 두 명의 신랑 신부가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막 그 방을 나서는데 다음 방 입구에 걸려있는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절대주의 사각형›이 질투에 차서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냥 지나친 다음 그저 허겁지겁 계단을 따라 내려가 미술관을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나는 칸딘스키가 한 말을 중얼거렸다. "색채는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색채가 건반이라면 눈은 망치지요. 영혼은 현을 가진 피아노고요." 나는 저 칸딘스키의 건반을 눌러보았을 뿐이다. 아직도 모스크바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겨울이 시작될 것 같았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올게요, 칸딘스키 씨. ㅂ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

톨스토이를 만나다

대문호의 흔적을 더듬는 여정은 내내 현실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켰다. 귓가엔 환청처럼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이 맴돌았고, 톨스토이 영지 내 자작나무 숲길은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가는 통로인 듯싶었다. 톨스토이를 좇아, 숨겨진 파란 나뭇가지를 찾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스크바의 가을은 깊어 가고 있었다.

글 · 정성일 (영화평론가 · 감독)
사진 · 박정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을 생각하고 있었다. 작품 번호 47번 A장조, 일명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알려진 곡. 물론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연주는 러시아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피아니스트 레흐 오보린의 반주로 1962년 6월 파리에서 녹음한 버전이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툴라 주(州) 야스나야폴랴나 마을의 톨스토이 생가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다. 이른 아침을 먹고 떠났지만 차들이 꽤 밀렸고 그런 다음 길을 약간 잘못 들어서 우회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점심이 가까운 11시 35분. 나는 내내 두 명의 거인을 생각했다. 톨스토이는 누구의 연주로 ‘크로이처 소나타’를 듣고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단숨에 쓴 것일까.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너무 어마어마한 이름이라서 감히 부르는 것조차 심호흡을 하게 만든다. 『소설 롤리타』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슬라브 문학 학자이기도 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러시아 문학 강의』에서 익살맞게 톨스토이의 자리매김을 한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다. 전 시대의 푸시킨, 레르몬토프는 논외로 하고 러시아의 위대한 산문 작가들의 순위를 매겨본다면 이렇다. 1위는 톨스토이, 2위는 고골, 3위는 체호프, 4위는 투르게네프, 마치 학생들의 석차를 매기는 것 같다. 지금쯤 도스토옙스키와 살티코프가 내 사무실 앞에 항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의 집으로 인도하는 기나긴 입구에는 마치 소실점이라도 보일 듯이 일직선으로 자작나무가 이어져 있었다. 자신의 하얀 속살을 드러낸 것만 같은 자작나무는 보는 사람의 영혼까지 순결하게 정화시킬 듯하다. 혹은 마치 칼날에 베이기라도 한 듯 드러난 상처. 그 사이를 걸어가면 이상하게 아프다. 나는 전에도 자작나무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건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길이다. 톨스토이는 이 길을 걸으면서, 때로 오가면서, 종종 명상에 잠기고, 문득 새로운 이야기가 떠오르면, 황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거기서 떠오른 여자들, 나타샤, 안나 카레리나, 카추샤, 더 많은 여자들. 1958년에 완간된 톨스토이의 전집은 무려 90권에 달한다. 그는 여기서 그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는 서두르면 안 된다. 톨스토이 생가까지 걸어가는 길에 나무 머리가 늘어져 나뭇잎이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 내려앉은 두 그루의 나무를 그냥 지나친다면 당신은 헛걸음질한 것이다. 거기 너무 늙어서 주저앉을 듯하면서도 버티어 선 채 당신을 맞이하는 이 두 그루의 나무는 톨스토이가 직접 심은 나무들 중에 마지막 남은 것들이다. 생가를 소개하던 안내인은 탄식을 하듯이 덧붙였다.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톨스토이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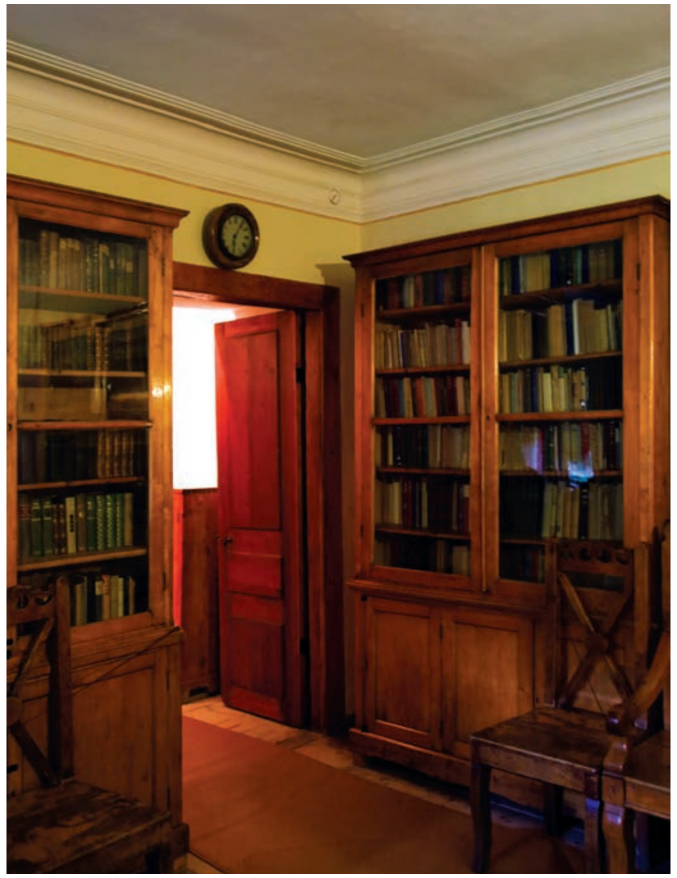
톨스토이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간은 정지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놓인 시계는 아침 6시 5분에 멈춰 있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간에 이 집도 멈춰버렸을 터이다. 이 집은 방에서 방으로 이어졌다. 외투를 벗어서 맡기고 2층으로 먼저 올라가서 둘러본 다음 내려오는 순서를 따라가야 한다. 약간 신음소리를 내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이층에는 1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는 널찍한 방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거기서 톨스토이의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때론 그 자리에 고리키와 체호프, 투르게네프, 화가 레핀이 초대되어 자유로이 담소를 즐기고 토론도 했을 것이다. 거인들의 의자. 제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그저 누군가 나를 그 시간으로 데려가 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바람이다. 마치 그걸 일깨우기라도 하듯이 2층에 걸려있는 톨스토이의 할아버지의 시계는 지금도 똑딱거리며 가고 있었다. 두 개의 시계. 톨스토이의 시계와 그의 할아버지의 시계. 문학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 멈춰버린 시간과 지나가버리고 있는 시간.

톨스토이는 그 옆방에서 글을 썼다. 아주 작은 책상과 거의 부서질 것처럼 약해 보이는 작은 의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벽에는 라파엘로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마도 그가 생각이 멈출 때마다, 주인공들이 결심을 머뭇거릴 때마다, 고작 37세로 세상을 떠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가 그에게 "창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라며 재촉을 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81세까지 글을 썼다. 그래도 힘겨울 때면 누울 침상이 곁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톨스토이의 침대에는 지금도 그의 아내가 정성스레 짠 붉은색과 베이지색이 교차하는 퀼트 무늬가 아로새겨진 이불이 거기 누워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방에서 가장 낯설게 보이는 건 아령이었다. 그건 얼핏 보기에도 노인이 들 수 없는 무게의 쇠뭉치였다. 설마, 라는 내 표정을 보고 해설을 하던 러시아 가이드는 정색을 하고 톨스토이가 온갖 스포츠에 심취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체조, 펜싱, 승마, 테니스에 열중했으며 67세의 나이에 모스크바 시내 거리에서 자전거를 즐겼다고 했다.

톨스토이 생가에서 가장 신기한 방은 2층 맨 안쪽에 자리한 방 안의 방이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톨스토이는 과학적 발명품에 호기심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는 종종 자기 책을 낭송하기도 했고, 하인들에게 녹음을 지시하기도 했고, (박물관의 증언에 따르면) 꽥꽥대며 오리 소리를 흉내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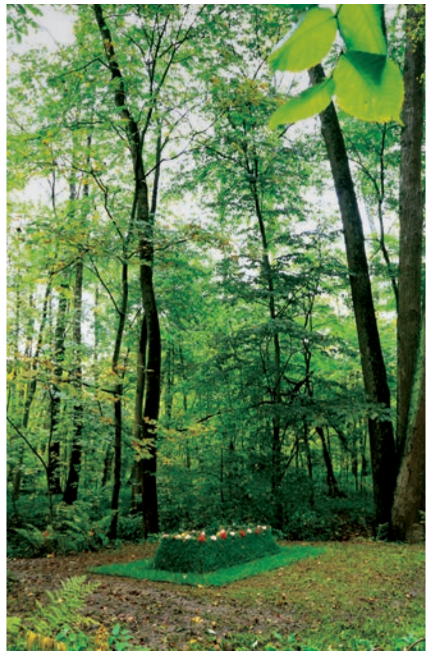
그에게는 전 세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의 독자들일 것이다. 그중에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있었다. 에디슨은 톨스토이의 80세 생일이 되던 해, 그러니까 1908년에 최신형 실린더 녹음기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여기에 톨스토이는 짧은 메시지를 담았다. 나는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목소리를 감상했다. 약간 쉰 듯하면서 이제는 삶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말. 나는 조심스럽게 통역에게 물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가 짧게 대답해주었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거라."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쪽에서는 톨스토이 자신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 했지만 아내 소피야의 반대에 부딪치자 크게 실망했고, 그래서 은밀하게 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그가 자는 동안 소피야가 서랍을 뒤져 그 유서를 보고 분노한 나머지 가출했다고 전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주변에 몰려들어 톨스토이를 성자(聖子)로 박제하려는 자들이 재산과 저작권 일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감언이설로 그를 유혹하는 한편, 유일하게 톨스토이가 신뢰하는 아내 소피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자 환멸을 느끼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제이 파라니의 소설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은 후자의 관점에서 쓰였고 영화로 만들어졌다. 나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대신 1910년을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선택을 해야 했다. 러시아의 차르와 소비에트의 레닌. 그는 둘 다 거절했다. 안내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1910년에 톨스토이가 죽지 않았다면 1917년 혁명은 없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역사를 멈춰 세울 수도 있는 위대한 이름이었다.

1910년 10월 28일 톨스토이는 주치의 두샹 마코비키와 함께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잠든 막내딸에게 인사를 하자 잠을 깬 그녀도 따라나섰다. 그렇게 나선 길에서 폐렴이 갑자기 번지며 톨스토이는 11월 7일 새벽 6시 5분 간이역인 아스타포브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추운 날 새벽. 그는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겼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이 역은 이후에 톨스토이역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11월 9일에 그가 태어난 집으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조문객 수는 5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톨스토이 생가 산책은 집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그의 묘지에서 끝났다. 거기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명도 없고 그저 그 자리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긴 사각형의 흙 자리만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톨스토이에게 어린 시절의 비밀이 담겨있는 곳이다. 그는 여기서 놀면서 형들과 보물찾기를 하곤 했다. 그때 형은 나이 어린 톨스토이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고? 내가 숨겨놓은 파란 나뭇가지를 찾으면 될 거야.” 톨스토이는 그 말을 믿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방문해서 파란 나뭇가지를 찾았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용한 새소리.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되는 바람결. 나는 재빨리 내 호주머니 속의 러시안 루블 동전 세 개를 남몰래 숲속에 던졌다. 러시아인들의 말에 따르면 세 번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제가 찾던 파란 나뭇가지를 찾으면 여기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 ◼

보보담이 만난 네 명의 모스크비치

모스크비치(Москвич, 모스크바 사람)들은 휴가 때 러시아로 여행을 간다는 농담이 있다. 모스크바의 문화나 정서는 일반적인 러시아와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반적인 러시아도, 그것과 다른 모스크바도 이방인에게는 똑같이 낯선 풍경이다. 우리는 평범한 모스크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글·편집부, 사진·박정훈

세르기예프 포사드의 돈키호테

Александр Демахин

매년 가을 러시아에서는 '올해의 교사(Учитель года)' 대회가 열린다. 1990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지역 예선과 전국 본선을 거치는데 최종 우승자가 되려면 모두 여덟 단계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예선에서는 필기 시험, 교육용 개인 홈페이지, 낯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수업, 학생들과의 대화, 학부모들과의 대화가 평가 항목이다. 본선에서는 연설과 토론이 평가 항목이다. 연설 대상은 600여 명의 교사들이고, 토론 대상은 유명 언론인이다. 그리고 나서 남은 다섯 명의 최종 우승 후보들은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과 TV 토론을 벌인다. 펠리컨 모양의 트로피를 받을 최후의 1인은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이 발표하고 시상한다. 참가자에게 나이 제한을 두진 않지만 우승은 아무래도 경력 많은 교사들의 몫이다.

그런데 지난해 대회 결과는 이례적이었다. 최종 합계에서 동점이 나와 우승자가 두 명이 된 데다 50대의 러시아 문학 교사의 수상은 그럴 법한 일이지만 '저 사람은 선생도 아니다'라는 논란을 가져올 만큼 새로운 교수법을 주장한 스물일곱 살 교사의 우승은 신기한 일이었다.

그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데마힌(Александр Демахин) 씨는 중세 수도원 건물로 유명한 모스크바 근교 세르기예프 포사드(Sergievo Posad)에서 6년째 세계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1994년 조셉 올빈스키가 설립한 세르기예프 포사드 중등학교로, 스스로 '괴짜 선생'이라 말하는 알렉산드르 씨의 모교이자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곳이기도 하다. 고리키문학대학을 졸업한

알렉산드르 데마힌 Александр Демахин
demaxin.gimnaz.ru

그는 현재 모스크바와 세르기예프 포사드를 오가며 교사로 또 러시아 국립공연예술아카데미(GITISa) 박사과정 학생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삶을 살고 있다.

"교사 생활은 대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선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올빈스키 학교'는 다른 러시아 학교와 교육 철학이 많이 달라요. 요즘 러시아 교육은 대학입학능력시험(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머리만 강조하는 교육이죠. 하지만 올빈스키 학교는 원리를 강조하고 창의력과 종합적인 지식,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제 목표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거예요. 늘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죠.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수업도 아이들이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 배우도록 유도하죠. 예를 들어 18세기 역사를 가르칠 땐 당시 시를 찾아서 읽어보고 비슷한 느낌의 시를 써오라고 해요. 미술사를 공부할 땐 화가의 특징을 살려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건축 양식을 배울 때는 밖에 나가서 지금 건물에 남아 있는 그 시대 건축의 흔적을 찾아보게 해요. 문학의 중요한 개념은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 보면서 이해하죠. 설명하고 필기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은 대학입학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사라져요. 하지만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의 가능성은 엄청나요. 대학 입학시험 결과도 좋아서 올해 졸업생 중에는 만점자도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교육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교사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꼭 제 방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러시아 교육에는 문제가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알렉산드르 씨는 '4월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설립자 조셉 올빈스키의 철학이 꽃피운 매력적인 결과이자 그 철학을 이어가는 선생이었다.

"얼마 전 교육부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학교는 대학으로 가는 '복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직장으로 가는 복도고, 직장은 무덤으로 가는 복도인가요?'하고 제가 물었죠. 제발 복도에서 사는 건 그만하자고요!" B

Лена Ким

엘레나 김 Лена Ким

www.russiafocus.co.kr

러시아 관영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는 2007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 일간지와 제휴를 맺고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뉴스를 담은 지면을 각 나라 언어로 내보내고 있다. 현재 27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2013년 3월부터는 ‹러시아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한국판도 발행을 시작했다. 엘레나 김 씨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포커스›를 만들고 있는 에디터이다. 매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할 러시아 소식을 기획하고 기사를 청탁하거나 편집하거나 또 직접 쓰기도 하면서 지면을 총괄한다.

“한국인들이 가진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눈이 많이 오고 위험한 나라’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맞고 위험한 면이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게 러시아의 수많은 것들 중 겨우 두 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러시아 포커스›는 한국 독자들에게 그것들을 뺀, 지금까지 몰랐던 러시아, 또 지금의 러시아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러시아어로 기사를 송고하면 파트너인 ‹중앙일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요.”

모스크바를 취재하면서 엘레나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모스크바에 가기 전에도, 가서도, 그녀는 수십 통의 이메일에 늘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답을 줬다. 다만 그녀의 이메일은 종종 러시아 시간으로 새벽 네 시에도 도착하고 새벽 다섯 시에도 도착했다. 굉장한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마감이 가까워지면 늘 그즈음 퇴근을 한다고 했다. 우리가 모스크바를 찾았을 무렵에는 어시스턴트가 사정이 생겨 혼자 지면을 다 감당하느라 한 달째 야근 모드였다. 대저, 마감을 가진 자들의 일상이란 여기나 거기나 크게 바를 바가 없는 게다.

엘레나 김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모스크바에 가기 전(종종 영어가 끼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어로 주고받은 메일이며 한국어로 나눈 전화 통화 때문에, 만나기 전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러시아어를 쓰는 한국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다. 적어도 완벽한 러시아인의 얼굴을 떠올리진 않았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날, “안녕하세요?”하며 나타난 그녀를 보고 2.5초쯤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던 이유다.

할아버지 고향이 함흥일 뿐, 할머니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인 엘레나 씨의 정체성은 100퍼센트 러시아인이다. 그래도 다른 러시아인들보다는 한반도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을까 했지만, 대학 졸업 전까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 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교수신데, 늘 연구에 빠져 계셔서 어릴 땐 주변에 잘 가지도 못했어요. 고뇌하는 학자의 전형적인 캐릭터였어요. 고향 이야기를 해주시지도 않았고 집에서 조선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평생 그런 적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 ‘한국어 배우고 싶지 않니?’ ‘뭐 궁금한 거 없어? 나한테 다 물어봐!’ ‘한국에 한번 가봐, 재미있을 거야!’ 하시면서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아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한국어와 조선어를 구분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사람들과 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평소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던 분단된 한반도, 또 그 역사가 만들어낸 복잡한 상황과 그 속에서 살아온 개인들을 마주치거나 환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아무튼, 대학 졸업 후 그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엘레나 씨는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한글 책을 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 물었더니 뜻밖에도 ‘겨울이 너무 춥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라는 이 모스크비치의 말은 좀 충격이었다. 모스크바는 원래 추우니까 어디나 난방에 신경을 쓰는데 한국은 강의실부터 곳곳에 난방 사각지대가 많더라는 것.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자신이 꽤 재미있는 사람으로 통했는데 한국과 러시아의 유머 코드가 너무 달라서 당황한 경험을 덧붙였다. 어색한 상황을 화기애애하게 만들던 러시아식 유머가 한국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례한 무엇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것. 그래서 아예 농담을 하지 않고 지냈더니 이제는 모스크바에서도 농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며 웃었다.

러시아 관영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러시아포커스› 지면. 매달 한 번 제휴사인 «중앙일보»를 통해 발행, 배포된다.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www.russiafocus.c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쯤에서, 김려춘이라는 학자를 소개해야겠다. 1930년 함흥에서 태어나 1959년 러시아로 망명한 그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문학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자 교수로, 또 러시아 톨스토이 학회의 유일한 한인으로, 평생을 톨스토이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김소월의 시집을 번역하는 등 러시아에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다. 취재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 유명한 학자가 엘레나 씨의 ‘늘 연구에 빠져 있던 할아버지’라는 걸 알았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게 그녀는 오히려 신기한 눈치였다. 김려춘 교수의 인터뷰가 실린 몇 년 전 신문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연구하고 발굴한 자료를 함께 토론하고 나눌 연구자와의 접속을 원합니다. 한국 근대기와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자료들이 러시아에 많아요. 한국 연구자들과 연계해 제가 축적한 데이터를 역사의 진실, 문학의 위대함을 밝히는 데 쓰고 싶어요.”

엘레나 씨는 요즘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고 있다. ‹러시아 포커스› 12월 호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ㅂ

박완서와 박민규를 좋아하는 그녀

Екатерина Похолкова

요즘 모스크바에서 한국어는 외국어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일자리가 많아지기도 했고 5년전 동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한 한류가 이제 모스크바에 당도한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여러 단계의 한국어 강좌는 모든 강의실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십명의 학생들로 꽉꽉 차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이자 러시아 대학 한국어교수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예카테리나 포홀콜바 씨를 만나 좀 더 이야기를 청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한국학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예요. 150여 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했는데, 러일전쟁 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교류가 끊어졌다가 1950년대에 다시 활발해졌어요. 모스크바에도 그때 한국학이 처음 들어왔어요. 물론 당시 한국학은 주로 북한과 교류하면서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 세대 교수님들께 배웠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때는 북한 억양이 강했어요. 1996년에 처음 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군인처럼 말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웃음).

한국어 교수 협의회에 소속 전임 교수들만 100명쯤 되는데 보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반은 소련 때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한 노교수님들이고, 나머지 반은 저처럼 1990년대 중후반부터 남한과 교류하며 공부한 30대 교수들이죠. 중간 세대가 없어요. 20대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번역을 해요. 월급을 훨씬 많이 주니까(웃음).”

그나저나 그녀는 왜 한국어를 전공으로 택한 걸까?
“1995년에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전공할 언어를 학교에서 지정해 줬어요. 국립대학이니까 학비는 국가에서 내고 대신 국가가 필요한 언어를 시키는 거죠. 입학했을 때 한국어 전공 선배는 세 명 있었어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더 선호하긴 했지만 한국어에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어요. 다만 그때는 제대로 된 사전이나 교재가 없어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책도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도 쉽게 구하고 한국 유학 기회도 많아서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참, 제가 어릴 때 길에서 신문을 주웠는데 글자가 너무 예뻐서 뭔지도 모르고 일기장에 베껴 그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일기장을 찾았는데 보니까 한글이더라고요. 신기하죠? ‹노동신문›을 보고 그렸더라고요(웃음).”
거의 매년 한국을 찾는다는 예카테리나 씨는 일정을 쪼개 지방 여행도 많이 다녔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한국 산사의 풍경이 많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꼭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아…러시아….’ 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어학 ‘교수’라고 하면 바로 또 반응이 달라져요. 어느 지방에서는 식당 아주머니가 제가 러시아 사람인 걸 알고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시더니 ‘에이, 소련 빨갱이!’라고 했어요, 하하. 서울역에서는 ‘양키 고 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 사람은 대충 다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웃음). 괜찮아요. 외국인들은 대개 러시아인이면 다 보드카를 좋아하고 러시아 여자는 모두 미인이고 또 성적으로 무척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죠. 러시아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람들은 다 시골 통나무집에서 사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미국 영화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매번 게으른 사람으로 나와요. 이런 건 지구인들이 공유하는 편견인 것 같아요.”

한국 소설가 중에 박경리, 박완서, 신경숙 그리고 박민규를 좋아한다는 예카테리나는, 한중일 3국 중에서 러시아인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침략은 많이 받았어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다는 데 주목해요. 다민족 사회인 러시아에 고려인들이 심어 놓은 이미지도 아주 긍정적이고요. 부지런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가전 제품은 물론이고 ‘한국 당근[корейская морковь]’이라고, 고려인들이 배추 대신 당근으로 만든 김치 비슷한 음식이나 도시락(팔도도시락 라면), 초코파이는 이제 러시아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카테리나 씨는 한 가지, 한국 문화를 러시아에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러시아에 자기 나라 문화를 알릴 때는 일본 문학 작품 중에서 러시아인들이 흥미로워할 작품을 번역해서 지식인들에게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본 문화를 접한 지식인들은 알아서 다른 책도 더 읽어 보고 하면서 나중에는 굳이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본 문화의 전파자를 자처했죠. 그런데 한국은 유행에 민감한 대중 문화나 또 한국 음식 행사 같은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벤트 위주의 방식은 매번 새롭게 홍보를 해야 하고 또 그 대상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감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ㅂ

에카테리나 포홀코바 Екатерина Похолкова
www.facebook.com/ekaterina.pokholkova

동유럽 최대의 앤티크 자전거 수집가

Interview with Андрей Мятиев

"앤티크 자전거의 매력은 익숙한 도구로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든 전쟁이든 혹은 사람이든 한 대 한 대 모두 어떤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주로 러시아 자전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엮으면 지난 150년의 러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모스크바 '차 없는 거리의 날'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앤티크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던 안드레이 미티에브(Андрей Мятиев) 씨를 만났다. 그는 1860년에 제조된 것부터 시작해 앤티크 자전거만 400대, 랜턴 등 액세서리며 포스터, 문서 등은(무려!) 15만 점을 소장한 동유럽 최대의 앤티크 자전거 수집가이다. "자주 전시를 하다보니 나도 내 자전거들이 다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앤티크 자전거 수집은 안드레이의 30년 된 취미이자 직업이다. 유럽 벼룩시장 등을 다니며 자전거를 수집하거나 전시하는 한편, 평소에는 주로 모스크바 근교 '비밀 창고'에서 러시아 자전거사, 기계 발전사, 스포츠사 등을 공부하며 글을 쓰거나 자전거 복원 작업을 한다.

"온전한 걸 살 때도 있지만 프레임부터 부품까지 따로 구해서 복원할 때가 더 많아요. 유럽 국가들 중에 자전거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수도가 모스크바예요. 여기에 박물관을 짓는 게 꿈이죠. 30년 전에 처음 수집을 시작했을 땐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난 그것 자체로도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복원한 자전거 중에 특히 애착을 갖는 건 1916년산 소련 군용 자전거이다. "접이식 군용 자전거인데, 1916년까지 3,682개를 만들었고 1917년 혁명 후에 생산이 중단됐다는 기록만 있지 실물이 없었어요. 그 물건을 보면 꼭 연락해 달라고 8년을 떠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시골 마을에서 누가 "혹시 이건가?"하며 창고에서 프레임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살펴보니 프레임 위로 탱크가 지나간 흔적도 있더라고요. 그 시대 부품을 찾아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데 다시 3년이 더 걸렸어요."

안드레이 미티에브 Андрей Мятиев
www.facebook.com/hbrmoscow

그는 앤티크 자전거를 수집할 뿐 아니라 실제로 타기도 한다. 또 그런 사람이 자신 말고도 많다고 했다. "복원만 잘하면 다 탈 수 있어요. 원래가 타려고 만든 물건이잖아요! 올봄에 광고를 하나 냈어요. 모스크바 시민 중에 앤티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 복장을 하고 나와서 함께 타자고 했죠. 86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앤티크 자전거 애호가들의 세계 모임도 있어요. IVCA(International Veteran Cycle Assosiation)라고, 전 세계 애호가들이 매년 한 번씩 도시를 바꿔가며 모여서 함께 자전거도 타고, 정보 교류도 하고, 희귀 자전거 보호에도 힘써요. 체코에서 열린 올해 총회에는 35개국에서 30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내년에는 헝가리, 그리고 2016년에는 여기 모스크바에서 총회가 열려요. 제가 러시아 대표라서 우린 이미 준비가 끝났지만(웃음). 기대해도 좋아요, 사상 최대의 쇼가 펼쳐질 테니까."

헤어지며 그가 알려준 에피소드. "톨스토이는 67세에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제가 톨스토이 일기를 읽다가 발견해서 글을 썼죠. 그와 관련된 자전거 에피소드는 다 제가 찾아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해외에서 톨스토이 전시 때 유품이라며 등장하는 자전거는 가짜예요. 진품이 훼손될까 봐 박물관에서 제 수집품 중에 그것과 똑같은 걸 빌려가거든요(웃음)." ㅂ

짧은 가을을
좀 더 오래 만나기 위해
준비할 것들

by Prospecs, Mont-bell, Jack Wolfskin

모자·풀오버 재킷·플리스 재킷·팬츠·등산화 (Jack Wolfskin)

늦가을 단풍놀이 떠나는 날

보온성과 투습성이 좋은 플리스 재킷은 가을과 겨울 내내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거기에 방풍, 방수 기능이 뛰어난 재킷과 등산화까지 장착하면 늦가을 산중에서 날씨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걱정 없다.

재킷 (Jack Wolfskin), 셔츠 (mont-bell), 워킹화·미니크로스백(Prospecs)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려도

완벽한 방수, 방풍으로 어떤 날씨도 커버하는 기능성 재킷은 날씨 변화 심한 가을철 야외 활동부터 겨울철 스노 스포츠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반 집업 형태의 재킷은 일반 재킷보다 보온성이 뛰어난 데다 한층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한다.

다운 베스트·팬츠 (Jack Wolfskin), 셔츠 (mont-bell), 워킹화·미니크로스백(Prospecs)

몸은 따뜻하게, 움직임은 자유롭게

등과 목은 따뜻하게, 팔은 자유롭게 해주는 덕 다운 베스트는 가을, 겨울철 캠핑 때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다. 더불어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아웃도어용 팬츠는 스트레치 소재를 고르는 게 좋다.

난 아버지가 떨어뜨린 '가랑잎 한 장'

글·김화성(«동아일보» 전문기자)

첫새벽, 고층아파트 화장실 변기에 앉아 똥을 눈다. 문득 내 머리 위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다. 머리가 지그시 짓눌려 내린다. 그렇다. 어쩌면 지금 내 바로 위층 누군가가 나처럼 똥을 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현재 내가 앉아있는 변기와 정확히 일직선이다. 그가 뻗고 있는 두 발바닥이 시멘트 바닥을 사이에 두고, 내 머리통 위에 정확히 얹혀 있는 것이다. 오호! 그는 지금 내 머리 위에서 똥을 누고 있다. 내 위층의 똥 누는 사람도 그 위층의 똥 누는 사람 발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 위층의 사람 또한 그 아래층 사람의 머리에 발을 얹은 채 조간 신문을 부스럭거리며 낑낑대고 있을 것이다. 그 위층의 위층 그리고 그 위층의 위층의 위층도 그러하리라.

> 고층아파트 화장실에
> 일렬종대로 앉아있는 사람들
> 퇴적물처럼 켜켜로 쌓여있는
> 사람 위에 사람
> 사람 밑에 사람
> 스톱모션 스위치를 누르면
> 딱딱하게 굳어버릴
> 현생대의 화석
>
> 김혜수, ‹404호·3› 전문

나는 과연 누구의 아들인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5,000년 전 단군할아버지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내 머리 위에 아버지는 몇 명이나 될까.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5,000년에 아버지가 160여 분쯤 오셨다 가셨다는 건가. 퇴적물처럼 켜켜로 쌓여, 내 머리 위에 일렬종대로 앉아 있는 아버지, 아버지 화석들. 그렇다. '나는 아버지가 떨어뜨린 가랑잎(이성복 시인)' 한 장일 뿐이다. 나도 머지않아 내 자식의 '아버지 화석'이 되어 딱 '한 켜'만큼 쌓일 것이다.

차씨 집안의 '뜨거운 피' 내력

차치구(1851~1894)는 누구보다도 피가 뜨거웠던 동학 접주였다. 삼국지의 장비와 비슷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은 없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그는 얼굴이 호박만큼 컸고 기골이 칠 척 거구로 장대했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보다 네 살이나 많았지만 전봉준의 말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1894년 음력1월 녹두장군이 정읍고부에서 처음 들고 일어났을 때, 농민군 1,200여 명을 이끌고 맨 앞장에 섰던 이가 바로 차치구였다. 그는 전봉준과 거사를 모의한 핵심 20인 가운데 하나였고, 스스로 손여옥(1860~1899)과 함께 정읍두령을 맡았다. 동학군에서 정읍두령은 '녹두장군 직할 부대'였다. 차치구는 황토현 전투나 전주성 입성 때 중군으로서 일등공신 역할을 도맡아 했다. 물론 공주 우금치 전투 때 대패한 것도 그의 부대였다.

장비가 그랬던 것처럼 차치구는 과격했다. 양반이든 선비든 가리지 않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는 집강소 시절 정읍 지방을 맡고 있었다. 집강소는 1894년 전주화약(음력 5월 8일) 이후 농민군이 전라도 53개 주에 설치한 지방 통치 조직을 말한다. 물론 지방 수령이나 양반 지주들이 농민군에게 순순히 관아를 내준 것은 아니었다. 나주, 남원, 운봉 같은 곳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남원성은 김개남(1853~1895)에게 함락되고 부사 김용헌은 목이 베여 성문 밖에 걸렸다. 고창 흥덕현감 윤석진도 마찬가지였다.

집강소를 설치하려던 흥덕접주 고영숙(1867~1894)을 잡아 가둬버렸지만, 이웃 정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차치구가 바람같이 농민군을 몰고 가서 윤석진을 생포하고 고영숙을 구해냈다. 평소 차치구라면 윤석진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영숙이 "굳이 죽일 것까지야 없지 않느냐."며 말려 마지못해 이에 따랐다.

1894년 음력 11월 27일 태인전투 패배를 마지막으로 농민군 주력 부대는 해산했다. 녹두장군 주위에는 그의 핵심만 남았다. 차치구는 전봉준을 하루 그의 집(입암면 대흥리)으로 모신 뒤 그 곁을 끝까지 지켰다. 전봉준은 입암산성(29일)→백양사 청류암(30일)을 거쳐 순창으로 향했다. 김개남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음력 12월 1일 김개남이 잡혔다. 그다음 날 전봉준도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이십여 리(8킬로미터). 차치구도 결국 그가 살려줬던 윤석진에게 잡혀 그의 칼에 죽었다(음력 12월 29일). 이를 갈던 윤석진은 차치구를 개 패듯이 두들겨 패며 닦달했다. 차치구는 담담했다. "나는 죽을 뿐이다. 더 이상 심문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차경석(1880~1936)은 한밤중 사형장에 내팽개쳐진 아버지 차치구의 시신을 등에 업고 삼십 리 길을 달려 선산에 묻었다. 당시 그의 나이 열네 살. 그도 아버지처럼 체구가 건장했다. 얼굴도 너부데데한 호박만 했다. 큰아들이었던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녔다. 아버지는 그의 우상이었다. 당연히 크고 작은 동학농민군 전투에 소년 용사로 빠짐없이 참가했다. 전봉준의 마지막 호위에도 아버지와 함께했다.

그의 피도 아버지만큼이나 뜨거웠다. 18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그 3,00여 명의 살아남은 비밀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흥덕관아를 습격했다. 예수교를 뜻하는 '영학계(英學契)'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며 호시탐탐 틈을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차경석은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남았다.

1907년 음력 5월 16일 차경석은 강증산(1871~1909)을 만나 그의 문도가 됐다. 증산은 차경석의 집에 한 달 동안이나 머물며 "(총칼이 아니라) 오직 도(道)를 통해서만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게 깨달았다.

차경석은 강증산이 죽자 그의 법통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보천교(普天教)를 만들고 교주가 됐다. 그는 "일본은 곧 망할 것이며, 조선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나라가 탄생하는 데 자신이 그곳의 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들이 비 온 뒤 죽순처럼 일어났다. 일본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는 바람 같았다. 전국 방방곡곡을 숨어 다니면서 포교와 함께 조선 독립을 주장했다.

1921년 9월 24일 차경석은 경남 함양 황석산에서 신도 수천 명과 함께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창교(創教)와 건국을 선포했다. 종교 이름은 '보화교(普化教)', 나라 이름은 '시국(時國)'. 차경석은 스스로 천자임을 선포하고,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조선 민중은 열광했다. 온갖 얘기들이 부풀려져 신비로움이 더해졌고 교세는 마른 풀에 불붙은 듯 활활 타올랐다. 1920년대 당시 보천교는 '남북 2,000여 만 명 중 700만 명이 보천교 신도'라고 큰소리쳤다. 조선총독부 집계로도 170만 명이었으니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었다.

차경석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선이 닿는 모든 단체에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보천교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1936년 교주 사후에도 계속) 147번이나 독립자금을 지원해 전체 지원 건수의 54%를 차지할 정도였다. 민족 진영 김좌진(1889~1930)에게도 군자금 일부를 댔고, 공산 진영 김철수(1893~1986)에게도 독립자금을 댔다. 1922년 차경석은 출판사 보광사를 만들고, 그 이듬해부터는 기관지 ‹普光(보광)›을 펴냈다. 최남선이 운영하던 시대일보도 인수해 신문을 발행했다. 교주 차경석은 여전히 수배령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소재는 오리무중이었다.

"차경석을 교주로 삼아 은밀히 국권회복을 도모하되 교도가 5만 5,000명에 달하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종의 비밀음모 단체로서 주모자는 조선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도 모집에 분주하되 특히 산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이 매우 성대했다."
(«동아일보» 1921년 4월 26일 자)

면면히 이어져 온 아버지의 힘

차일혁(1920~1958)은 차경석의 아들이 다. 그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황포분교를 졸업하고 조선의용대에 들어가 팔로군과 함께 항일 유격전을 펼쳤다(1938~ 1943).

그도 '열혈아'였다. 해방 후 서울에 온 그는 두 눈을 의심했다. 악명 높았던 일본 경찰 간부가 그때까지도 '미군정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1945년 11월 2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원남동 네거리 골목에서 일제 경찰간부 사이가[齊加七]를 권총으로 사살했다. 그 후 차일혁은 경찰에 투신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대장으로 맹활약했다. 70여 명의 병력으로 2,000여 명을 격퇴한 정읍 칠보발전소 전투나, 1953년 빨치산 남부군사령관 이현상(1906~1953) 사살 등이 그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공적은 구례 화엄사 소각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1951년 5월 화엄사 소각 명령이 떨어지자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대웅전 문짝만 떼어내 불태웠다. 그는 명령불이행에 따른 감봉처분을 기꺼이 받았다. 차일혁은 이현상을 사살한 뒤 그의 시신을 화장하여 하동 섬진강에 뿌려 주기도 했다. "비록 적이지만 죽은 뒤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좌익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현상을 사살한 그의 부하들은 세 명이나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지휘관인 차일혁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다만 그의 사후인 1998년 화엄사 경내에 그를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졌고, 2008년 정부로부터 '6개의 고찰을 전화(戰火)에서 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차길진(1947~)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대행은 차일혁의 아들이다. 동학 접주 차치구의 4대손이요, 차천자(차경석)의 3대손이다. 사람들은 그를 차법사라고 부른다. 대중들에게 그는 '영능력자' '예언가'로도 통한다. 그는 스스로 "귀신들이 눈에 보인다"고 말한다. 저승의 귀신들을 불러와 이승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는 '구명시식'이란 것도 한다. 가령 자식이 부모 살아 계실 때 불효를 했을 경우, 저승의 부모 영가를 불러온 뒤, 그 앞에서 잘못을 빌게 하는 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줘 해원을 함으로써 저승의 귀신과 이승의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난 모르겠다. 기자인 난 이승의 것을 보고 헤아리기에도 바쁘다. 어쨌든 그의 주위에는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차일혁은 몇 년째 «일간스포츠»에 '갓 모닝!(God morning!)'이란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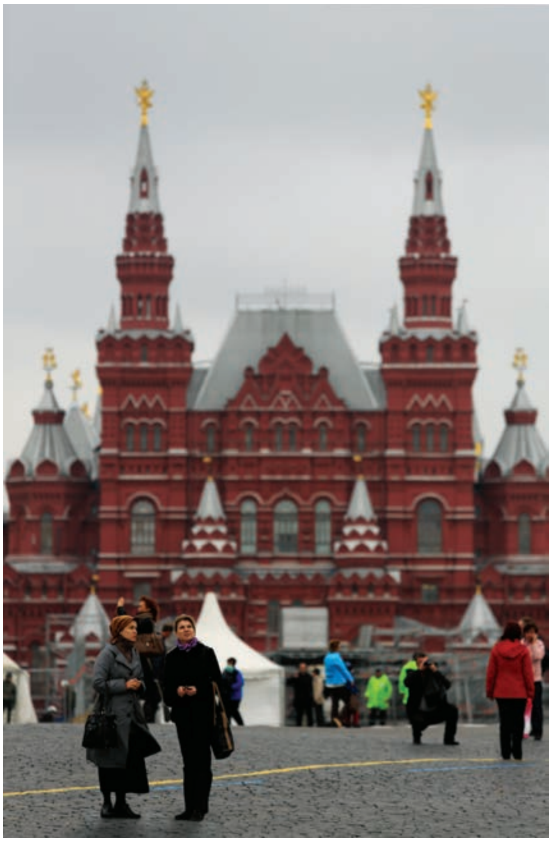
아빠, 어딨어?

성경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는 결국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그 많은 아버지들 가운데는 꼭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르호보암 같은 폭군도 더러 보인다. 예수도 '아버지가 떨어뜨린 한 장의 가랑잎'이었다.
동학의 기본 정신은 인본 정신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나도 모두 잘 사는 '상생 정신'이다. 시인 조지훈은 "최제우 동학의 원형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단군 신화에 있다"고 말했다. 차씨 집안에서는 그 정신이 알게 모르게 면면히 이어져 내렸다. 그건 순전히 아버지의 힘이다. 아버지는 '한 장의 가랑잎'인지 모르지만, 그 가랑잎에 '정신의 줄기세포'를 새긴다. 나는 아버지가 누고 간 한 줄기 똥 덩어리인지 모른다. 하지만, 난 그 거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된다.

최제우(1824~1864)는 늙은 아버지(62세)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아버지 최옥(1762~1840)은 경주에서 내로라하는 선비였지만 사람들은 최제우를 서자라고 멸시했다. 아홉 살에 어머니, 열여섯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열아홉엔 집에 불이나 물려받은 세간과 서적이 몽땅 불에 타버렸다. 그 이후에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10여 년 동안(1843~1854)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사를 하거나 의술 복술 등의 잡술로 먹고살았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은 세상을 보는 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삶이 무엇인지, 왜 조선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는 1860년 4월 5일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문득 '다함이 없는 큰 도(無極大道)'를 깨우쳤다. 내 속에 한울님이 있다는 시천주사상, 서양의 기계문명 사상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동학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깡그리 뒤집어야 한다는 개벽사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최제우는 1863년 12월 10일 경주에서 체포됐다. 유교의 가르침을 어지럽혀 백성을 현혹시켰다는 '좌도난정'이 죄목이었다. 그는 1864년 4월 15일 대구 남문 밖 관덕당 뜰(중구 계산동2가)에서 목이 베였다. 그 자리는 이제 상가와 일반 주택들로 가득하다. 저잣거리의 아버지들은 오늘도 밥벌이를 위해 묵묵히 그 길을 오고 간다.

崔濟愚(최제우)의 '濟愚(제우)'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과연 누가 어리석은가. 최제우가 어리석은가, 아니면 눈만 뜨면 핸드폰에 코 박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이 어리석은가. 아버지들은 도대체 모두 어디로 갔는가. TV 예능프로 '아빠! 어디가?'에 빠져들 있는가. 아아, '현생대의 화석' 아버지! 아버지들! ㅂ



Москва